ISSN 1277-1489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 연구

2014. 12. 제 78호

특.별.기.획. :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지상 중계)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 - 넓게! 깊게! 다양하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두산동아

두클래스는 초중고 교수 ·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
두클래스

DoUclass

교실 수업 자료의 모든 것, 두클래스

- 풍부한 학습자료
- 쉽고 편리한 스마트 수업

두클래스란? 선생님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 집중이수제 취지에 맞는 수업 지원
- 수준별 학습 가능
- 방과후 수업 대응 가능

편리한 스마트 수업

- 교실 특성에 맞춘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 제공
- 선생님의 개인별 맞춤수업 교안 작성 가능
- 다양한 수업 모형 제공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 교과서, 지도서, 이미지, 멀티미디어, 동영상 및 사전 13종 검색 가능
- 문제은행 서비스 제공
-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과목별 콘텐츠 제공

대상 : 초·중·고등 선생님

- 초등: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독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중등: 전과목
- 고등: 국어, 문학, 영어, 실용영어,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한국사, 한문, 기술·가정,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화, 진로와 직업 등

www.douclass.com

목 차

교과서 연구
계간지
2014년 겨울
통권 제78호

권두언

04 책의 향기와 교과서에 담긴 혼 / 이경환

08 **특별기획 ·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화보)**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 - 넓게! 깊게! 다양하게!

14 기조강연 :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 / 곽병선
23 1부 주제발표 : 1945년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수업과 독일-프랑스 역사 교과서 협의 / Falk Pingel
28 토론 / 구난희
31 2부 주제발표① :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핵심역량, 그리고 수업과 교과서 / Carol Mutch
45 주제발표② : 초등학교의 교과서 활용 사례 / 이계자
62 주제발표③ : 교육과정 중심의 중학교 교과서 활용 사례 / 최진아
77 토론① / 서지영
82 ② / 김대현

논단

88 내가 본 한국 교육 / 김정욱

현장교육

94 교과서에 담긴 시, 교과서 밖의 시,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 / 김인호

연구논문

99 2009개정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분석과 글로벌 히스토리의 가능성 연구 / 이진규

교과서 편집자의 변

106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의 시작 / 김신명

탐 방

110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일진사 이정일 대표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작품 소개

114 잘했어. 교과서 / 이연우
116 내가 느낀 경복궁 / 신재하
118 국어는 내친구 / 이시현
120 심사평 / 박정규

123 **'교과서 전문도서관' 협약체결 안내**
127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128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30 **원고 모집**

| 발행일 · 2014년 12월 1일 **| 등록번호** · 서초 바 0006호 **| 발행인** · 선종근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 김병규, 김정호, 이화성, 홍후조, 홍미화 **| 편집기획 간사** · 유순기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우1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 전화 · 02-2651-1953, 02-6206-6357 **| 팩스** · 02-2651-1982 **| e-mail** · editor@textbook.ac http://www.textbook.ac
| 표지디자인 · 김윤철 **| 디자인** · 신성인쇄상사 02-2272-0345 **| 인쇄** · (주)미래엔 02-3475-4092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내용은 편집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의 향기와 교과서에 담긴 혼

이 경 환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1. 책의 향기

창덕궁 후원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면 단청을 칠하지 않은 채, 일반 사대부의 살림집 구조를 본떠 지어진 연경당(演慶堂)이라는 아름다운 전각이 있습니다.

원래의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창건된 것이라 하지만, 아마도 당시의 세도가인 신하들에게 오랫동안 시달려 온 아버지를 이 곳에서나마 편히 모시고자 하는 뜻에서 지은 것으로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이 양반집 건물의 사랑채 왼편에는 청나라 풍의 벽돌 벽과 동판을 씌운 차양을 설치하여 이국적인 모습을 보이는 서재가 있는데 선향재(善香齋)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선향재는 '좋은 향기가 서린 집'이라는 뜻으로 이곳이 책을 보관하고 책을 읽으며 오신 귀한 손님과 담소하던 서재이기에 좋은 향기란 책 향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선향재 주련(柱聯)의 첫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道德摩勒果(도덕마륵과) - 도덕은 마륵의 과일이요,
文章鉢曇花(문장발담화) - 문장은 우담바라의 꽃이로다.

'황금과일처럼 고귀한 도덕과 우담바라 꽃처럼 진귀한 문장'이라는 뜻으로 그러한 도덕과 문장을 갖춘 사람을 찬양하는 표현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년퇴임을 한 후에 가끔 창덕궁에 나가 관람객을 모시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후원에 있는 서향각(書香閣)이나 선향재에 들리게 되면 '책의 향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됩니다.

2. 교과서에 담긴 혼(魂)

요지음도 유난히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과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행정을 담당하였거나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금부터 24년 전(1991년)에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친목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어교과서(1-1, 바둑이와 철수)를 저작, 발행한 날을 기리어 10월 5일을 '교과서의 날'로 제정, 공포하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9회 '교과서의 날' 기념식과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거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국가교육과정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인 함수곤 교수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행정의 전문화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교

육부의 교육내용행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복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김영일 편수관은 이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통하여 편수행정 업무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험이 축척되고 진화하면서 개선,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편찬하는 편수관에게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교과서에 담아야 하는 투철한 교육철학, 즉 영혼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교육내용행정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은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은 물론 확고한 교육철학과 원칙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이 뚜렷한 사람, 영혼이 있는 편수관이어야 합니다. 영혼이 있는 편수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각급학교의 교육목표를, 그리고 각 교과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미래의 교과서에 교육과정의 정신을 제대로, 또 바르게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육과정의 상세화 작업

이제는 국가의 교과서 정책이 검인정교과서 발행 체제로 전환하여 나감에 따라 민간의 교과서 전문 출판사나 시 ·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를 편찬하거나 교육내용을 다루는 편수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출판사나 시 · 도교육청에서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일이 바로 교과별 교육과정 상세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과정 상세화'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흔히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는 어떠한 교육과정 정신이 깃들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 단계적으로 상세히 표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는 적어도 몇 십 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인지,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각 급 학교

별 교육목표와 교육중점 등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학년별, 단계별로 더욱 세분하여 교과서에 담을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입구에 가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좋아하던 교보생명 창업자 고(故) 신용호 회장이 즐겨 하던 말이라 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명언입니다. 책을 통해 수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책이 사람의 인격 성숙을, 즉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정착되어 온 교육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조직, 구성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교육과정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고,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 가치관과 민족성이 서려있기에 이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라 표현합니다.

창덕궁의 후원에서 보았던 책의 향기, 심포지엄에서 들었던 교과서에 담긴 혼 등과 같은 내용은 미래에 대비한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교육과정 정신을 교과서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
- 넓게! 깊게! 다양하게!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01

02

01. 개회사를 하는 우리 재단 선종근 이사장
02.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의 격려사
03.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
04. Falk Pingel (前) Georg-Eckert
국제교과서연구소 부소장 주제발표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01. Carol Mutch The University of Auckland 부교수 주제발표
02. 이계자 경기 구봉초등학교 교감 주제발표
03. 최진아 대구 성당중학교 교사 주제발표
04. 구난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지정토론
05. 조철수 교육부 교육연구관, 김대현 부산대 교수, 서지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01. 심포지엄에 입장하는 내빈들
02. 기조강연을 경청하는 내빈들
03.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시상
04. 1부를 진행하는 이정기 교수
05. 2부를 진행하는 이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원
06. 김만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수석연구위원 심포지엄 종합정리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지상중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 10월 24일(금)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 넓게! 깊게! 다양하게!' 라는 주제로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2011년부터 교육부 지원으로 매년 개최되어 제4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 독일 Georg-Eckert 국제교과서연구소 연구위원, 뉴질랜드 Auckland 대학교 교수, 현장 교사 및 학자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과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였다.

● 곽병선 이사장은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敎科書觀)' 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곽 이사장은,

- 풍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택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스마트 디지털 환경, 지구촌화 환경, 교원들의 교과서 활용 전문성 신장의 요인들이 맞물려 교과서 중심, 평가 중심의 교육(EBS 방송 연계 수능 등)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Falk Pingel 독일 Georg-Eckert 국제교과서연구소 연구위원은 1945년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 수업과 독일-프랑스 역사 교과서 협의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Carol Mutch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교수는 자율성과 책무성 조화의 관점에서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핵심역량, 수업과 교과서에 대해 발표하였다.

Falk Pingel 연구위원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 문제 해결 방식은 상이했다면서, 독일은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과서 등의 개선을 통하여 인접국들과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특히 독일-프랑스간 공동 역사 교과서 발간은 학교현장의 사용이 미미할지라도 초국가적 또는 초문화적 교육활동이라는 혁신으로서 교육 관련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Carol Mutch 교수는,

-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은 비전, 원칙, 가치, 핵심역량, 학습분야(교과목) 중심으로 대강화, 일반화된 개념으로 기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역 및 학교가 그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도록 자율성의 여지를 크게 주고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수업자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무한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 경기 구봉초등학교 이계자 교감과 대구 성당중학교 최진아 교사는 우리나라 초 · 중등학교 교과서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
– 넓게! 깊게! 다양하게!

[Session 1] 기조강연 및 독일의 역사 교과서 사례

- **기조강연**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
- **주제발표** 1945년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수업과 독일–프랑스 역사 교과서의 협의
- **토　　론** 『1945년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수업과 독일』에 대한 토론문

[Session 2]

- **주제발표**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핵심역량 그리고 수업과 교과서
- **주제발표** 초등학교의 교과서 활용 사례
- **주제발표** 교육과정 중심의 중학교 교과서 활용 사례
- **토　　론**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의미 : 교과서 활용 면에서』에 대한 토론
- **토　　론** 『한국의 초 · 중등학교 교과서 활용 사례』에 대한 토론

이계자 교감은,

– 교과서 내용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혁신한 사례(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 수업, STEAM 수업, 프로젝트 교과 통합 수업)를 보여주며, 교과서 재구성을 통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관되는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최진아 교사는,

– 학교 현장이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교육과정 중심 수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교사가 교과서를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구성함에 따라 학생들이 아는 것을 토대로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에 수업의 초점을 두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도 강화되었으며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 토론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난희 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지영 선임연구위원, 부산대학교 김대현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기조강연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

곽 병 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필자는 1986년 교과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의 교과서 정책은 개방적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자유발행제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동안 우리 교과서 정책은 개방적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중등과정에서 과학, 수학, 기술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정이었던 당시에 비추어 대부분이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 연구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미래지향적 교과서관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되는데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시했던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도, 특별히 새로운 것을 주장할 것도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국제교과서 세미나에 한 말씀 드리려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이 여러 면에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교과서를 보는 우리들의 입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음미하고, 우리 교과서 제도와 운영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 적절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사 교육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과서 발행 정책을 개방형에서 국가 주도형으로 되돌리는 데 대한 안이 제안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정계와 학계에서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의 기조 강연은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거시,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화 환경을 내다보면서 기존의 교과서 체제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미래교과서 제도로 생각해 볼만한 대안들에 무엇이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교과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Ⅰ. 교과서관의 문제

공교육 상황에서 교과서란 학교 수업의 과정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공인된 학습교

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인된 학습 교재라고 했을 때 공인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견주어, 학교 교육은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공인되지 않은 자료를 학교의 교과서로 활용하는 경우, 그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경우,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공인된 자료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인의 주체가 국가교육당국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이다. 다만 발행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정책은 관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교육자치기관이나 학교가 독자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교과서가 되는 나라의 경우, 그 공인의 주체는 지방교육당국이나 학교장이 된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될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교과서는 개방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뉴질랜드는 교과서를 공인하는 절차도, 교과서를 선정하는 절차도 특별히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교과서라고 하는 학습 교재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는 나라이다. 달리 말하면,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자료에 관해서 교육당국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의 기조이다. 그것은 개별 교사나 학부모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질 일이지, 제 삼자가 관여할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특별히 뉴질랜드 입장을 발표할 캐롤 무치 교수는 필자가 아는 한 교사양성 분야의 대가로서 이론 분야와 수업 현장에 두루 능통한 분이다. 그는 오늘날 교과서가 없는 뉴질랜드의 교육에서 이미 정착된 학생중심 교육에 통달해 있는 전문가답게 오늘 우리에게 학생중심 수업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발표하면서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은연히 체험하게 할 것이다. 무치 교수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교과서가 없는 수업은 가능한가? 이미 수십 년 기록을 가진 뉴질랜드의 경험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러면 그런 제도 운영은 바람직한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생각을 유보하고, 대신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자극하고 있다.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해법을 찾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는 것을 웅변한다.

독일의 팔크 핑겔 연구위원은 독일은 연방정부협의체와 연계하여 개별 주정부가 교육과정을 발행하되 정부 간 상호 호환성과 학생들의 이동을 고려하고, 학교도서에 관해서는 오로지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주정부가 감독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독일은 자유교과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차 대전 후 나치 독일의 과오에 철저한 반성과 화해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공동 역사교과서가 발행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역사 교과서 발행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개정될 교육과정 관련 사회과 교과서에 대해서 유사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달라도 한참 다르다. 왜 우리는 교과서에 대해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갖는 교육 상황을 갖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선택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입장에 서려면, 교과서란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춘 논리와 이해를 성숙시켜야 한다.

Ⅱ. 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필자는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인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언급하는 교과서 중심 수능출제, EBS 방송 연

계 수능시험 운영에 대해서 교육학자적 식견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을 책에 몰입하는 책벌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자극받아야 할 학생들의 생각을 오로지 국가 주도 외적 평가에 종속시킴으로서, 교육의 무한 가능성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년전에 우리 교육의 교과서 중시 풍토를, 특별히 교육과정과 교과서간의 관계에 대해서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나아가고자하는 기본 구상, 교육 목적, 교과별 핵심 내용은 교육과정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것을 학교 학습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핵심 수단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교과서는 집필진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편찬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삼도록 하면, 결국 수단이 교육과정 기본을 누르고 올라서는 본말 전도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과서 중심 교육은 창의성과 같은 고등 정신과정을 훈련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과 사고방식을 정형화시키기 쉽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학력성취의 중요한 수단이 되게 하면, 교과서 내용을 통달하는 것이 학습의 목적이 되고, 교과서를 매개로 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상의 목적은 소홀히 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과서란 바로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것'이고,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면 바로 교육과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 세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덕과는 교육과정에 정직, 성실 같은 도덕적 원칙을 학생의 인격으로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과목인데, 학생들이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봄으로써 교육과정과 교과서간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은 도덕적 원리를 안내하고 설명하겠지만, 도덕 수업은 그 교과서 내용 숙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도덕적 원칙에 관한 교수-학습의 경우, 그것은 책에 의해서 보다 실제 생활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쌓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가정, 이웃, 거리, 식당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학습 자원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교과서와 긴밀한 보완 관계에 있다. 이것은 과학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험실, 온실, 텃밭에서의 경험이 자연 현상과 과학의 지식을 얻는데 과학 교과서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실험실이나 온실은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마도 과학 학습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고 실험, 검증과 같은 과학의 과정을 학습하게 하는 자원으로서는 서책으로서의 교과서보다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의 지향점과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 목적은 헌법적 가치, 교육 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념, 교육과정 체계와 교과별 내용으로 천명되어 있다. 교과서는 천명된 이 기본 가치, 목적, 내용을 구체화시킨 주된 학습 자료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나, 모든 교과별 교육 내용과 수업 방법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 어디까지나 교육과정 자료로서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서 수단적 가치란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제시하는데 있어서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선택적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교육과정 자체를 대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즉 교과 학습의 핵심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교과의 핵심 내용이지, 설명하고 기술하는 방식에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교사의 수업 방법 선택에 따라 교과서 없이도 해당 교과의 수업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캐롤 무치 교수의 뉴질랜드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서 교과서를 학교 학습의 중심에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다소 역사, 문화적 상황을 포함하여 우리 교육체질 전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과제이지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용 압축 및 정선 방식으로 교과서를 편찬해와, 교과서 내용은 교과의 핵심 내용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데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온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고 산만하게 기술된 미국식의 교과서와 우리와 비슷하게 핵심 내용위주로 편찬된 일본식 교과서를 비교한 외국 학자의 견해에서도 시사된다.[1] 다음으로는 학습성취 평가의 범위를 교과서 내용으로 천명해온 국가 주도 학력평가 관행으로 이를 더욱 강화, 고착시켜 온 데에 있다. 그러한 결과로 교과서 중심 평가가 위세를 갖게 되고, 교과서 범위 내용 숙달 위주의 학교 교육 체질을 강화하여 왔고, 이 체질은 교과서와 지필위주 학력평가 간의 상승 작용으로 온존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중요하게 의식해야 할 것은, 학교 수업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보다도 학력평가에 직결된 시험 교재가 더 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고교 교과서중 일부는 사장되다시피 수업에서 외면 받고, EBS 수능 방송교재로 수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2]

고교 교과서 중 어떤 교과서는 수능교재에 밀려 수업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학교 교육현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능시험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가리킨다. 이것은 초 · 중학교급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은 교사에게 인정받거나 각종 평가에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관련 자료(교과서나 도서)를 탐독하거나 학습 활동을 벌릴 것이다. 과외 수업이나 사교육시장이 번창하는 것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움직이게 하고, 교과서를 왜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게 하느냐에 있어,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의 핵심적 축은 지필위주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이다.

왜 우리 교육상황에는 지필위주 학력평가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교육본령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하는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교과서 문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교육, 교육과정, 교과서간의 관계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 학교교육에서 지필위주 학력평가가 위세를 떨치는가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로 편협된 평가 방식이지만, 그 결과가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재 선발 방식이 구조화되었기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왜 학생들이 교과서 공부해야 하는가에 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무언가 유의미한 입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아마도 누구에게나 같은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다.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 나라나 사회 공동체마다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독특한 기풍, 가치관, 규범의 차이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시야에서 볼 때 한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인간을 길러내고자하느냐의 문제

1) Peacock A. and Cleghorn A. eds(2004), Missing the meaning:Development and use of print and non-print text materials in diverse school settings. 쪽 61-70, 미국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 비교 부분 참조.
2)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공지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있다.

에 있어, 그 중심을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느냐 아니면 사회화에 두느냐에 따라 교육목적 설정, 교육과정 체계, 교과서제도, 학력평가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난다. 어느 한 나라도 이 양자의 입장에서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개개인의 선택 쪽을 한 끝으로 하고, 사회화를 다른 한 끝으로 했을 때, 나라마다 이 양 쪽에서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중간 쯤에 위치하는 나라, 다소 개개인의 선택 쪽에 기우는 나라, 아니면 그 반대쪽에 있는 나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자율과 선택을 지향하는 교육은 자유인 양성을 교육의 가치로 여긴다고 볼 수 있고, 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육은 구성원의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수십 년 전 영국의 교육과정위원회(Curriculum Council)에서 발간된 자료에서 초등학교 교육목적이 기술된 것을 보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기술된 방식과는 특별히 다르게 표현된 것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학생 각자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다는 것이었다.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표현은 확실히 개개인의 선택에 관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필자는 이와는 달리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그 학교 교장과 나눈 대화에서 영국 교육과정 문서에서 느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목적을 정하도록 하는 학생 중심 교육은 혼란을 가져오기 쉽고 가야할 방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필자가 경험한 이 두 개의 사례에서 개별 선택 쪽과 사회화 쪽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암시받을 것이다. 아마도 뉴질랜드의 경우는 확실히 개별학생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따라서 학생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소련을 방문하기 전 1983년 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여러 관련 문헌만을 검토한 결론으로 만약 당시 소련의 교육이 국가 이념 주도 사회화 과정에 치우친다면, 교육의 가능성에 한계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역사이지만, 팔크 핑겔 연구위원이 언급한 나치 독일은 국가 주도의 사회화 중심사회의 한 전형이 될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의 목적 설정을 학생에게 맡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되고자 원하는 인간이 무엇이고,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본인이 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공부하는 가에 관한 것도 당사자에게 달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다. 학습자 자기 주도형 교육은 당연히 따라오는 교육방법이 된다. 이러한 교육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일제 고사식 학력평가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평가는 학생 각자가 세운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평가 형식이 된다. 더구나 지필위주의 학력 평가를 위한 학습이란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스스로 세운 목적에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평가이다. 학력평가 준비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과목의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교과의 성격에 부합한 것이 되기 쉽고, 공부가 즐거운 것이 되고, 공부하는 교과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 상황에서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학습의 필요에 적합성을 가지고 있고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는 자료, 교수방법, 장소, 환경은 어느 특정 인쇄 자료와 같은 것으로 정형화해 놓아야할 이유가 없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법으로 배울 것인가는 학생이 정할 일이지, 누가 미리 정해 놓고 그대로 따라오라는 식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 상황에서는 PISA, TIMMS와 같은 학력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 공부나 학교공부에 대한 만족도, 선호도는 높을

수 있다. 해당 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낮으면서 고득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반대로 높은 양적 성취도 보다는 학교 학습 만족감과 교과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교과서에 대한 공식적 지위 부여 여부, 발행에서의 개방성 정도, 교과서 활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 여부 등은 발행 제도적 측면이나 단순히 기술 방법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교육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궁극적 가치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교육의 근본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교과서 정책은 학력평가 방식과 맞물려 있는 점이기도 하다.

Ⅲ. 미래의 교과서 환경

우리는 문화적으로 책으로 정리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책에 정통한 학자를 숭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문자 해득이 중요했던 과거 전통사회에서 책은 식자 여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고, 학업의 세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일이란 책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교과서를 중시하고, 교과서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러한 문화적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 배운다는 것은 바로 책을 읽고, 쓰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공부한다고 할 때, 실생활과 작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일은 공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에 더해서 현대화된 학교가 설립된 후에도, 폐쇄된 학교의 밀집 공간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학문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과서를 알차게 만들어 주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숙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과서를 마련해 주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은 경제적으로 피폐했던 한국 전쟁 기간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우리의 교육에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의 핵심을 전달해주는 학습 자료로서 역할 해 온 것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오늘날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학생들의 경우, 마땅한 교과서가 없어 학습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습 자료가 빈곤한 시대에 있지 않다. 그와는 정 반대로 너무나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도하는 정보, 우리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 필요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진입하였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우리의 미래 교과서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스마트 디지털 환경이 주는 변화이다. 정보공학의 발달로 인쇄 매체 교과서로 전달되지 않으면 학습과제 제시가 불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미 현실로 도래한 스마트 디지털환경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손안의 스마트 웹 기기가 수천 쪽에 달하는 각종 사전, 옛 고전의 원문은 물론 실제 접촉하기 어려운 전 세계의 예술 작품, 공연을 가상 박물관, 가상 공연장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하고, 원거리 현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검색, 동영상, 실시간 원격 접촉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디지털 환경의 양극화 없이 누구에게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 전면적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회 일반과 언론은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 교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양방향 상호작용이 일반화되는 디지털 학습교재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며, 전자책 사용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미 정보공학은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초디지털 방향으로 눈부시게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이 표현된 내용을 수동적으로 익히기만 하던 방식에서 정보 가공의 능동적 주인으로 역할변화도 예상된다. 서책 편집형태의 전통적 학습정보 제공방식도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소프트웨어에 친숙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 교육환경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지구촌화(글로벌) 환경이 가져오는 인식의 변화이다. 우리 식의 교과서가 다른 나라의 교과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과서 수요자들은 다른 나라의 변화 추세에도 민감하다. 국내 교과서 시장에서 외국 교과서 판매대가 학부모, 학생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의 교과서 발행 관계자들은 세계에서 열리는 교과서 전시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에 대한 관점, 발행 체제 등은 나라, 지역별로 특징을 갖기도 하지만, 전 지구적 관점에서 동일 보조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특별히 수학, 과학 교과와 같은 분야에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교원들의 교과서 활용에 대한 전문성의 신장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직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우 또한 비교 우위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교과서 집필, 선정, 활용 등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승될 것이 예상된다.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수업 계획을 짜려고 하기보다, 실존하는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것에 상응하여 수업교재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를 보다 현장 교사 중심, 학생 중심 입장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능력을 신장하게 될 것이다.

Ⅳ. 우리 교과서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 가치를 기본으로 누구나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수 학습 요목으로 설정되었다. 학생 개개인이 행복한 삶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이 나라가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명하고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들이 미래에 당면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우리가 교과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교과서 중심 교육질서는 우리가 보다 넓은 시야로 재음미하고, 학생들이 보다 자기 주도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간의 본말 전도 현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 체계와 운영지침만 있으면, 해당 교사는 책임 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계획,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교재 구성, 수업방법의 선택은 전적으로 교사의 몫이다. 학력평가의 기준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별 학년별 위계에 따라 핵심 성취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해당 교과 교사들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만으로 교사는 책임 있게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구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설명으로 교과 내용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고교 국사교과서가 저자마다 특정 입장에 따라 편향된 저술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 중심 교육은 필연적으로 학교 수업이 시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시험의 방편으로 교과교육을 하는 한, PISA에서 점수에선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교과 선호도나 학습만족도에선 하위권에 있는 비극적 기현상을 면치 못한다. 우리가 학생들이 갖게 해야 할 학교생활은 메마른 수험준비 반복학습이 아니라, 실험실, 연습실, 운동장 등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즐겁게 뛰어들어 체득한 경험들이어야 한다.

둘째, 아울러 왜곡된 평가체질을 혁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EBS 방송 연계 수능시험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 필자는 EBS 방송교재 연계 수능제도 혁파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능교재 시험문제 풀이 반복 훈련 대신 실험·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고, 토론, 실기 연습 등 교과학습의 본령을 살리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한 과목일지라도 여러 출판사 교과서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모든 교과서 공부라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또한 방송교재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영업이익 손실도 교육계와 교육 산업계 간의 선순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셋째, 학생 중심 교육을 과감하게 시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학교 과정에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 기조는 학생들을 시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각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현재와 같은 교과서 중심, 시험 중심 구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여건을 갖추어 놓고 적용에 들어가려면 어느 세월까지 기다려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3년 과정 중 한 학기만이라도 학생주도 학습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하였다. 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우리의 교과서 중심 교육관행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시도이다.

자유학기제라고 이름 붙인 자체가 우리의 교육 체질과 정서에는 쉽게 와 닿는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자유" 학기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하고자 한데에 있다. 이 자유학기제의 정신이 모든 학교 급별, 교과별 수업에 스며들어 우리 교육이 학생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고교 국사교과서 발행은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사 고교 교과서 발행을 검정제로 유지할 것인지, 국정제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상응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국사 교과서 문제가 이처럼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데에는 우리 사회가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 기반을 원만하게 성숙시키는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진영 간의 대화에서 자기주장만 있지 타협과 절충, 공동이해 기반 형성과 같은 공동체성 존중의 풍토가 조성되어있지 못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 공존을 어렵게 할 정도로 분열적 진영주의가 극에 달한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는 국사 교과서 문제는 갈등하는 진영 간 모종의 합의기반을 성숙시킬 수 있을 때까지 한시, 과도적 조치로 검정제 발행을 유보하고, 국정제를 운영하되 이해 당사자 진영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상호 깊은 토론과 합의로 공동 이해에 도달한 내용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게 하여 지금 검정제로 논란이 되는 역사 기술의 편향성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역사학계와 국민 일반이 더 이상 편향성 논란이 재론되지 않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검정제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과서 활용기반 조기 구축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전자책 기기에서도 구동될 수 있는 전자 교과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학교 시설은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환경으로 바꾸어 IT기술 발전의 혜택을 교육이 가장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곽병선, 이혜영(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서).
- 이종국(1991).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Haynes, A(2001). Writing successful textbooks. A & C black. London.
- Jackson, P. & Haroutunian-Gordon(eds., 1989). From Socrates to software: the teachers as text and the text as teacher. 89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Peacock A. & Cleghorn, A(eds., 2004). Missing the meaning. Palgrave, Macmillan.
- Rylance, R(ed., 1987). Debating Texts: a reader in 20th century literacy theory and method. Open Univ. Press.
- Stanford, M(1986). The nature of historical knowledge. Basil Blackwell.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1부 주제발표

1945년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수업과 독일-프랑스 역사 교과서 협의

Falk Pingel
Georg-Eckert
국제교과서연구소
연구위원

두 패전국의 역사 문제 : 독일과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에서 재구축된 교육제도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럼에도 연합국들이 착수한 개혁 조치-미국은 일본에서처럼 서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뭇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은 뿌리 깊은 역사적 스테레오타입 및 과거의 적국과 인접국 간의 증오와 불신을 근절하려는 과정에서 역사교육이 담당해 온 역할을 검토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戰後)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과거의 적국들과 화해하고 인접국들에 대한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역사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돌이켜 보면 종전(終戰)은 독일과 일본 모두 전통적인 교육제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한두 해 동안 역사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연합국들은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에 관여했으며, 배타적인 국가주의, 군국주의, 인종주의, 민족적 우월주의 등을 더 이상 전파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다. 일반 대중의 시각을 존중하고 과거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교육제도는 분권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성격을 띤 엄격한 중앙집권적 통제 메커니즘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역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민중"의 역사와 사회사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국제적 상황과 국내 상황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평화적인 국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새로이 등장했다. 서독에서는 연합군 점령기부터 이러한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서독, 프랑스 및 영국(이후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포함)의 교육기관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참석한 일련의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역사와 관련된 논쟁적 사안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오랜 반목을 극복하고 공통된 역사 인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들 세미나는 주로 교사 노조가 주최하고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했으나, 신설

된 독일 외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들도 이내 지원 대열에 동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프랑스 관계에 관한 일련의 전문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그러한 세미나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프랑스 역사·지리 교과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51년에는 근대사의 논쟁적 사안에 관한 최초의 교과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권고안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파시스트 시대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대전쟁(Great War)"이라고 불리던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에 대해 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견해는 흥미롭게도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책임이 독일 정부인가 아니면 대다수 제국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인가를 놓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논쟁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십 년간 독일과 프랑스의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양국의 역사가들을 갈라놓았던 문제에 대한 공동 권고안의 발표는 대단히 고무적인 출발점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프랑스 교과서 위원회는 거의 매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번갈아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독일-프랑스 교과서 위원회는 양국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며, 두 국가에 대한 더욱 균형 있는 시각이 담긴 교과서 개발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해 왔다.

독일이 과거 서유럽의 적국 및 인접국들과 화해하기 위한 과정은 처음부터 다양한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새로이 수립된 서독 정부는 나치 독재 시기에 대규모의 전쟁범죄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음을 시인하고자 했다. 나치 체제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시인에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배상금 지급 의지가 포함되었다. 서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등의 서유럽 군사·경제 동맹에 정치적 · 경제적으로 편입되면서 전쟁범죄의 시인과 보상 문제는 동시에 추진되었다.

나아가 평화적인 분쟁 해결에 대한 의식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교과서 협의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에 의해 수립된 전통을 돌아보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1925년 국제연맹 산하 "지적 협력에 관한 국제위원회(ICIC)"는 "향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지양하고자 편향되고 결함이 있는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한 교과서 비교 분석 작업에 모든 국가 위원회가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1932년 ICIC는 국제적 차원의 교과서 협의를 위한 모델의 개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1920년대와 1930년대 프랑스와 독일의 개혁주의 교원 단체들과 개방적 성향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다른 국가들을 악의 무리로 간주하거나 과거의 적국을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며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전통적인 국가주의적 시각의 근절을 위한 초기 시도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은 나치 체제하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프랑스 교과서 위원회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전통이 수립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브라운슈바이크 교육대학교의 게오르크 에커르트 역사교수법 담당 교수는, 국제적 차원의 교과서 비교 연구 및 개정 작업을 정력적으로 그리고 탁월한 방식으로 추진한 인물로서, "게오르크 에커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www.gei.de)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교과서 비교 연구 및 개정 작업에 관심이 있는 학자, 교수, 교사, 교육 당국 등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초기의 비교 활동을 염두에 둔다면, 독일과 일본의 출발점이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점령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상이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독일은 정치제도와 국가의 지도 체제가 전면적으로 바뀐 반면, 일본은 천황제가 계속 허용되었다. 서구 지향적인 민주제가 도

입되었음에도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 천황은 고도의 도덕적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범죄에 대한 죄책감은 독일에서처럼 훨씬 광범위한 정치적 · 군사적 조직이 아니라 주로 군부의 지휘관들로 구성된 소수 집단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심지어 전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의 역사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집단적 죄책감의 문제가 일본에서는 긴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다(Nozaki 2008).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과 달리 초국가적인 역내 기구가 등장하지 않았다. 한국은 분단된 후 전쟁과 독재정치로 인해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 잡았다. 베트남은 분단된 후 일본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방인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상당히 유사하게도 일본은 국가주의적 열망과 전통주의적 태도가 사회 분위기의 주류를 이루었다. 강력하고 급진적인 좌파 운동이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 미국은 이내 일본에 대한 내부 통제를 포기했으며,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엘리트 집단이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을 되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교과서 승인 절차를 재도입했고, 미국의 자유주의 · 민주주의 교육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전후 수년간 인접국 중 어느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전쟁 기간 중 점령지 국민이 입은 고통을 무시하고 팽창주의적 전쟁 정책을 정당화하는 국가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나아가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가해와 범죄가 일본 정부에 의해 낱낱이 인정되거나 광범위하게 연구 및 입증되기도 전에 일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허용했고 보상금에 합의했다. 연합군 점령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상/배상("Wiedergutmachung") 문제를 다루어 온 독일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하는 포괄적 구조가 자리 잡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은 보상에 관한 자국의 관대한 태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해석, 특히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 교과서 문제는 주된 외교적 장애물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는 서유럽 지역에서 화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철의 장막"을 넘어 독일-폴란드 교과서 권고안이 발표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과 유사한 교과서 수정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교과서 연구 또한 정식 학문 분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일본과 중국 등 소수의 아시아 국가만이 유네스코 교과서 국제 세미나에 대표단을 이따금씩 파견했을 뿐이었다. 흥미롭게도 그러한 세미나에서는 아시아의 교과서에 유럽이 어떤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가에 대해 주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내부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 교과서 공동 협의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독일: 국가 패러다임에서 유럽 패러다임으로

연합군 점령기 이후 보수적인 역행 과정이 시작된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서독은 경제 회복에 집중했고, 역사 교과서 저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은 대부분 나치의 범죄를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다루기를 주저했다. 그럼에도 점령 세력이 시작한 개혁 조치는 일본처럼 철저히 외면받지는 않았다. 교육제도는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과 마찬가지로 연방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적인 교육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교육과정은 개별 주정부의 교육부가 정했다. "교육문화장관상임회의"에서는 그러한 각각의 교육과정이 상호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주(州)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했다. 주정부의 교육부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가와 헌법적 원리를 전달하는가에 대해 검토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과서 승인 과정은 과거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독일 사회가 나치 시대와 더 멀어지고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더 확고해짐에 따라, 정치인들은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 방법론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 것이다. 일부 주정부의 교육부는 교과서가 교육과정 및 헌법적 원리에 부합한가를 확인할 책임을 교과서 출판사에 부여하면서, 교사, 학부모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교과서를 직접 검토한다.

독일의 교과서 시장은 자유 시장이다. 교수법과 수록 내용, 학습 초점별로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교사회의에서는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한다. 이러한 제도는 다원주의적 교과서 편찬에 기여해 왔다. 동서독의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의 신생 주정부들은 서독의 교과서 제도와 교육과정을 채택했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의 유럽에서는 폴란드나 체코와 같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여와 더불어 교과서 협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새로운 지적 자유가 보장되고 소련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독소불가침조약, 나치 부역(附逆)*, 독일 패전 이후 독일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다. 관련 국가들이 계속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더라면 교과서 협의에서 다루어지지 못했을 사안들이었다.

유럽 통합이 가속화하면서 최소한 과거 EU 회원국들 간의 교과서 협의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의 정도가 덜해졌다. 양국 간 협의라는 기존의 접근법은 유럽 차원의 접근법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역사 교사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역사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미나 참가자들은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법론 및 교과서 내용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여러 회원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고안과 공동 교재도 개발한다.

유럽 차원의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국내 역사의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고 유럽 전체의 공통성을 부각시키는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학자들 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협력 관계와 양국의 긴밀한 정치적 유대를 바탕으로, 두 국가의 교육정이 모두 반영된 역사 교과서가 유럽에서 최초로 편찬되었다. 2006년 독일-프랑스 역사 교과서 제1권이 간행된 것이다. 비록 이 교과서는 독일-프랑스 교과서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추진되는 2개국 공동 사업의 초석을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의 개발 과정은 2003년 5월 18-23일 베를린에서 "독일-프랑스 청소년의회(German-French Youth Parliament)" 제1차 회의가 열린 것이 그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기구가 주관한 이 회의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고교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 역사 교과서

* 부역(附逆) : 국가에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

개발안은 청소년의회에서 통과된 최종 결의안의 일부였다. 이 결의안은 2003년 5월 23일 베를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두 국가 수반은 해당 개발안의 추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승인이 최고위 차원에서 이루어지자 양국의 역사학자, 교과서 저자, 관계 부처의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 전문가 집단이 결성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신중한 분석 작업을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은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사, 프랑스사, 유럽사 및 세계사를 아우르는 전체 교과서 구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공개 경쟁을 거쳐 선정된 독일-프랑스 공동 팀이 교과서를 집필했다. 이 교과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 출판사에서 각각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출판되었다. 독일어판과 프랑스어판 모두 수록된 내용은 동일했다.

양국 모두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정규 교과서로서의 독일-프랑스 교과서에 독일사와 프랑스사뿐만 아니라 유럽사와 세계사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개 상황에 대한 예시 부분에서 저자들은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이 교과서는 유럽 전체의 시각을 강조하면서 개별 유럽 국가의 역사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 시장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독일-프랑스 교과서 외에 다른 종류의 교과서를 선택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서점에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독일-프랑스 교과서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나 초국가적 또는 초문화적 교육 활동이라는 혁신이 교육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과서라고 하는 생산물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동 역사 교과서가 비록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교과서의 개발 경험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각국의 내러티브는 지극히 상이하며 자국에 대한 자부심 및 역사적 정전(正傳)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관념을 반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이다. 혁신은 교육 관행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 학계, NGO, 사회단체 등에 속한 여러 행위자들 사이에 확산되어 마침내 교실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독일-프랑스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3개국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2개국 또는 3개국 공통 교재들에도 적용될 것이다.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토 론

『1945년 이후 독일의 역사교육과 독일』에 대한 토론문

구 난 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게오르크에케르트 연구소를 주도하셨으며 독일과 인근국가간의 교과서 대화와 공동교류 협력의 귀중한 성과를 이끌어오신 포크 핑겔 교수님의 옥고를 토론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오늘의 발표는 전후 독일 사회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통해 어떻게 유럽 국가와 함께 공존과 공영의 지대한 성과를 이룩해 나간 과정을 통시대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며 특히 일본과 동아시아가 처한 사정과의 차별성을 제시하여 일본과 역사문제 등의 갈등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교과서 대화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하 토론은 선생님의 발표문 가운데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독일이 2차 대전의 패전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일본과 달리 배타적인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인종주의를 일소하고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역사교육을 실현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럽사의 정치 외교적 환경이 매우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전승국의 개혁 요구보다도 내재적 반성 속에서 전후 보상이나 책임 문제를 명징하게 처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본 내에는 왜 이러한 자생적 움직임이 형성될 수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일본 내부에 잔존해 있는 국가주의적 열망과 전통주의적 태도에 대해 미국이 철저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에는 독일과 같은 새로운 역사 인식을 구성할 내부적 동인이나 지성이 없었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있었으나 그것을 저지하고 배제할만한 다른 기제가 작동되었으며 결국 미국의 대일본 정책 탓으로 보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

습니다. 자칫 전후 문제 해결의 불철저성을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어 좀 더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일본의 전후 조치는 여러 면에서 참으로 독일과 다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은 종전 이후 지향했던 평화지향의 역사관을 자학적 사관이라 폄훼하고 교과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역사 대화와 자국의 역사교육의 향방을 정립하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과 도전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국 등 주변국가들은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과의 연대와 이들의 움직임과 연대를 놓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강화되고 중국의 패권적 역사인식이 가세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국가주의, 민족주의 중심의 역사관을 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지형은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교과서 문제 해결의 향방을 전망하기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역사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단지 국가와 국가 내지는 민족과 민족간의 대립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고 갈등과 반복을 유발하는 세력간의 대립이 아닌가 합니다.

혹 이런 점에서 독일의 유럽지향적 흐름이 전개되어 나가는 가운데 독일 내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독일 사회 내 순향적 방향으로 조정해 나갔는지의 사례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동아시아 사회에 시사점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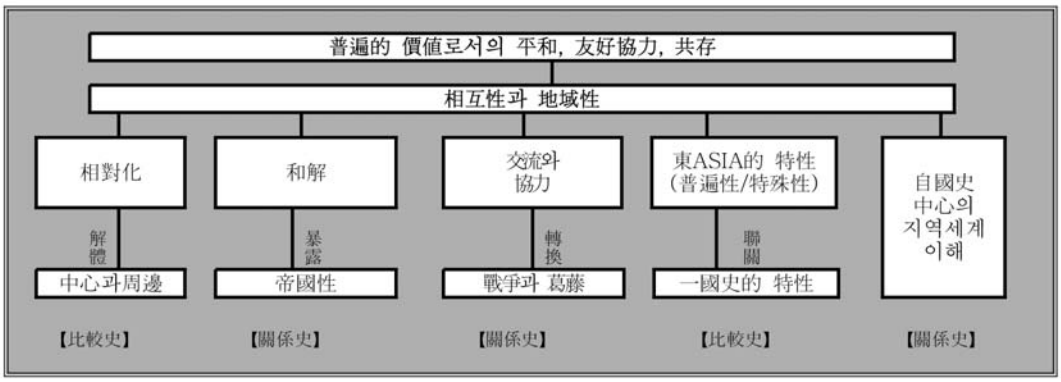
아울러 발표문에서 '양국간 협의라는 기존 접근법을 넘어서서 유럽 차원의 접근법으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인식의 전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국가간 성과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과정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양국간 협의보다는 한중일 삼자간 협의 수준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아시아적 단위의 새로운 논의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한국의 '동아시아사' 성과와의 비교

한국에서는 2007년 동아시아사 과목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개설되고 2012년부터 고등학교 정식과목의 하나로 '동아시아사'가 개설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이라고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과목은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이해와 분석 능력을 키워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내 국가들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경 세력 가운데는 이러한 취지는 대외적 명분에 불과하며 새로운 한국사 중심의 편향된 역사교육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교육은 자국사와 세계사를 양축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동아시아사는 양자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지역사의 이해하는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세계 이해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환기적 정의'를 가해국 일본이 아닌 피해국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표 1]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서사 구조



균형잡힌 시각은 중심과 주변을 해체하고 국가의 경계를 허묾으로써 동등한 가치와 수준으로 다양한 역사를 상대화하고, 각국이 크고 작게 자행했던 제국성을 폭로함으로써 화해를 추구하는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서술은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의 장면에 주목하고 일국사적 시각에서 변호하고 과장했던 해석을 지우고 동아시아라는 지역 세계에서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서사 구조를 요약해보면 표1과 같습니다.

표1에서 보듯 동아시아사는 단지 동아시아라는 공통의 분모와 비갈등적 요소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국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제국성의 폭로라는 서사방식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행위를 폭로하는 동시에 한국의 동아시아사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문제, 다문화 사회의 통합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으며 중심과 주변의 해체를 통한 상대화 시각을 다루기 위해 북방 유목민족 중심의 동아시아사의 흐름도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전의 자국사, 중국사, 유럽 중심의 세계사와는 다른 맥락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교육현장의 어려움도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가 독일-프랑스 공동 교과서의 성과와는 어떤 공동성과 차이가 있는지 종전의 일국사 중심의 유럽사와의 충돌 지점은 없었는지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독일-프랑스 이외의 유럽사적 질서를 재구성한 사례는 없었는지 경험적 성과가 궁금합니다.

4. 국가수준의 교과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발표문 중에 독일의 교과서 발행과 활용 제도를 언급가운데 독일은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이 완화되고 학교 단위의 책임과 결정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교과서 편찬이 크게 기여하였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대부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작동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이지만 국가의 일정한 관리가 작동되는 교과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내 국가간에는 서로 다른 교과서 제도를 둘러싼 평가가 교과서 대화의 향방을 흩뜨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조치 속에서 안착되고 있다는 점도 유럽의 실천 사례와는 차이를 갖는 대목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이 역사교과서 대화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2부 주제발표①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핵심역량, 그리고 수업과 교과서

Carol Mutch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교육학 부교수 및 교육학
비평 학과장

개 요

오늘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에서 여러분들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주관해주신 주최 측의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오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교 연구학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분야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교 연구학은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비교 연구학은 우리의 시스템을 더욱 상세히 고찰하도록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PISA(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TIMSS(수학·과학 성취도 평가), PIRLS(국제 읽기 능력 평가) 등 국제 비교 연구학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나라의 학교교육 체계가 어떻게 교육, 학습, 평가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체계가 국제 수준에 도달하는 데 성공적인지를 더욱 절실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연구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로 다른 교육 체계가 다른 접근방법으로 동일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국, 핀란드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모두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각국의 교육 체계는 모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타국의 성공 사례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으나, 이러한 성공요소를 다룸에 있어 각국이 처한 다른 환경적 맥락을 주의깊게 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교육 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영향 하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체계는 세계화, 기술의 진보, 인구변화, 경제의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교육 이론에 의해 변화되고 또 그 변화에 적응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새천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많은 토론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시작점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여전히 시간상 기로에 서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지금의 심포지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돌아보면 세상은 급진적으로 변한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의 개념은 실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50년 전 과연 누가 무제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누구와도 연결이 가능한 주머니속 작은 기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그리 큰 변화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지고, 제어장치 및 새로운 특징들이 소개되었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차체, 4개의 바퀴 그리고 샤시로 이루어진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교육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교실이 50년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있나요? 물론 컴퓨터와 전자 칠판 등이 있지만 여전히 교실은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자 교사, 책상, 학생 그리고 책들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과연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는 하는 걸까요? 아니면 20세기적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21세기 학교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미래 시나리오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01년 OECD의 연구는 미래의 학교교육에 대해 여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상이 유지된 형태		학교의 변화		학교의 해체	
시나리오 1	더욱 관료주의적인 학교 체계	시나리오 3	핵심 사회 센터 역할으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5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시나리오 2	시장 모델의 확대	시나리오 4	집중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6	교사의 탈출-붕괴 시나리오

2001 OECD 보고서 p. 79

OECD 보고서 후속의 일환으로 아태지역의 교육을 이끄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지 조사되었으며, 아래의 결과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시나리오로 조사된 결과 입니다.

시나리오	뉴질랜드	한국
S1	1.96	2.42
S2	2.30	3.42
S3	4.48	4.83
S4	**5.43**	**5.29**
S5	1.78	3.83
S6	*1.13*	*2.08*

진하게 표시된 수치 =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 이탤릭체 =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
2004년 Kim & Mutch p. 51

아래는 가장 미래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결과로 조사된 양국의 결과 입니다.

시나리오	뉴질랜드	한국
S1	**4.17**	4.17
S2	3.70	**4.25**
S3	3.35	3.25
S4	3.17	3.23
S5	*2.70*	3.37
S6	2.74	*2.54*

진하게 표시된 수치 =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이탤릭체 = 가장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
2004년 Kim & Mutch p. 51

표에서 보듯 우리는 비전과 꿈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비전과 꿈은 현실과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요?

저는 뉴질랜드의 경우 교육자들이 시나리오 4(학습조직) 또는 저의 경우 시나리오 3(사회센터 역할)의 시나리오를 희망하지만 우리는 공립과 사립의 파트너쉽 형태 및 자율형 공립학교 즉 차터 스쿨의 개발에 초점을 둔 시나리오 2(시장모델)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2014년 어떠한 시나리오가 우세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참여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각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마다 여러분이 보기에 2014년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 시나리오 1: 관료주의적 학교
- 시나리오 2: 시장 모델
- 시나리오 3: 사회 센터
- 시나리오 4: 학습 조직
- 시나리오 5: 네트워크화된 사회
- 시나리오 6: 붕괴

현재 한국에서 우세한 시나리오는 어떤 형태입니까?

- 시나리오 1: 관료주의적 학교
- 시나리오 2: 시장 모델
- 시나리오 3: 사회 센터
- 시나리오 4: 학습 조직
- 시나리오 5: 네트워크화된 사회
- 시나리오 6: 붕괴

왜 우리는 바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알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느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이 교과서에 대한 오늘의 심포지엄과 미래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제가 교과서 및 미래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나올 만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과서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 만약 교과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 그럼 바람직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위의 각 질문에 대하여 언급한 후 뉴질랜드의 현재 상황을 이용하여 가능한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 교과서는 중요한 컨텐츠에 쉬운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 학습을 공고히 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실습과제를 제공합니다.
- 바쁜 교사를 돕습니다.
- 학습자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학습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 겹치는 내용과 반복을 차단합니다.
- 교실과 학교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 개정이 가능하며 시험준비를 돕습니다.

교과서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 교과서는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 학습자 수준을 동일한 그룹으로 간주합니다.
- 세상의 특정 관점을 제공합니다.
- 통일성을 강조하는 대신에 창의력, 대안적인 해석과 접근법을 차단합니다.
- 개념적 발달보다는 지식습득에 초점을 둡니다.
- 교사의 자율성 및 학습자 중심의 결정 사항에 제한을 둡니다.
- 지식이 업데이트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 상호작용보다는 정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약해집니다.
- 교사의 업무가 가중됩니다.
- 교사는 수업을 위한 자료, 실습, 진도, 평가를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와 교실의 통일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워집니다.
- 학생, 교사, 학교 및 시스템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교사는 컴퓨터 사용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합니다.
- 교사 및 신입교사 연수시 더욱 광범위한 교육자료를 통합, 평가, 접근하는 방법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사 및 필요사항에 더 많은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 교사는 최신의 업데이트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협업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며 질문 중심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 학습자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 학습자 개인은 각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도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분석, 종합, 평가 등이 교과과정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학생과 또는 학생 그룹이 다른 학습방법과 수업방법을 통해 중요한 개념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대학교에 자리 잡기 전에 오래 전 약 15년간 뉴질랜드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주로 8세에서 12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일부 과목에서 교과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수학과목 교과서를 사용했으며 교육부가 제공하는 자료, 도서관 책, 시리즈물, 교사가 제작한 레슨 플랜(제가 제작하거나 동료 교사가 제작한), 민간 출판물 그리고 폭넓은 분야에서 모은 아이템과 학습도구 등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 접근법은 학생 중심 또는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각자의 학습 필요, 강점, 그리고 흥미에 따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분류하고 또 재분류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저를 돕는 하나의 도구였지 제가 교육과정에 휘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는 연중 계획, 과목별 계획, 주간 일간 학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서로 아이디어와 교육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교육 컨텐츠와 활용가능한 교육자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 마다 쉽게 교육에 적용시켰습니다. 저의 지식을 교육과정 전반에 융합시켜 배우는 과정이 의미있고 또 오늘날의 현실에도 동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조차 저는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요구하였으며 학생들은 학습 성취도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들의 능력을 잘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취도 및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켰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외를 돌아보기 전까지 저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교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캐나다에서 교실 한 벽면에 각 과목에 해당되는 교과서를 진열한 것을 보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제가 충실히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각국의 서로 다른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관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무엇이 좋은 교수법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는 것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 체제의 책임성과 교사의 자율성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뉴질랜드 교육 체제가 이러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

사들이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바로 "그렇다" 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각자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

이제 교사의 책임성과 자율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의 교사는 수업에 사용되는 자료와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 교육의 역사, 교육과정의 성격과 평가, 교사의 수업 준비 그리고 교사의 교실에서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 뉴질랜드는 학생 중심 교육과 교육과정 설계에서의 진보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사가 수업 내용 및 교육에 있어 어떠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지에 대한 주요 결정권을 지닌 동반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리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교사가 사실상 교과서가 없는 분야에 추가 수업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에는 뉴질랜드가 영국 연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교들은 새로운 국가에 적합한 교과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왕과 여왕에 초점을 둔 역사 교과서와 뉴질랜드의 동식물이 언급되지도 않는 과학교과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체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 뉴질랜드 교육부는 뉴질랜드 스쿨 저널(New Zealand School Journals)이라는 일련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뉴질랜드의 비소설 분야, 연극, 소설, 시 등에 초점을 둔 저널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국내 출판물을 일제히 환영하였으며 교육과정 전반에 이러한 글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교육과정과 무관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정을 정확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각 지역의 환경과 학생들의 필요에 적합한 자료를 구성하여 교육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7년에 출간된 것으로 거의 10년의 기간에 걸친 설계와 자문과 수정을 반복한 결과물이며 교사들의 교직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사들은 한층 더 높은 목표와 학습 결과물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교과 컨텐츠의 지식을 축적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학습계획을 세워서 적합한 평가를 설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교사들만이 이러한 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의 교육부는 기획안과 관련자료, 교육과정의 예시물 그리고 웹사이트 링크 등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민간 회사들 역시 학습 자료와 교과서, DVD, 컴퓨터 게임 그리고 이외에 다른 자료들도 발간하였습니다. 학교, 교사 그룹, 그리고 각 교사들 역시 교육과정의 주제에 맞는 학습 과정을 개발하고 재활용 하며 이를 상호 공유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책임성과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제가 말씀 드릴 두번째 주제는 교육과정과 평가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은 세부적인 과목의 학습보다 고도의 원칙과 비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각 단계의 학습결과와 각 교육과정 분야를 명시하

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세부적 컨텐츠보다는 개념적인 일반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학습 자료의 선택과 해석 그리고 분류는 학교에 전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각 지역 공동체 및 교사와 이를 논의하고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을 폭넓은 지침 하에 스스로 설계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교육부 자료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2007년 p.37]

>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은 영어를 매개로 한 뉴질랜드 학교의 교육 및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구체적 계획이라기보다는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 지침의 의도를 명확히 반영해야 하지만 학교들은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폭넓은 사상, 자료, 그리고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학교들은 각자의 교육과정을 뉴질랜드 정부의 교육과정 원칙에 기반을 두어 각 학년의 학생들에게 가치를 개발하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교육과정은 영어, 예술, 보건, 물리, 수학, 통계, 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기술과목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정 문건은 비전, 원칙 그리고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학교의 중점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그 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청소년을 위한 비전은 아래와 같다:

-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리더쉽이 있는 인재;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지속가능한 뉴질랜드의 환경, 경제, 문화, 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
- 아오테아오라 뉴질랜드를 창조하기 위해 마오리족과 마오리족 이외의 파케아족이 상호 협력하고 기여하는 문화의 다양성의 가치 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
- 학교 재학 중에 만족스럽고 충만한 삶을 위한 가치, 지식 그리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하는 인재;
-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폭넓은 인관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배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교육부, 2007]

이러한 비전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학생들을 교육과 학습에 있어 중심에 놓고 학생들에게 도전의식과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상대를 포용하는 뉴질랜드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부, 2007]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a) 높은 기대치, (b) 와이탕기 조약(뉴질랜드 마오리 족의 권리를 명시한 조약) (c) 문화적 다양성 인정 (d) 포용력과 차별 금지 (e) 수동적 학습에서 벗어나 배우는 방법을 학습 (f) 교육과정의 의사결정에서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g) 학습 수준 이동 시 일관성 제공 (h) 미래 지향.

이러한 내용은 또한 일련의 가치와 더불어 학생들이 함양하도록 독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07, p. 10]

- 목표를 높게 잡고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심;
- 혁신, 의문, 호기심, 비판적, 창의적 사고 및 이를 반추해 보는 사고력;
-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역사적 유산을 포용하는 다양성;
-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통한 평등;
- 공동의 선을 위한 공동체 참여의식;
-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성 생태계 유지;
- 정직, 책임감, 윤리적 행동을 포함하는 청렴성과 인권 및 타인에 대한 존중.

교육과정 내용은 이러한 비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페이지 분량의 교육과정

분야의 목적을 제시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각 수준에 따라 제시된 일반적 학습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학은 숫자, 공간, 시간의 상호 연관성과 패턴의 활용 탐구 영역이다. 통계는 데이터의 상호 관계 및 패턴을 이용하는 탐구영역이다. 이러한 두 분야는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문제해결 및 사고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두 분야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연구, 해석,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는 수단이다. [p. 26]

사회과학은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비판적, 능동적으로 정보에 기반하여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분야의 맥락은 뉴질랜드 내 또는 이외 지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부터 도출된다. [p. 30]

학업 성취 목표 또한 동일하게 폭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수학의 1단계 목표의 예입니다. 저는 아래의 교육 지침을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첫 1, 2학년의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및 대수학	기하학과 측정	통계
숫자 지도 전략 · 숫자세기, 짝짓기, 공통 나누기 등 폭넓은 활용	**측정** · 길이, 넓이, 부피, 용량 무게(질량), 전환(각도), 온도, 시간에 따라 직접 대조하여 도형 및 사건 배열, 비교하기 또는 자연수를 단위별로 세기	**통계조사** · 통계 문제 해결 사이클을 통한 조사 실행 - 문제 제시 및 해결 - 범주 테이터 수집, 분류, 계량 하고 범주 데이터를 보여주기 - 결과 토론
숫자 지식 · 100까지 자연수를 앞으로 또는 뒤로 셀 수 있는 지식 · 5, 그리고 10이내의 짝짓기 그리고 10까지의 짝짓기	**모양** · 생김새에 따라 도형을 분류하기	**통계 해독** · 다른 사람이 작성한 통계 자료 및 가능성 조사를 해석하기
방정식과 표현 · 숫자세기, 짝짓기, 공통 나누기 등을 글, 숫자 그림 등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치와 중심** · 거리, 방향 180도 90도 회전에 따라 이동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따르거나 지시 내려 보기 · 도형의 위치를 사람 또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따라 묘사해 보기	**경우의 수** · 변수의 요소를 포함하는 상황 조사 및 예측가능한 결과 예측하기
패턴과 관계 · 다음 숫자를 대입하여 전체 묶음의 총 결과를 추론해내고 사물의 숫자로 총 묶음이 얼마인가 추론해내기 · 일련의 숫자 순서 패턴을 만들어 내기	**변형** · 단순 모양의 회전, 해석을 통해 내용을 기록하고 전달하기	

1,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취 결과 [교육부, 2007]

사회과학 학습 분야에는 심지어 이보다 덜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학생들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얻을 것이다.
- 사람에게 있어서 **조직**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 조직 속에서 각자의 참여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주어짐을 이해
- 과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 뉴질랜드와 같은 **장소**가 각 개인과 그룹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 뉴질랜드 사람들의 **문화**가 사람들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

1, 2 학년 사회과학 성취 결과 [교육부, 2007]

여러분이 보시듯이 교과서나 제공된 자료없이 개념적인 교육방법은 교사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교사들은 어떤 자료를 이용할지, 어떻게 가르칠지, 학생들을 어떻게 분류할지, 그리고 어떻게 각 학생의 차이와 필요요건을 수용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물론 반복과 겹치기 또는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계획을 따르긴 하지만 여전히 각 교사의 교실 내에서의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주요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가

교사들이 교재 및 교내 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권한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교육부는 평가 예시 또는 표준평가 시험 등을 뉴질랜드 교육 연구 위원회 (The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로부터 구하거나 또는 민간에서 제공되는 평가 자료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사들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체제 수립을 위해 학교들 간에 상호 평가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이러한 각 역량은 또한 폭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량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지만, 사고력은 가장 복잡하게 정의된 역량 중 하나입니다.

> 사람들은 이러한 역량을 이용하여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능동적 일원으로 기여하고 배우며,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 기술보다 더욱 복잡한 역량은 지식, 태도, 가치를 활용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역량은 모든 분야의 학습에 있어 핵심 소양이다. [교육부, 2007, p. 12]]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은

- 사고력
- 언어, 상징 문자 사용력
- 자기관리력
- 타인과의 관계 설정
- 참여와 기여도 입니다.

이러한 각 역량은 또한 폭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량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지만, 사고력은 가장 복잡하게 정의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사고력은 창의력, 비평력, 메타인지력(사고를 위한

사고력)을 사용하여 정보, 경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해력을 기르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결정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은 이러한 역량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역량 또는 문제 해결 역량을 보유한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발굴하고 이용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을 돌아보고, 개인 지식과 직관을 이용하며 기존의 인식과 가정의 근본에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부, 2007년 p. 12]

이러한 역량이 어떻게 교육과 배움에 통합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평가하는지는 역시 각 학교 및 교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계발

앞서 논의한대로, 기획, 자료개발 및 교실 내의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은 뉴질랜드 교육의 전통입니다. 신임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자율성이 교사 교육의 초기부터 시작됩니다. 뉴질랜드의 교육관련 전공 졸업자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 누구나 일반적 또는 특수화된 컨텐츠 지식, 교육 기술, 수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 연간 계획에서 교과 개요 등 모든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임 교사들은 교과서에서 웹사이트까지 가능한 한 폭넓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임교사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가르치게 됩니다.

교사들이 수행하게 될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 제자가 수행한 연구과제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Perreau, 2014]. 이 학생은 사회과학 분야의 교사이며 그녀는 교사가 고등학생들[고등학교 11, 12, 13학년]에게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찾고, 평가하고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후 , 그녀는 아래와 같이 자료를 분류할 경우 그녀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의 매개 수단은?
[종이 매체, 전자 매체, 복합 매체…]
자료의 종류는?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웹사이트…]
자료의 출처는?
[교육부, 전문기관, NGO, 민간회사…]
자료의 현황은?
[공공자료, 공식적으로 추천된 자료, 교사에 의해 추천된 자료, 교사가 작성한 자료…]

아래는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문서의 예입니다.

출처	기관/부처/회사	자료 종류 및 웹사이트 주소	발간 자료	자료현황
	교육부	http://nzcurriculum.tki.org.nz/	뉴질랜드 교육과정 사회과학에서의 효과적 교육	공식
		http://ssol.tki.org.nz	사회과학에 대한 개념적 이해 계발	

	교육부	http://seniorsecondary.tki.org.nz	고교 사회과학 교수 및 학습 [11학년, 13학년]	공식
		http://ncea.tki.org.nz	뉴질랜드 자격시험청 승인 평가 자료(레벨 1-3) 직업 진로 평가(레벨 1)	
	뉴질랜드 자격시험청	http://www.nzqa.govt.nz/qualifications-°©-standards/qualifications/ncea/subjects/social-°©-studies/levels	NCEA 평가 기준 NCEA 평가 세부사항(외부평가 시험) 내부 평가 수행 표준 예시 평가자 뉴스레터	
	청소년부	www.myd.govt.nz/	청소년의 소리 컨설팅 보고서 (2009-11) 청소년 참여 사례 및 DVD 청소년 참여 자료 및 링크	공식 추천 (NZC 자료 은행)
	내무부	http://education.citizenship.govt.nz/secondary/teachers/	시민 교육 링크 및 자료, 단위 계획(레벨 5: 10년)	
	문화부	http://www.nzhistory.net.nz/	역사 개요 초·중등 학생을 위한 역사 중심의 사회 과학 자료. NCEA 역사 자료	
		http://www.teara.govt.nz/en	뉴질랜드 사람, 자연, 환경, 역사, 문화, 사회 그리고 경제에 대한 백과사전	공식 추천 (사회과학 교육 지침)
	뉴질랜드 방송	Video files http://www.nzonscreen.com/		공식 추천 (NZC 자료 은행)

Personal communication, Perreau, 2014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녀는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4가지 범주와 질문 사항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분석을 하였습니다.

범주	자료에 대한 질문 사항
가용성	•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나? • 최신 자료 인가(최근 10년 이내에 발간된 자료인가?

접근성	• 자료에 대한 정보/내용/지식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 - 물리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예, 온라인, 도서관, 출판) - 언어 수준 - 시각자료 이용- 실례, 그림, 영상, 애니메이션, 도형,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게임
수용성	• 다양성이 있는가? 컨텐츠/지식은 문화, 성, 인종, 장애, 성별, 종교, 가치, 서로 다른 관점의 복잡성을 반영하는가? • 지식이 학습자의 가치와 경험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문화, 국가 단위 또는 다국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인정되는가? • 지역, 국가, 대륙(아시아/태평양), 전세계적 측면에서 그 맥락이 유효한가? • 성공적인 사회정의운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료가 사회정의를 실현가능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가? • 사회의 비평과 구조가 명백한가?(자유, 평등 의 이상과 현실 또는 불평 등 압제 사이의 갈등) • 민주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의 주요역할에 중점이 있는가?
적응성	• 자료가 내용면에서 유연성을 띠고 있는가? • 자료가 중요한 학습 결과 및 성취도 측면에서 일관되어 있는가? • 자료가 다른 문화 및 사회 환경에 적용 가능한가? 학습능력이 저조한 학생 또는 연장이 필요한 학생이 자료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Perreau, 2014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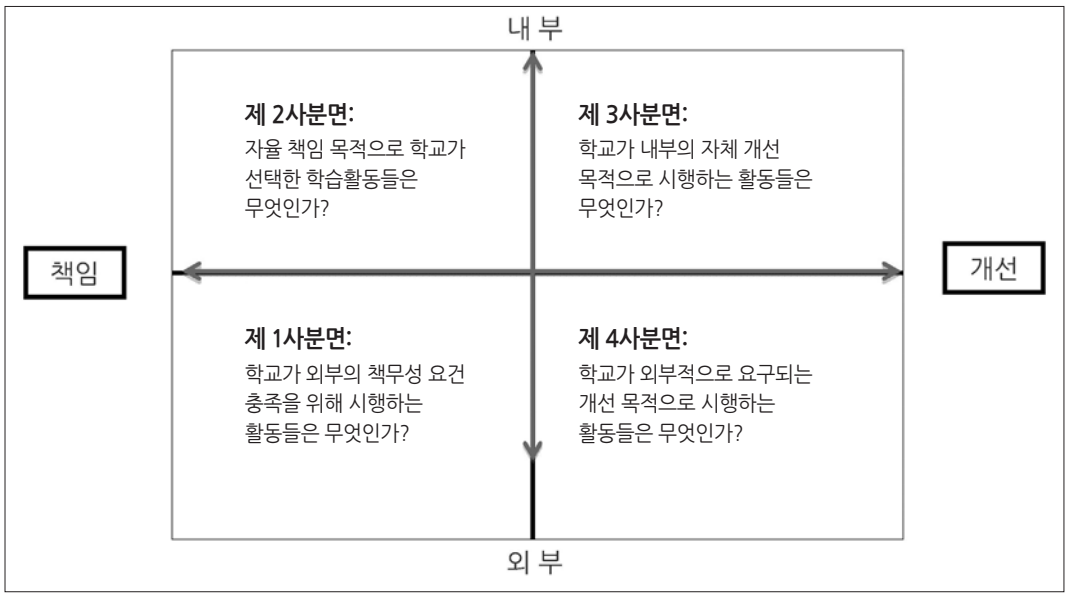
어떠한 자료가 그녀의 범주를 모두 충족시킬까요? Perreau 양은 약 20가지의 상이한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데 적합한 자료인 웹사이트, 문서, 소설, 비소설, 게임, 교과서, 평가예제, 교육과정 지침, 유튜브 비디오를 찾아낸 것입니다. 논문에서 그녀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유용한 자료인 학습 단위 계획, 평가 자료, 수업 아이디어 등은 고등학교 사회 과학 교사들의 모임인 페이스북 계정으로부터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선택과 교육과정의 결정 등 매우 중요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교사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 선택과 평가 모델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 관계자로부터의 높은 신뢰, 학교 측의 높은 책임, 교사로부터의 높은 동기 및 능력이 요구됩니다.

책무성

교사의 자율성은 이론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어떠한 책무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있어야 교사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자료를 선택하게 하고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끔 할까요?

제가 학자로 다시 돌아오기 3년 전, 저는 교육심사청(Education Review Office, ERO)에 책임 심사관 자문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학교의 책무성과 평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책무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아래의 표에 도식화하였습니다. 세로축은 책무성 담보 장치 실행이 학교의 외부에서 요구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요구되는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가로축은 책무성의 목표를 나타냅니다. 즉 책무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Mutch, 2014, p. 100.

실행되는 것인지 또는 학생, 교사, 학교의 전반적 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사분면: • 학생들의 성취 결과의 트렌드 및 양상 분석 • 학부모에게 보고 •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평가 테스트 실시 (PAT, NEMP, AsTLe)	**제 3사분면:** • 단위 학습 및 수업의 개인, 그룹, 반 전체의 결과 분석 • 자료 및 학습 활동 선정을 위한 사전 테스트 분석 • 학생들을 그룹으로 분류
제 1사분면: • 교육심사청(ERO) 심사 • 읽기, 쓰기, 수학능력의 국가 표준 성취도 (초등) • NCEA 시험(중등) • 연간 계획 수립 및 교육부 보고	**제 4사분면:** • 교사 평가 • 교사들의 능력 계발 트레이닝 • 교사들 간의 학생 평가에 대한 상호 협조 • 추가 조사 실시

위에서 보시듯, 교사들은 높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업 주제 선정, 자료(원하면 교과서도 포함), 학습 활동, 그리고 평가 등은 이후 다양한 책무성 지표(예를 들어 교육심사청 보고, 국가시행 학생성취도평가 또는 NCEA평가 - 교육성취도 국가인증시험 - 이것은 11, 12, 13학년의 대상 국가 시험임)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한 정당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또한 국제적인 성취도 평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PISA(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TIMSS(수학 · 과학

성취도 평가), PIRLS(국제 읽기 능력 평가) 시험 등에서 뉴질랜드 학생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 학생들에 비해 얼마나 성취도가 높은지 계측 가능합니다.

2012년 OECD는 뉴질랜드의 교육 평가 및 평가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연구 자 Nusche, Laveault, MacBeath, Santiago). 이 보고서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 교사, 학생,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높은 신뢰도,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신속 반응도, 정책과 실제 관행에 기반을 둔 헌신도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연구자들은 학교 평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들이 언급한 사항은 교사의 자율성과 체제의 책무성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의 학교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호 협조적이며, 학교 및 교육 당국자와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교의 자율 심사는 이러한 과정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심에 있다. 이것의 기본 전제는 학교가 각각의 독특한 환경을 가장 잘 분석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의 분석내용을 검증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외부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Nusche 외 공저, 2012, p. 89).

결 론

오늘 미래 지향적 교과서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발표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는데 이는 제가 교과서의 사용이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일부로 간주되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뉴질랜드는 교육과정이 일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다.
- 교육과정은 비전, 원칙, 가치, 핵심 역량과 학습 분야(과목)를 포함한다.
- 학습 분야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일반화된 이해로 개념적 용어를 사용하여 명시된다.
- 핵심역량은 학생들이 삶을 준비하고 학습 분야를 아우르는 이해, 구성, 스킬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 학교들은 학교 기반의 교육과정을 책임지도록 위임받고 있다.
- 교사들은 수업 내용, 자료 선정, 평가 실행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 교육 제도권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상당한 책무성과 자율성을 위임하고 있다.
- 반대로 교육 제도권은 고도의 내 외부적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 교육 제도권은 교육 분야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고도의 신뢰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 교과서가 없는 미래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전통적 교과서 없는 미래는 바람직할까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Kim,M.& Mutch, C. (2004). Schooling for the future survey: An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 (7) 512-522.
- Ministry of Education. (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Wellington, NZ: Learning Media.
- Mutch, C. (2012). Complementary evaluation: Th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to integrate external and internal evaluation. Policy Futures in Education 10(5), 569-586.

- Mutch, C. (2013).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school review. In M. Lai, M. & S. Kushner, (Eds.). A national developmental and negotiated approach to school and curriculum evaluation. Advances in program evaluation, Vol. 14, pp. 91-107. Emerald Publishing Limited.
- Nusche, D., Laveault, D., MacBeath, J., & Santiago, P. (2012). OECD reviews of evaluation and assessment in education: New Zealand. Paris: OECD.
- OECD/CERI (2001). What schools for the future? Paris: OECD.
- Perreau, M (2014). Resources for and about senior social studies: conceptions and disparit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2부 주제발표②

초등학교의 교과서 활용 사례

이 계 자
경기 구봉초등학교 교감

Ⅰ. 교재 재구성의 목적

교사들은 국가수준 성취기준을 도달하는데 가장 유익한 학습 자료인 교과서를 학년교육과정에 알맞게 재구성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일부 교사는 국·검정 교과서를 있는 그대로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빠짐없이 가르치기도 하고, 인정교과서를 소홀히 취급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검정 교과서 외에 다양한 인정교과서들이 다량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교실 수업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러 종류의 인정교과서가 학교로 보급될 때 마다 교사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검정 교과서를 지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교과서의 수가 너무 많아 가르치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각 학년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인정교과서 신청을 꺼려하기도 한다.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과서를 재조직화, 수정, 보완, 통합하는 등 교재의 재구성을 통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화로 수업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작업량이 너무 방대하여 혼자하기에는 벅차고, 경험이 부족한 교사일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이때 학년구성원이 다같이 교재 재구성의 의의와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교과서를 교실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 활용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실천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

본교에서는 지난해부터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동학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재의 재구성 작업을 실천해왔는데, 그 목적을 오로지 학생과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에 두었다. 이러한 일이 시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업무'가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소중한 권리'로 인식되자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열의를 보였다. 동학년 학습공동체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재구성한 교육내

용을 수업에 투입한 후, 실천한 사례와 결과를 전 직원이 모여 발표하며 토론도 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본교에서 실천하였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Ⅱ. 교재 재구성의 방향과 과정

1. 교재 재구성 방향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교사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연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은 '학습공동체의 날'로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일체의 회의와 학교 행사를 지양하고 정기적으로 '교재연구'에만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의 시간에도 동학년 학습공동체가 수시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회를 갖고 있다.

학생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 가급적 교실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학생들의 삶을 수업에 반영하고 학생 상호간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주제가 있는 통합수업으로 교재를 재구성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합 수업은 학생들에게 교과로 분절되지 않아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의 삶과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등으로 다양한 크기의 통합 수업으로 계획된다. 교과서는 분과형 교과서, 주제 교과서(1~2학년의 경우), 시도교육청 인정교과서 모두 분석하여 주제별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학년 학습공동체에서 주제가 있는 수업으로 교재를 재구성 하는 과정은 주로 4단계를 걸치고 있다.

2. 교재 재구성 과정

가. 1단계-교과 맵 그리기

1단계는 주제 선정을 위한 '교과 맵'을 아래 그림과 같이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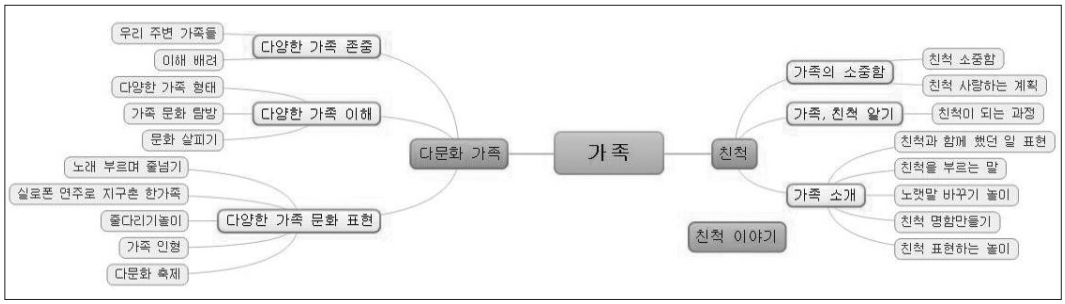
이 단계에서 교과서는 한 학기 전체분의 교과서 내용을 단원별로 대략적으로 살피고 핵심 활동이나 주제어를 찾는 데 활용된다. 국·검정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으로 '교과 맵'을 A4 한 장 크기로 그리면 한 학기 전체분의 교과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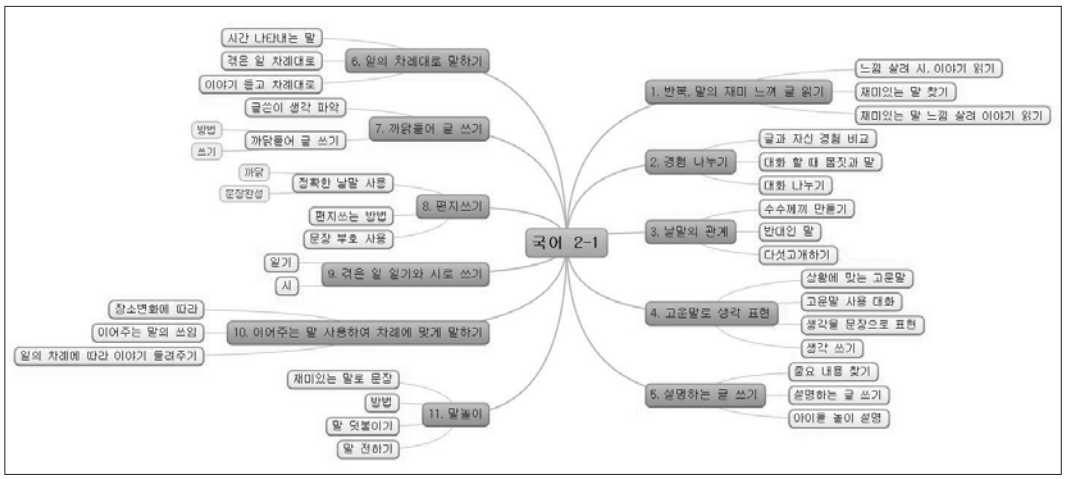
이 단계에서 작성한 '교과 맵'은 2단계 주제망을 그릴 때 활용된다. 이 단계를 생략하여 바로 2단계에서 교과용 도서를 앞뒤로 살펴가며 주제망을 그릴 수도 있지만 '교과 맵'을 그리면서 한 학기 분 교과서 내용을 통찰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과 맵'을 완성하고 나면 2단계에서 주제를 정하느라 교과용 도서를 전체적으로 방대하게 펼쳐놓으며 내용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

나. 2단계-주제망 그리기

2단계는 1단계에서 작성한 '교과 맵'을 살펴가며 주제를 정하고 주제망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과 맵'으로 나타내지 않은 인정교과서도 함께 살펴보고 주제 학습에 함께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인정교과서는 교과서 단원에 따라 심화·보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주제망 작성에 도움이 된다.

주제망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 2절지에 동학년 전체 교사가 참여하여 작성하고, 완성되고 난후에는 학년 연구실에 부착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주제를 정할 때에 유의할 점은 교과의 성취기준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가급적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등의 예체능 및 실습 교과도 함께 통합하며 성취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포함하여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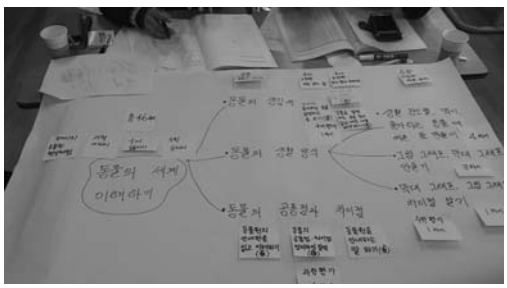
[그림 1] 1단계- 2학년 1학기 국어, 통합교과 교과 맵 예시

제망을 넓혀 나간다.

다. 3단계-공동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하기

3단계는 동학년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의 수업활동 중에 어떤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차시별로 교과서 활용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학습 자료로 활용



[그림 2] 2단계-통합 주제망 그리기(전지)의 예시

될 만한 내용이 많으므로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지도안을 짜는 것은 수업 혁신을 위한 목적이므로 학생들의 배움이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고민하여 작성하고, 각 학급의 실태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지도해야 한다. 또한 차시별 상세 계획이 아닌 모듈별 계획안으로 간략화하여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지도안 작성에 얽매여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음 그림은 동학년 공동지도안에 의한 '병원놀이' 수업으로 학생들이 교실별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학습을 하는 장면이다.

[그림 3] 3단계-동학년 공동수업 장면

라. 4단계-수업 사례 평가 및 공유하기

4단계는 3단계에서 작성한 공동 수업안을 바탕으로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에서 일반화 할 내용 및 수정 보완점을 찾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적은 '문서 교육과정'에서 '실천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업 혁신의 의지를 다지는데 있다.

[그림4) 4단계-학년교육과정 재구성 실천사례 발표

전년도의 경우 '3단계 공동 지도안 작성'까지 '문서 교육과정'에 잘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 각 학년에서 수업 후의 장단점을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함으로서 비로소 '실천되는 교육과정'으로 함께 공감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에서 설명한 1, 2, 3단계에서 조차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례 발표는 교육과정이 교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교육과정으로 실천 될 수 있도록 하고 학년(군)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직원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배우며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단계적 방법은 재구성에 대한 규격화, 형식화로 우려되기도 하지만 교재의 재구성을 해본 경험이 없어 재구성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에게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매뉴얼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경우이다.

본교 교사들은 이러한 단계적 재구성 방법에 따라서 교재를 재구성해보고, 학생의 특성 및 환경여건에 알맞은 재구성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본교에서 교재의 재구성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옮겼을 때 해당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는 '학년 교육과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Ⅲ. 교재 재구성 사례

【1학년】

1. 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원의 학습 주제와 목표가 되는 활동 주제와 성취기준까지만 제시하고, 각 주제의 성취 기준에 적절한 내용 요소 및 활동은 교과서 및 교수·학습 차원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교 1학년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국어과와 수학과의 교과 지식 면에서 이미 선행 학습이 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단일 교과서 위주의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구성의 방향을 통합교과서 주제 중심으로 국어, 수학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함께 도달되고 심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어, 수학과의 교과적 지식이 주제통합 활동 중에 알게 되는 실제적 지식으로서 변환되면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생들의 과업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주제에 따라 재구성을 할 경우 시도교육청 발행 '인정 교과서'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다.

2. 주제통합 재구성의 유의점

일반적으로 교재의 재구성을 위해 '주제통합'을 시도하는 경우 단원별로 통합을 하거나 교과별로 한 단원의 일부 차시만을 가져와서 통합을 하기도 한다. 가령 한 단원에서 일부 차시는 주제통합 차시로, 일부 차시는 통합되지 않아 단일 교과별 지도 차시로 남아있는 경우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해당 단원을 지도하다가 주제 통합된 차시의 내용을 중복 지도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단원 학습' 안내를 할 때도 몇 개의 차시가 드문드문 빠진 것이 불편할 수 있다.

1학년은 통합교과서의 개발로 단원별 통합이 쉬운 편이라 차시별 통합을 지양하고 가급적 단원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편리하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도 해당 단원 전체가 통합되어 학습한다는 안내가 쉽고, 교사가 단일 교과를 지도할 때도 주제통합된 단원 전체 지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주제와 밀접한 차시는 주제통합 수업 활동에 포함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활동은 주제통합 전체수업의 뒷부분 차시에 편성하면 운영하기가 쉽다.

3. 재구성의 실제

가. 재구성의 필요성

이미 학생들에게 익숙한 '가족'이라는 주제의 식상함에서 벗어나 통합교과서 및 여러 교과서를 통합하여 '하하 호호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가족의 역할, 집안일 돕기 등은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가족의 역할과 소중함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탐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을 주제로 실시되는 주제통합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급 내에서 직접 '가상가족'을 구성하여 약 3주 동안 체험중심의 활동으로 학생 스스로 가족에 대하여 무엇인가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가족'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통합학습은 그림그리기, 노래하기, 가족 놀이, 역할극 활동, 글쓰기, 말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가상가족' 과 함께 다양한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는 동안 저절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 상호간 이해와 협동하는 마음을 기른다. 또한 학생들에게 배움과 실생활을 연결시켜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한 학습 후에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 재구성 단원 및 차시

학년	통합 주제	운영기간 (총시수)	교과·영역	관련 단원	교과서 쪽 (시수배당)	비고
1	하하호호! 행복한 우리 가족	5.22~6.13 (총36차시)	국어	4. 기분을 말해요	75~105 (8)	단원통합
			통합교과	가족1. 우리가족	18~47 (23)	단원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6. 신문에서 찾아요	56~59 (2)	인정교과서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1. 우리 가족	32~36 (3)	인정교과서 (진로와 직업)

다. 교과서 단원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년	교과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1 학년		**<국어> 4. 기분을 말해요** **(듣기 말하기)**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바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귀 기울여 듣고 말하며,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듣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 듣는 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통합교과> 1. 우리가족 **(바른생활)** 우리 집의 규칙을 소개하면서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본다. **(슬기로운 생활)** 집에서 하는 일의 종류를 알아보고 가족들의 의견을 조사해 봄으로써, 집안일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인다. **(즐거운 생활)**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한다.
		<창의적체험활동> 6. 신문에서 찾아요 - 신문 활용의 필요성을 안다. - 우리 가족 소개 자료에 신문의 그림을 활용한다. - 우리 가족의 이름 글자를 신문에서 오려 붙여 완성한다. - 신문 활용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진로와 직업> 1. 우리가족 - 우리 가족을 소개한다. - 우리 집에서 내 역할을 이야기한다. -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 내주변 사람들의 직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

라. 주제통합을 위한 교과서 재구성 내용

단계 (시수)	교과서 활용		통합 활동
주제 만나기 (2)	▲ 통합교과 8~9쪽, 16~17쪽	▲ 참고도서 (학급윤독도서)	- 우리 가족 이야기 하기 - 가족관련 동화책 읽기 - 동화책 '가족' 읽고 이야기 나누기 - 가족과 관련되어 더 알고 싶은 내용 말하기 -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알아보기 - 우리 가족의 말에 귀기울여 듣는 방법 알아보기 - 학습게시판 만들기
주제 학습 하기 (29)	▲ 창의적 체험활동 56~59쪽	▲ 통합교과 18~47쪽	- 우리반 친구들에게 가족 소개하기(신문이나 사진 자료 활용하여 꾸미기) - 우리가족 행사표 만들기 -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알고 참여하기 - 가족과 함께 식사시간, 생일파티 체험하기 - 청소 순서와 역할 정하고 가족 청소 시간 체험하기
	▲ 국어 78~105쪽	▲ 진로와 직업 32~36쪽	- 가족 간에 기분을 나타내는 말 사용하여 가족에게 자신의 기분을 자신있게 말하기 - 친구와 함께 가족놀이 하면서 기분 표현하기 - 소중한 가족 역할극 소품 만들기 및 꾸미기 - 가족 칭찬릴레이 이어가기 -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카드 꾸미기
주제 학습 마무리 하기 (5)	▲ 결과물 전시회		- 가족 놀이 체험 소감문 작성하기 - 우리 (가상)가족 체험 신문 완성하기 - 가족 신문 전시회 - '가족' 수업을 마치며 소감 발표회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4.'주제통합'재구성 수업 후 학생 소감

- 가족놀이 하려고 가짜로 가족을 만들었는데 가족처럼 힘을 합쳐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했더니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1학년 3반 권○○)
- 학교에서 가족을 만들어 집안일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니까 신기했다. 친구들과도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1학년 1반 박○○)
- 나는 엄마 역할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집안일도 하고 우리를 돌보느라 힘드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부모님께 말대꾸 하지 말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 잘 할거다 (1학년 1반 김○○)
- 나는 12살 형을 했는데 동생 2명을 챙기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우리 진짜 형한테 대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 4반 김○○)
- 가족끼리 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았다. 급식실에서도 진짜 가족처럼 예의바르게 먹었고 서로 친절하게 맛있게 먹으라고 말했다. 우리 아빠도 매일 밖에서 밥먹지 말고 집에서 다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1학년 6반 이○○)

5. 교사 협의회 평가 및 환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제통합 수업효과	• 동학년 협력수업 형태로 운영되어 각 교사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반복하여 지도하게 됨으로써 학생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음. • 저학년 특성상 집중시간이 짧은데 이 수업은 수업기간 내내 과업집중도가 매우 높았음. • 학습자료 활용면에서 넥타이, 앞치마, 할아버지 모자 등 실물자료 활용이 효과적이었고, 주제가 같은 다양한 교과서 활용으로 별다른 학습지 제작이 필요 없었음 • 통합수업 기간 동안 '가상가족'과 지내면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어 내면화에 효과적임
개선 및 환류 방안	• 교사들이 수업 결과물을 방과 후에 별도로 전시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 교사들은 전시 공간만 제공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전시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에서 '교과서 암기식' 예습을 지양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주제통합 수업'을 공개하여 학교에서 교과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듯함.
소감	• 통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해당교과 교육과정도 여러 번 읽으며 교재연구 시간을 충분히 하여 수업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학년부장 위○○) • 1학년 아이들과 수업할 때 잔소리 반, 수업 반이었는데 이 수업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교사경력 3년 김○○) • '통합교과서'를 중심으로 또 다시 주제통합을 한다는 것에 반대 했었는데 하고보니 왜 하는지 알게 되었다. (교사경력 36년 강○○)

【3학년】

1. 'STEAM'중심의 교과 통합

3학년에서는 주로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인문학이나 예술 등 타 분야를 연계 또는 융합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재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STEAM' 교육과정의 기준은 S,T,E,A,M 중 반드시 2개 이상의 교과 혹은 요소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STEAM' 학습준거인 과학적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등을 포함하여 신나는 과학 활동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재구성한다.

2.'STEAM'통합 요소 분석

융합인재교육(STEAM)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학생이 학습내용과 활동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두개 과목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과 같은 여러 학문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활용하게 된다.

가. 문제 상황제시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나비와 같은 동물은 어떻게 나비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나비였을까? 아니면 다른 동물이었을까?' 등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배추흰나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한 살이를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한다.

나. 창의적 설계

'배추흰나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

야 할까?', '알을 관찰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을 관찰하여야 할까?', 또 '알이 부화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등 모둠별로 한 살이 관찰 계획을 세워 보게 하고, 계획에 따라 관찰을 실행한다. 또한 관찰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지 생각하여 본다(그림 또는 글씨 등).

다. 감성적 체험

다른 모둠과 관찰 결과를 비교하여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하여 보게 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하여 보게 한다. 미술과의 5. '관찰과 표현'과 연계하여 곤충의 모습을 표현하여 보게 할 수 있다. 같은 주제의 책을 도서관 등에서 찾아 읽고 새로 알게 된 점이나 재미있는 점을 '국어활동' 교과서 181~182쪽을 활용하여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책을 만든다. 모둠 친구들이 만든 각각의 피라미드 책을 연결하여 모둠 피라미드 책으로 만들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구성의 실제

가. 교과서 재구성의 필요성

3학년 학생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곤충 중 배추흰나비의 한살이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알에서 배추흰나비가 될 때까지'라는 내용으로 STEAM학습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복합적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배추흰나비의 알→애벌레→번데기→성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배추흰나비 한살이 과정의 신비로움과 함께 국어과에서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재미있는 부분을 써서 소집단별로 '피라미드책'으로 만들고, 미술과에서는 곤충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여 찰흙으로 표현하기, 수학과에서는 배추흰나비의 변화 과정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여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STEAM'을 바탕으로 한 융합학습의 핵심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교과서 STEAM 재구성 단원 및 차시

학년	통합 주제	운영기간 (총시수)	교과	관련 단원(차시)	교과서 쪽 (시수배당)	비고
3	배추 흰나비의 한살이	5.21~6.26 (총14차시)	과학	3-1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91~101 (6)	단원통합
			국어	7. 아는 것을 떠올리며	182~189 (2)	차시통합
			미술	7-1 손끝으로 빚어서	62~65 (4)	단원통합
			수학	5. 시간과 길이	158~159 (2)	차시통합

다. 교과서 단원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년	교과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3 학년		**<과학> 3. (1) 배추 흰나비의 한살이** - 관찰 가능한 곤충을 선택하여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워 기르며 관찰한다. - 곤충을 길러 동물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번식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한다. - 곤충의 종류에 따라 한 살이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는 등 동물에 따라 한 살이가 다름을 안다.
		<국어> 7. 아는 것을 떠올리며 - 읽기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을 읽는다. 재미있거나 - 감동적인 부분에 유의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국어 활동' 내용> - 자신의 경험과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피라미드책으로 효율적으로 제시한다. (교과서 자료 활용) - 모둠 피라미드책 만들기의 과정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미술> 7-1 손끝으로 빚어서 (주제표현) 관찰, 경험, 상상 등의 방법으로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표현방법) 표현 활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를 알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익힌다. (조형요소와 원리)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수학> 5. 시간과 길이 초 단위까지의 시간의 덧셈을 할 수 있다. (성취수준) 상 -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있는 초 단위까지의 시간의 덧셈, 뺄셈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 -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있는 초 단위까지의 시간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하 -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없는 초 단위까지의 시간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라. ‘STEAM’통합을 위한 교과서 재구성 내용

구분	교과서 활용	STEAM 활동
S		• 배추흰나비의 한 살이 과정 알아보기 - 모둠별 토의 토론하기 예)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나비와 같은 동물은 어떻게 나비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나비였을까? 등 • 배추흰나비 관찰 계획 세우기 • 각 변화 과정의 특징 살펴보기 •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잠자리’의 한 살이 과정 알기
T/E		• 배추흰나비 관찰 보고서 작성하여 모둠별 발표하기 - 친구들과 계획을 세워 한 살이 과정을 관찰하여 효과적으로 보고서 쓰기 책의 내용과 경험을 관련지어 곤충의 한 살이에 대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 재미있는 부분을 써서 연결한 모둠 피라미드책 만들기
A		• 곤충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여 찰흙으로 표현하기 - 찰흙의 성질을 여러 가지로 탐색하기 - 곤충으로 생김새를 관찰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스케치하고 찰흙으로 만들기(환조, 부조) • 곤충의 변화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한 ‘애벌레송’, ‘번데기송’ 등을 함께 불러보기 음악에 맞춰 배추흰나비의 한 살이 과정을 움직임으로 표현 하기
M		• 배추흰나비의 변화 과정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여 시간의 합과 차 구하기 - 시, 분, 초 단위 시간의 덧셈 방법 알기 - 분, 초 단위 시간의 뺄셈 방법 알기 • 각 변화를 거칠 때마다의 시간 기록하기 - 어느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지 알아내기 • 시간의 합과 차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1일=24시간, 1시간=60분임을 인지하고 수학적 문제해결의 성취감 느끼기

4. 'STEAM' 통합 수업 후 학생 소감

- 알에서 애벌레가 나온 후 새로운 잎으로 갈아줄 때에는 애벌레 주변의 잎을 가위로 잘라 잎과 애벌레를 함께 새로운 잎으로 옮겨 줬는데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 키울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느낌일 것 같았다. (3학년 3반 최○○)
- 알 껍질을 뚫고 나온 뒤 애벌레가 자신의 알 껍질을 갉아먹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다. 그게 영양을 보충한다고 하니까 곤충도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람이라고 잘난체 하면서 곤충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3학년 1반 김○○)
- 나는 수학 계산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인데 배추흰나비 한 살이로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은 너무 재밌었다. 수학공부 안하고 노는 것 같았다. (3학년 7반 오○○)
- 나는 찰흙으로 배추흰나비의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의 모습 표현하기가 제일 즐거웠다.(3학년 5반 김○○)
- 배추흰나비의 한 살이 과정을 생각하며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데 친구가 애벌레처럼 몸을 움직여서 ○○가 원래부터 뼈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웃었다. (3학년 6반 정○○)

5. 교사 협의회 평가 및 환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STEAM 융합수업효과	• 과학, 수학교과에 찰흙으로 표현하기, 음악에 맞추어 나비의 움직임 표현하기가 통합되어 과학,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도 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참여 하였음. • 교과를 통합하지 않은 단원 평가와 통합 단원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통합 단원의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답안의 질이 매우 높았음. • 동학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한 공동지도안 작성으로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
개선 및 환류 방안	• 배추흰나비가 제대로 부화하지 못한 모둠인 경우 융합되었던 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런 경우에 수학과는 별도의 보충지도가 이루어져야하고 미술 등의 표현 교과 학습도 제대로 안되므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수학과는 차시 통합이었는데 통합되지 않았던 나머지 차시가 문제가 되어 수학과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경향이 있었다. 수학과의 경우 단원통합으로 하고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은 통합 수업차시의 뒷부분으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소감	• 장기간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관찰 자료 등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과물 관리에도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교사경력2년 김○○) • 지난해에는 통합하지 않고 지도를 해봤고 올해 통합해서 지도해봤는데 학생들의 학습의욕뿐만 아니라 학업성취결과도 좋아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지도 하고자 한다. (학년부장 김○○) • 솔직히 고백하면 작년에 나는 이 단원 지도에 실패하여 동영상으로 지도한 부분이 많다. 올해 동학년이 함께 연구를 해가면서 제대로 잘 지도하게 되어 마음도 편하고 기쁘다. (교사경력12년 조○○)

【5학년】

1. 프로젝트 교과 통합

5학년에서는 주로 국어, 사회, 도덕 교과가 함께 통합하기가 수월하지만 학생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미술, 음악, 체육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정교과서를 활용하여 생활 사태와 일치되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5학년에서는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하여 상호 조정적 교육과정(negotiated curriculum)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교사가 미리 재구성하여 잠정적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지만,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이 토론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의 흥미, 욕구, 적성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교육내용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2.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숙박형 수학여행이 전면 금지되어 5학년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의 아우성이 높았다.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받아 들여 대체 여행으로 '천년 고도의 숨결 탐방'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주 박물관이나 여행지에서 조사하고 탐구해야 할 내용을 교실 안의 프로젝트로 재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5학년 7개 학급 교실 모두가 각각의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수학여행을 대체하여 충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프로젝트 수업 기간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맡은 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조사하고, 함께 토론한 결과를 게시하고, 실제 여행처럼 모둠끼리 각 학급을 순회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5학년 전담 교과인 영어과도 함께 통합하여 영어 담당교사도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 하도록 한다.

3. 재구성의 실제

가. 교과서 재구성의 필요성

5학년은 사회 교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이며, 특히 신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지나 박물관 등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재구성한다. 사회과를 중심으로 미술과의 작품 감상 및 체험, 인정교과서 '어린이 예술'에서는 박물관 활용 및 전시회 방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에서는 정보 활용 방안을 함께 통합하여 재구성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요즘 강조되고 있는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기 위한 각종 수칙을 숙지하여 실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상 체험으로 안전 한 생활을 실천해 보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는 사회와 미술 교과서에서 다루는 역사 현장과 문화재를 직접 답사하고 익혀 견문을 넓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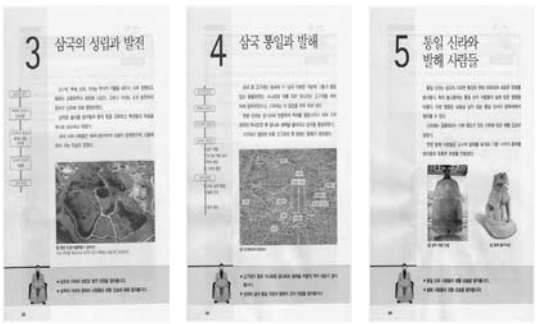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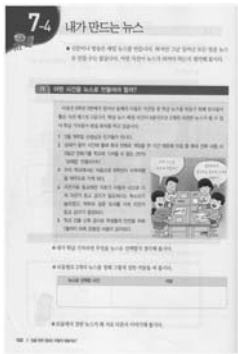
나. 교과서 재구성 단원 및 차시

학년	통합 주제	운영기간 (총시수)	교과·영역	관련 단원	교과서 쪽 (시간배당)	비고
5학년	천년 고도의 숨결 탐방	5.19~5.23 (총29차시)	사회	1. 하나된 겨레 1-3. 삼국의 성립과 발전 1-4. 삼국 통일과 발해 1-5. 통일 신라와 발해 사람들	26~52(11)	소단원 통합
			미술	8. 미술 문화 체험	68~70(6)	단원통합
			영어	11. May I have a fork?	134~135(6)	영어 전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3-1. 조상의 숨결을 느끼는 여행	56~59(2)	인정교과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민교육	7. 믿을 만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까요?	32~36(2)	인정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문화 예술 교육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술	32~35(2)	인정교과서 (어린이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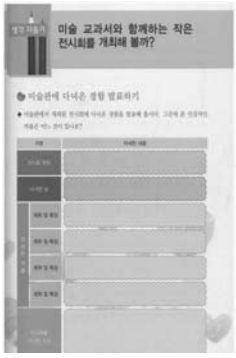
다. 교과서 단원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년	교과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5 학년		**<사회> 1. 하나된 겨레** - 역사지도와 인물이야기를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을 파악한다. - 선덕여왕, 김춘추,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 대조영 등을 중심으로 삼국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건국을 이해한다. - 유물과 유적을 통해 삼국, 통일 신라와 발해 시기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한다.
		<미술> 8. 미술문화 체험 -우리는 박물관 탐험대 -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낸다. -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한다. - 미술 비평 활동의 과정과 방법을 익힌다.
		<영어> 11. May I have a fork? - 실물이나 그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 쉽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게 묻고 답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말한다. - 단순한 그림이나 상황을 보고 순서에 맞게 간단히 말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3. 1 조상의 숨결을 느끼는 여행 - 각종행사, 창의적 특색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동아리 활동에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협동적 학습 능력과 창의적 태도를 기른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7. 믿을만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까요? - 생활 속에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알고, 비판적 시각으로 미디어를 바라본다. - 생각을 바꾸는 미디어, 미디어 제대로 쓰기에 대하여 이해한다.
		어린이 예술 1.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술 - 예술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와 다양성을 인식하며 미적 관조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른다. - 예술작품에 대한 충분한 탐구와 체험활동을 통해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창의지성 역량을 증진한다. - 예술적 정신과 예술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미적 체험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예술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라. 프로젝트를 위한 교과서 재구성

단계	교과서 활용		주요 활동	시수배당
주제발현	 ▲ 사회 6~9쪽	 ▲ 창의적 체험활동 58~59쪽	- 박물관이나 유적지에 가보았던 경험 발표하기 -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살펴보기 -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협의하기 - 학습계획 세우기	2
주제표상	 ▲ 사회 26~52쪽		- 정보 활용 방법 알아보기 - 삼국과 가야의 건국 이야기 살펴보기 - 삼국과 가야의 성장과정에 대해 살펴보기 - 역사 자료 및 다양한 사례 탐구하기 - 삼국과 가야의 문화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기 -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알아보기 - 신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 통일 신라와 불교 문화재 뉴스로 제작하기 - 안전한 체험학습 알아보기	13
	 ▲ 창의적 체험활동 60~61쪽	 ▲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100~102쪽		

라. 프로젝트를 위한 교과서 재구성

단계	교과서 활용		주요 활용	시수배당
상징화	 ▲ 영어 134~135쪽	 ▲ 미술 68~70쪽	- 첨성대 탁본 만들기 -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그리기 - 석굴암, 본존불 조각 맞추기, 천마도 그리기 - 신라유물 종이 모형 제작, 황룡사 9층 석탑, 성덕대왕 신종 판화로 만들기 - 포석정 만들기, 주렴구 놀이하기 - 경주빵 소개하기 (English Zone)	10
내면화	 ▲ 어린이 예술 32~35쪽		- 체험학습시 지켜야 할 예절 자기 평가 하기 - 박물관 체험 후 느낀 점 발표하기 -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전시회 계획하고 전시하기	4

4.'프로젝트'통합 수업 후 학생 소감

- 5학년 1반에서 첨성대 탁본 체험하기를 했다. 1반 아이들이 모두 준비해 놓은 먹물이랑 탁본 준비물 덕분에 정말 편하게 체험 했다. 1반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5학년 3반 김○○)
- 우리 반에서는 석굴암 자료 조사와 본존불 조각 맞추기가 있었는데 사전에 조사하고 그걸 자료로 만들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반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조사해 놓은 내용을 읽고 메모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다 (5학년 3반 이○○)
- 5학년 2반 친구들이 조사해 놓은 불국사를 모두 공부하고 우리 모둠 친구들이 커다랗게 걸려있는 불국사 포토존 앞에서 우리 모둠끼리 휴대폰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진짜 불국사 보다 더 멋있게 나온 것 같다. (5학년 6반 황○○)
- English Zone에서 경주빵 소개하기를 배우고 영어로 말했다. ' May I have a 경주빵' 과 간단한 영어 대화를 해야 그 경주빵과 찰보리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라면 항상 자신이 없는 나도 즐겁게 참여했다 (5학년 7반 김○○)
- 5학년 7반에서 주렴구 놀이와 포석정 만들기가 있었는데 체험하는 시간을 지키지 않아 좀 밀렸다. 재미있는 공부만 골라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친구들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 (5학년 1반 이○○)

5. 교사 협의회 평가 및 환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프로젝트 통합 수업효과	• 개별 조사학습 과제는 인터넷 내용을 그대로 베껴 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실시된 프로젝트 학급별 조사 과제는 함께 토의·토론된 내용을 다른 반 친구들이 알기 쉽게 정리· 요약하여 전시함으로써 보고서 작성법을 익히게 됨. •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 다양한 체험활동 및 놀이, 스마트 폰을 활용한 기념 사 진 촬영 등 주제학습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학습 의욕이 매우 높았음 • 논술평 지필평가 결과 프로젝트 수업 외의 단원보다 학생 답안의 질이 우수하였음.
개선 및 환류 방안	• 문화재 만들기 활동에서 6개의 모형을 각 모형 당 20분으로 제한하다 보니, 난이 도가 어려운 모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시간이 부족하였으므로 모형 완성 개수를 수행평가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이 프로젝트 수업은 체험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수업이었는데 확보된 예산이 부 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음. 학습준비물 구입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재구성된 교육과정계획안을 확인하고 세우도록 함. • 체험의 날에는 7개 교실 모두에서 학습이나 체험이 이루어져 아이들이 몹시 바쁘게 움직여야 했음. 어느 한 학급에서는 삼국시대 문화재에 대한 다큐 영상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감	• 경주빵 체험하기에서 함께 먹을 물을 찾는데 좀 난감하였다. 예상되는 학생들의 행동까지 생각해서 수업준비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영어교사 김○○) • 우리 교실에서는 판화나 탁본 체험이 이루어졌는데 탁본의 경우 목공풀이 물에 닿으면 녹아 내려 밑본의 양이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 했었다. 사전에 교사가 먼저 체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년부장 심○)

Ⅳ. 교재 재구성의 의미와 보람

지금까지 본교에서 2014학년도 1학기에 실제로 운영되었던 교재 재구성 사례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동학년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그 고민이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었다. 수업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교재의 재구성으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평가 문항 개발로도 연결 되었다.

수업이 바뀌면 평가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동안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과 무관한 수업, 수업과 상관없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교에서 실천해 온 일련의 과정들은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본교 교사들이 시도했던 인정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재의 재구성 사례는 철저한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짜여진 것이라 보기에는 다소 서툴고 허술한 부분도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적, 자발적인 학교 문화가 교육개선과 혁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교의 사례를 조심스럽게 소개 해본다.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2부 주제발표③

교육과정 중심의 중학교 교과서 활용 사례

최 진 아
성당중학교 교사

Ⅰ. 교사 일기

교사 일기 1

어느 날 문득 수업을 진행하다 고개를 들었다.
교과서 속에 얼굴을 파묻은 학생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내용은 딱딱하고 많은 짐처럼 보였다.

교사 일기 2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왜일까?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교과서만 잘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될 텐데.

교사 일기 3

교무실 선생님들의 하루가 부산하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할 일이 쌓인다.

교사 일기 4

꼭 필요한 것만 잘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생들이 배우는 데 힘겹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학생들이 스스로와 우리 모두의 삶을 성장시키도록 하는 것이 '배움'임을 깨닫게 할 수는 없을까?

위에 소개된 교사 일기는 우리 교사들의 고민과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 학생들은 교과서 공부에서 행복한 '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2) 교육과정이 바뀌지만 교사들은 그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과서에 의지하며, 3) 교과서가 가

르칠 거리를 모두 제공해주는 것 같지만 교사는 여전히 바쁘다고 느끼며, 4)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얻기 힘들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들이 그동안 무관심했던 교육과정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읽고 실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과정, 교육과정을 활용하면서 나타나게 된 변화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위한 교과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전통(傳統): 교과서 중심의 학교 수업

1. 공고한 전통

전통적으로 한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수업과 평가의 중심이자 기본은 교과서였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교사는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읽고, 풀이하면서 소위 훈고(訓誥) 주석(註釋) 강의식으로 '진도'를 나간다. 또 교과서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교과서에 철저히 바탕을 두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나 학습활동의 방식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기보다는, 교과서 내용을 잘 조직하고, 쉽게 설명하여 전달하고, 전달한 내용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꼼꼼하게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교육계 안팎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애를 써 왔다.

물론 교과서 중심 수업과 평가도 역사적, 지역적, 학교급별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2014년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지금은 10여 년 전보다 교과서에 매인 정도가 덜하고, 20여 년 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 20여 년 전에는 교과서 이외의 수업 자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배워야 했으며, 교과서의 내용만 평가의 범위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교과서 밖의 자료 사용이 늘어나고, 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 보완하기도 하며,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도 시험에 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적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 서울, 경기 지역처럼 사회·정치·경제·문화의 변화에 민감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공무원, 교육학자, 기업인들이 많을 경우에 강의나 회의에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인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과서 정책의 변화, 교과서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폭이 다를 수 있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전국 단위의 교사 연수나 모임에 참석해 보면 교과서에 대한 인식에 지역적인 편차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학교급별로도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1] 중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한다. 단일 종류의 국정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한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과서 사용 방식에 있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학입시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학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자

1) 초등학교 과정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과목은 실과, 음악, 미술, 체육과 영어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http://www.textbook.ac) 제공, 2012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주문 목록(검정교과서) 참조.

유로운 초등학교 교사들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요컨대 한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전통적으로 수업과 평가의 중심이자 기본은 교과서이지만 시기적, 지역적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학교급간의 차이도 있다.

이런 '교육 방식', 즉 교과서 중심 수업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가? 지금은 교과서 중심의 방식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방식은 공적으로 타당성을 부여 받은 일반적,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국가가 직접 만들거나 국가가 검정 혹은 인정한 교과서는 공교육 체제에서 확고한 교육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굳이 읽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없었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평가받은 교과서를 오류 없이 잘 가르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교과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교과서에 바탕을 둔 평가, 문제 출제 방식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인식해 왔다.

2. 전통에 대한 성찰

이러한 전통은 매우 단단하게 굳어져서 좀처럼 변화될 것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인 교육부,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량 생산 체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인재를 교과서 중심 수업으로도 충분히 길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던 199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창의 인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면서,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과 평가가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로 가시화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총론 해설 15-22 참조), 광복 후 시작된 공교육 체제에서 50년이 넘게 공고하게 자리를 잡은 교과서 중심 수업 · 평가 방식이 최근에는 교사들의 자성과 성찰을 통해 내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균열이 모든 측면에서 다 긍정적인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교과서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방식은 학습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계 외부의 교육과정 개정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사들의 지지가 없이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한 방식은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즉 2000년대 이후 교육과정의 개정이 거듭 이어졌지만 교사들 중심의 현장의 변화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요인은 바로 달라진 '학생'이다. 그리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가'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지고, 학부모들의 요구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사의 자존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예전에는 학생의 만족과 행복은 잠시 유보해 두어도 좋은 가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사의 보람과 학생의 행복이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중학교에서 이런 변화에 불을 붙인 것은 2012년부터 시작된 '성취평가제'이다(교육과학기술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2011.12.13.)). 학교 상황에 적절한 성취수준을 정하고, 여기에 근거해 평가하는 절대평가 체제로의 변화는 '교육과정'을 수업과 평가의 중심에 두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킨 동인(動因)이 되었다. 학생들을 상대적인 서열 매기기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

아도 되는 성취평가제의 도입은 교실의 모습을 많은 부분에서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동점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수고를 덜었고, 누가 잘 하고 누가 못 하는가를 판별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수업의 목표에 모든 학습자들이 도달하는 데 힘을 쏟게 되었다.

더불어 '성취평가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존재를 부각시켜 주었다. 성취평가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학생의 도달 정도를에 비추어 학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과정과 교수 · 학습, 평가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도록 제어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은 해당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기 이전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제도의 시행 초기이므로, 모든 교사들이 성취평가제의 도입 취지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성취평가제의 정착을 위해 모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연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사에 대한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서비스가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를 대신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고 성취평가를 위한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개발해 주기도 하고, 교과서를 출판하는 회사가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각 단원 구성의 바탕이 되는 성취기준, 각 단원의 평가를 위한 성취수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등학교 성취평가제 홈페이지(http://assess.kice.re.kr)에서 제공하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가공 없이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평가제는 교사에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자신의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촉발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단위 학교에서 학년 · 교과별로 개발한 성취기준, 성취수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나면, 평가 결과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학생 수준 판단력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즉 평가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A-B-C-D-E(혹은 A-B-C)의 비율 등이 교사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학습자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통해 수준을 파악을 했다면 평균과 표준편자, A-B-C-D-E(혹은 A-B-C)의 비율 등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중학교 성취평가제 도입 3년차, 중학교 1, 2, 3학년 모든 학년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2014년은 바야흐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읽고,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각성의 때가 되었다.

Ⅲ. 정통(正統):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수업

1.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관심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용 도서 즉 교과서에 의거해 수업과 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개정 2013.3.23.]에 의거하면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이 교수 · 학습과 평가의 정통(正統), 바른 계통을 따르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교과서 중심의 교육방식이 전적으로 나쁜 것만도 아니며, 교과서 중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사들 차원의 아무런 노력도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영양 상태가 부실한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체격, 체력,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음은 인정할 만한 사실이다. 한 학급 당 60-70명의 학생들에게 많은 개념과 원리를 짧은 시간 안에 집약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사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교육적 성과이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미래 세대에게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다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의 보수적 속성상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현재의 문제이다.

한편 지식의 주입만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학습자를 기른다는 교육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적 규모의 교사 연구회가 꾸려지기도 하고, 교사들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학습지, 학습서가 인터넷 환경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변화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제법 오랫동안 마른 땅을 적셔주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매우 부분적으로 일어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좀 더 강한 동력이 필요하던 즈음에 '역량'이라는 개념이 교육계 내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교과 내용을 정선해서 가르치고, 교과 간의 분절을 극복하여, 교과 간 통합, 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학교는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2013년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까지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2010년 주민 직선 교육자치 시대가 열리자, 시도 교육감들이 내세운 서로 다른 색채의 교육과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다(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2014: 140-148 참조). 지역의 교육 자치 실현과 교육적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교육감들의 노력이 교과서보다는 교육과정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한 번 출판되면 수정 보완이 어려운 반면, 교육과정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보다 유연하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을 표방하는 교육감들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에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발표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도 2000년대 초부터 대구를 창의성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당시 교육감의 노력이 임기 내내 이어져서 일정 부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교수 · 학습 방법의 차원을 넘어서기가 힘들었다. 개개의 교사들이 호미로 열심히 주입식 교육으로 거칠어진 땅을 갈아엎으며 농작물을 키웠지만 소출이 미미하던 차에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표 후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설립하고, '창의 · 인성교육'이라는 거대한 굴착기로 교실에 갇힌 수업, 교과서에 갇힌 수업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사들이 숨 가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 놓고 있는데, 정책 집행의 속도에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교육의 본질과 핵심인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과정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과정을 잘 모르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스러운 정책은 아마도 자유학기제일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 준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에 교과별 시수가 학교마다 다르게 조정되면 기존 교과서 중심 수업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평가가 없어지는 자유학기에 교사의 학생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스스로를 흔들림 없이 세우려면 교과서에 의존하는 방법보다는 교과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의지했던 바로 그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새롭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비록 외적 강제에 의해 교육과정을 펴보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교사들은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해야 하는 마지막 출발점에 서 있다.

2.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탐구

달리기를 해도 조금 먼저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처럼 교육과정도 먼저 공부해온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전문가로 찾아 앞줄에 세우고 길을 열어 주도록 당부했다. 물론 타시도의 교사들이 먼저 걸어간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애써 찾아 길을 넓히며 따라 가기도 했다. 그 과정은 발표자가 지역 신문에 기고한 아래의 내용으로 대신 소개하고자 한다.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과정 전문가 100인, 대구의 '행복' 교육을 디자인하다.[2)]

군살 없는 건강한 몸매의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대구 교육을 대표하는 100인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투입했다는 사천포 해전의 현장, 사천 LIG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대구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100인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짐을 풀었다. 1월 9일(수)부터 1일 11일(금)까지 2박 3일간 이어진 토론과 강의, 질의 응답과 토의, 그리고 최종 논의 결과 발표까지 숨 가쁘게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사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수시로 개정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엔 늘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줄 선물이라는데, 그 귀한 선물을 준비하는 학교는 늘 시간에 쫓겨 바쁘게 그 선물을 준비해야만 했다. 이런 문제점을 대구시교육청이 주시하고 있었던지, 작년 11월부터 잇달아 3차례의 워크숍을 열었다. 특히 이번 경남 사천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함께 참여한 분들의 말을 빌면 일종의 '힐링 캠프'이기도 하다. '아, 저 학교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어이쿠, 이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 기획의 가장 큰 장점은 먼저 초·중·고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급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높고 두터워 서로 함께 해결하면 쉽게 풀릴 문제를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서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이번엔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한편 외부 강사는 도움 말씀을 통해 생각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할,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주셨다.

교육 현장에 들어온 '학교 경영'의 개념이 연간 학교 교육 계획을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면 이제 '학교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의 개념은 교과서 진도에 묶인 교육 전반의 시야를 툭 틔워주면서, 세계를 향한 교육, 미래를 향한 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들을 각성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학교가,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줄 선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고르고, 포장할 때가 되었다. 이런 질 좋은, 기초·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학생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워크숍을 떠나기 전 사천시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드넓은 광포만의 아름다운 낙조를 보고 오라는 이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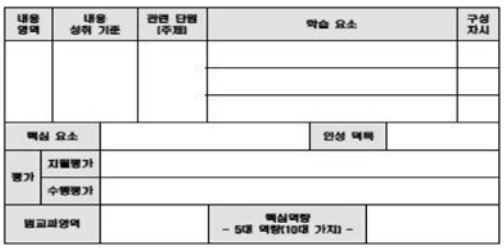
2) 2013년 1월 14일 대구일보 7면 "'행복한 배움'의 출발은? 학교 간 소통·관심 중요"

들었다. 그런데 지는 해에 눈길 한 번 못 주었지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배움을 충실하게 엮어주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운 워크숍 참석자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그 낙조보다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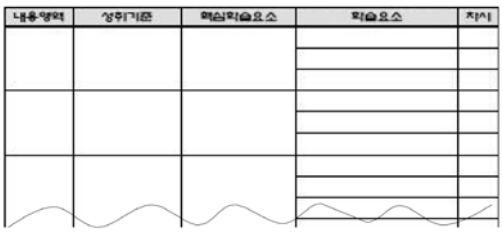
대구시교육청은 초, 중, 고에서 교육과정 전문가 100명을 선발하여 2012, 2013년 2년간에 걸쳐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이들이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에 관한 이론은 물론 실천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위한 세 단계의 탐구 방식을 대구시 전체 교사들에게 안내하기로 합의했다.[3] 세 단계는 첫째, 교육과정 읽기, 둘째, 교육과정 분석하고 체계화하기, 셋째, 교실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기이다. 각 단계별 작업을 위한 문서 양식은 그림 1, 2, 3과 같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2014년 1월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대구시 내의 모든 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위해 이 세 단계를 소개하고, 함께 교육과정을 읽고, 분석했다. 그 이후에는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발표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중에 개인별로 중학교 과정 전체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화하고, 2월 개학 후 개인별로 분석한 내용을 같은 교과 교사들이 공유한 다음, 3월에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학생들을 만

[그림 1] 1단계: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 읽기(reading) 카드



[그림 2] 2단계: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 맵핑(mapping) 카드



[그림 3] 3단계: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 운용(using) 카드

3)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한 분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광순 교수이다. 여러 차례 대구를 오가며 강의해 주신 정광순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광순 교수가 제안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curriculum literacy) 습득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4 중등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 교재(2014.5.19.) 참조).

(1단계) 교육과정 찾아 읽기, (2단계) 코드표, 블록, 게시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지도(map) 갖기

(3단계) 교육과정 상용하기: 교육과정을 수업과 평가에 사용하기

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그 학생들에게 적합한 한 학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 학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과거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는 참고하지 않았던 교육과정에서 출발하고, '역량'의 개념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학기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수립은 1학기에 이어 올 8월부터 시작된 2학기에도 진행되었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일이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급작스러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13학년도까지 사용했던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계획 양식과 새로운 양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표 1>과 <표 2>로 이를 제시한다.

<표 1> 2013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2013학년도 국어과 제 1학년(미술중점) 학습지도 예정 및 진도표				지도교사	담당자	교감
				최진아		
교과서명	중학교 국어	기준 학반	1학년 6반	수업하는 요일	화, 목, 금	
주	월일	단원명		수업시수 예정	행사 및 공휴일	
1	3.4~3.8	3. 간추리고 나누고 (1) 글의 내용 요약하기 : 요약하는 방법 알기		3 / 3	·1학년 입학식(3/4,월) ·1,2학년 진단평가(3/7,목)	
2	3.11~3.15	요약할 때 주의할 점, 요약해 보기		3 / 6		
3	3.18~3.22	(2) 단어의 갈래 :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알기		3 / 9		
4	3.25~3.29	품사의 갈래와 특성 알기(체언과 용언)		3 / 12	·2,3학년 자기경영학교(3/26,화)	

<표 1>에서 제공된 정보는 3가지(언제, 교과서의 어느 단원을, 몇 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는지)인 반면에, <표 2>에서 제공된 정보는 10가지에 이른다. 즉 1) 언제, 2)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어떤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3) 학습 요소를 어떻게 설정하고, 4) 교과서의 어느 단원을 중심으로, 5) 몇 차시에 걸쳐서, 6)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7) 평가와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성취기준과 연관된 8) 인성덕목, 9) 범교과 영역, 10) 역량은 무엇인지 등이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교과 진도 계획에 포함하는가의 양적인 문제도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학기의 교과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과서가 제시하는 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과정 운용을 위해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교육과정 활용으로 나타난 현장의 변화

발표자는 1990년부터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교과서를 성전처럼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원, 교과연구회, 전문 교사 연구진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학교 현장 전

<표 2> 201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2014학년도 국어과 제2학년 2학기 (일반/미술중점과정) 학습지도 예정 및 진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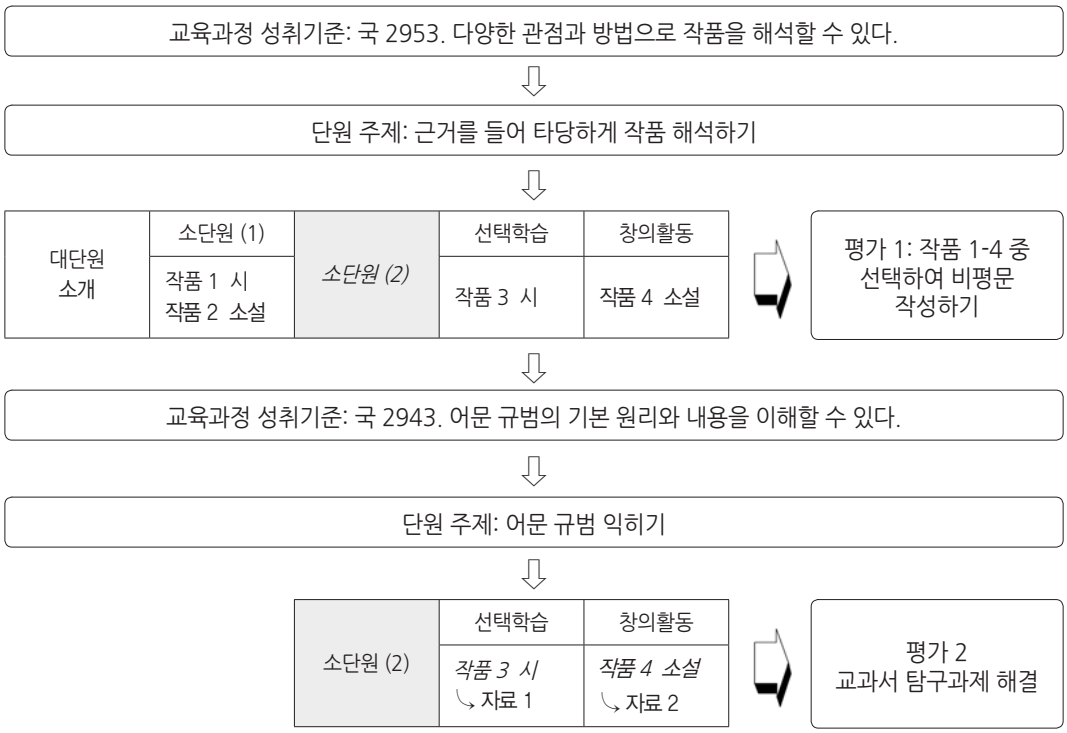
교과서명	천재	기준 학반	2학년 1반	수업하는 요일	월6, 금1	담당교사	최진아

지도일자	성취기준	학습요소	단원명(수업주제)	예정차시	실제차시	학교행사	재구성 내용 및 교과연계	평가 지필	평가 수행	인성덕목	범교과 영역	5대역량 10대가지
8.18.월 8.22.금	국291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ㅇ발표 상황과 매체, 청중에 대한 고려 ㅇ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에 유의한 발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2/34			* 발표 불안을 없애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초점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번호 순대로 발표하기	×	내가 좋아하는 것-발표자료 활용하여 2분 발표(2학기 동안 계속 진행)	소통	민주시민 교육	사회적 역량 (소통, 배려)
8.25.월 8.29.금	국 2953.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ㅇ작품에 대한 해석을 결정하는 요소 ㅇ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비교 ㅇ작품 해석의 근거가 드러난 비평문 살펴보기 ㅇ근거를 들어 타당하게 작품 해석하기	문학의 다양한 해석	4/34			* 4가지(절대/표현/반영/효용론적) 방법을 이해하고, 이러한 방법이 숙지되도록 작품 감상 후 비평문 작성하기에 초점 (1) 도입: 문학 작품 해석의 방법 소개 (2) 시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교사-학생 협력) (3-4) 소설 김용익의 '꽃신'(학생-학생 협력) (5) 시 이상희 '비가 오면'(학생-학생 협력) (6) 소설 이태준의 '돌다리'(학생-학생 협력) [학교 축제에 게출할 비평문 작성 A4 색지 개인별-노랑색 모둠별-주황색] ● 추가 과제: 교과서에 없는 작품을 한 편 골라 비평문 작성하기	중간 ○	4편의 작품에 대한 작품 비평문 제출 (본문:개인별/선택학습:모둠별)	존중	인성교육	지적 역량 (통합, 창조)
9.1.월 9.5.금				6/34								
9.8.월 9.12.금				7/34		추석						
9.15.월 9.19.금				8/34		2학년 수학여행						

체의 흐름을 변화시키기에는 늘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 재구성 작업은 발표자 개인이나, 주변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의 교재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는 발표자의 수업 및 평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이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교과서 중심 수업과 교육과정 중심 수업의 차이부터 간단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중심 수업은 첫째, 수업 목표부터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다. 교육과정은 효용성이 거의 없다. 교과서 집필자가 설정한 수업목표가 수업의 출발점이 된다. 간혹 수업목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는 학교 대표 수업 공개, 수업 발표대회 참가, 교육실습생 지도 등의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의 범위를 확대해도 수업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교사의 재량은 교과서의 특정 부분을 빼거나, 학습지를 추가하거나, 자료 글이나 활동 순서를 바꾸는 정도이다. 셋째,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평가를 고려하지 못하고, 평가는 평가하는 시점에 가서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중심 수업은 첫째, 수업 목표를 교육과정에서 가지고 온다. 따라서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면서 수업을 설계하게 된다. 둘째, 학기 단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즉 단순히 어느 단원을 언제 수업할 것인지 순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 밑그림을 꼼꼼하게 그려놓고 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셋째,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할까, 어떤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것인지 고민한 다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현재 발표자가 진행하고 있는 2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의 수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



현재 발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작품 선정이나 학습문제 구성이 발표자의 개인적 기호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비교적 적합한 편이다. 따라서 이번 단원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는 학습지를 많이 만들어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교과서의 작품과 학습문제를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 다만 교과서에 제시된 특정 학습문제의 경우 우리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아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였다.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학습문제에 사용된 어휘, 표현 등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이 시도한 작품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교사와 학생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와 연계하는 정도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즉 교과서의 제시문 자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이해의 자료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한 성취기준을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교과서와는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교과서의 내용과 순서를 거의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수업 당시 상황, 학생들의 수준, 특별한 학교 행사, 교과 간 통합 수업의 기회 등으로 축소, 확장, 수정, 보완, 압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 교육의 중심축을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으로 옮기면서 나타난 변화들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이므로 이런 변화가 광범위하다거나 뚜렷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

교육과정 성취기준: 국 291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

단원 주제: 매체 자료를 구성하여 발표하기

⇩ 1학기말 (경로 1)

1-2차시	3-5차시
지식중심	수행중심
방법 숙지 (내용 선정, 매체 자료 구성, 발표)	반/비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기

⇨ (6-7차시) 평가 1
교과서 예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평가 결과: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선정'보다 '발표 내용 구성'과 '발표하는 상황 극복'이 어려운 학생들을 발견함〉

⇩ 2학기 동안 (경로 2)

활동: 매 시간 1-2명씩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1) 매체 자료를 구성하여 2) 수업 시작 직후 3분 발표하기

성취 1.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발표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
성취 2. 발표 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매체자료 및 비/반언어적 표현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발표한다.

표자와 발표자의 동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 교육이 장기간 힘 있게 실천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4)]

첫째, 교사는 교과서가 제시한 수업 내용과 순서, 방식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교과서 보다 더 상위의 지침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사 개인의 판단이나 기호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인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수정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동료, 교사와 협력하게 된다. 교사가 교과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학생들도 교사와 더불어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교사는 연구의 책임, 학생은 참여의 책임이 강화된다. 가르침, 전달 중심의 수업이 배움, 나눔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원리, 개념, 문제 풀이 중심으로 수업의 초점을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에 두기보다는 바람직한 태도와 인성에 기초해서 '안다면, 아는 것을 토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수업의 무게 중심을 옮겨놓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시간적, 정신적 '여유'이다. 아는 것은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즉시 확인이 안 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학(學): 배우고', '습(習): 익힌' 후 이를 적절한 평가 과제를 통해 확인하도록 수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넷째,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지 않고, 평가의 폭이 넓어진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 자체가 성취기준 형태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평가의 잣대로 기능한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가기 급급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큰 그림이 교사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취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소소한 지식들을 굳이 평가하지 않고, 바람직한 인재를 기르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역량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만한 수업 결과물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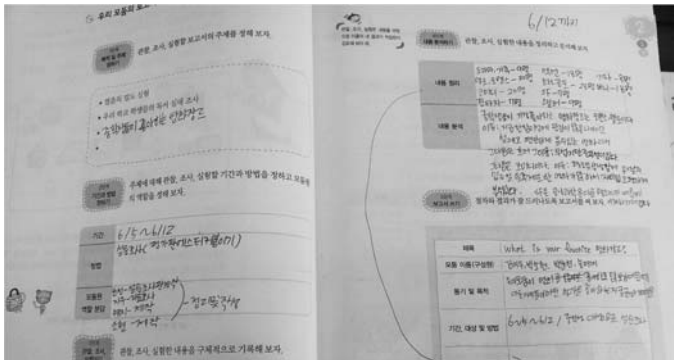
첫 번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보고하는 글쓰기를 8차시 가량 진행했는데, 보고서 쓰기와 관련해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을 최소한으로 압축하고, 교과서 예시를 참고하여 모둠별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 자료 수집, 작성,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선택형 지필고사 성적도 매우 양호했으며 지필고사를 친 후 학생들 스스로가 말하듯, 해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기억이 나고, 체득하는 일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듯하다.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해학의

4) 동료교사들의 의견 중 일부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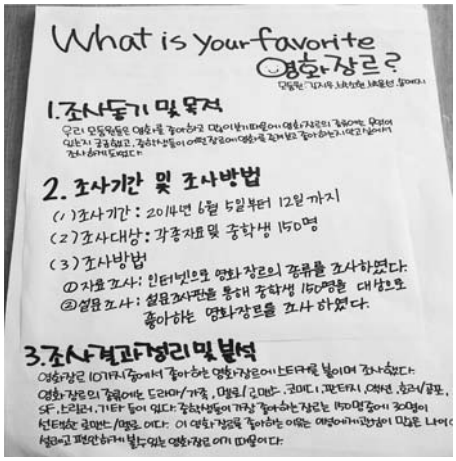
"교과서 내용 중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다루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비해) 교과서를 다 다루어야 한다는 부담이 덜해져서,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는 3분 말하기나 전문가와 면담하는 활동 등을 실시하여 학생 활동 위주의 수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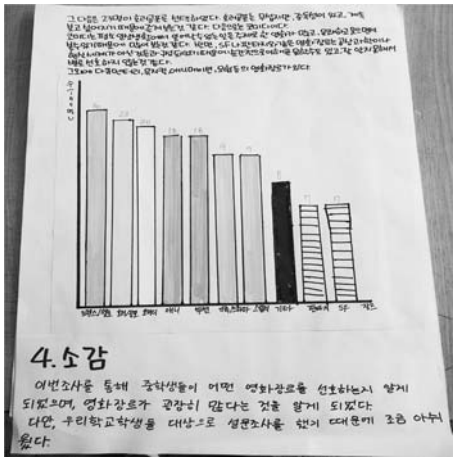
"교과서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교과서만으로 내용파악(본문해석이나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교사가 주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고 학생들은 다소 수동적으로 받아 적고 대답하는 단순 반복이나 훈련과 같은 형태의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요즘은(교육과정 재구성 이후) 교과서를 활용하되 의존하는 비중을 대폭 줄여서 본문해석이나 문법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개념 전달만 하고, 나머지는 협력활동이나 게임, 동영상 활용 등 교과서 밖의 활동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교과서 단원 표지〉 〈보고서 작성 계획서 작성: 5단계〉

- 성취기준: 국2933.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 단원명: 보고하는 글쓰기
- 수업절차: 단원 수업 후 제출할 최종 산출물(성취의 결과) 안내 ⇒ 교과서에 제시된 보고서 예문을 통해 작성 요령 익히기 ⇒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 ⇒ 교과서 2면에 걸쳐서 계획서를 작성 ⇒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보고할 내용 확정 ⇒ 각자 한 부분씩 맡아서 보고서 작성





- 공동으로 보고서 작성(위의 사진: 글씨가 각 항목마다 모두 다름, 각자 다른 종이에 써서 한 장의 종이에 붙임)
- 보고서 제출 ⇒ 사진으로 촬영 ⇒ 학급 구성원 모두가 TV 화면을 보면서 보고서의 미비한 점에 대해 조언 ⇒ 수정하여 다시 제출 ⇒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김

향기'라는 단원 수업 사례이다. 관련 성취기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이다. 4차시 가량 진행했는데, 고전 수필, 판소리 등에 나타난 우리의 전통 해학을 살펴보고 해학의 원리를 파악한 다음, 현대의 해학에 관한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단원을 시작할 때 수행 과제를 먼저 안내하고, 그 과제 해결을 위해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게 했는데, 집중도가 매우 높았고, 결과 보고서의 수준도 우수했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이다.

Ⅳ. 정통(精通): 학습 과학의 두 주체-교사와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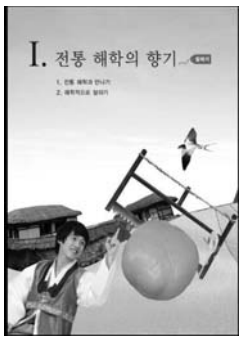
'정통(精通)'이란 어떤 사물이나 분야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정보 따위를 갖고 있음을 나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진도 운영 계획

9. 4. 목 9. 9. 화 9.10. 수 9.11. 목 9.16. 화 9.17. 수	924.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	해학의 의미와 구조, 표현의 특징 고전 작품 속의 해학적 상황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해학이 쓰이고 있는 부분과 웃음을 주는 요소 찾기	(생활국어) 1. 전통해학의 향기 (1) 전통해학과 만나기 (2) 해학적으로 말하기	5 16/72		추석연휴 (9.8~9.10)	전통해학에 공감할 수 있는 문화색 코드 갖추기 현대의 해학을 재창조할 수 있는 동력 계발 1) 도입 교과서 내용 검토, 수업의 방향 공유하기 2-3) 전통 해학과 만나기 (모둠) 옛 수필, 고소설, 설화, 판소리, 탈놀이 4-5) '우리'의 해학을 만들고 향유하기 재담 재연, 재구성, 재담 섞기, 재담 창작 등을 다양하게 체험하기	중간 ○	(모둠별) 인기개그프로그램의 웃음 유발 원리 탐구보고서 제출	소통	인성교육	정서적 역량 (공정)

└, 성취기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

└,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수행과제(인기 개그 프로그램의 웃음 유발 원리 탐구 보고서 제출)



교과서 단원 표지

과제로 선정한 교과서 학습문제(스스로 학습)

수행 결과물 1

수행 결과물 2

수행 결과물 1: '무한도전'에서 웃음 코드 찾기(돌려 말하기, 기대 무너뜨리기, 과장하기 등)

수행 결과물 2: '개그 콘서트의 억수르'에서 웃음코드 분석하기(인물의 대사 분석: 허세 가득한 인물을 통해 꿈같은 세상 보여주기-현실과 멀어질수록 웃음의 강도가 높아짐)

타내는 말이다. 지금까지 교사는 교과서에 의지하여 국가가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교육과정을 거의 연구하지 않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성취 수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만 충실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도 교수(敎授)의 과학화에 힘써, 학습자와 학습 내용, 학습 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정보 따위를 갖게 되길, 즉 정통(精通)하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집필자들은 검(인)정을 통과하는 데 급급하여 교육과정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써 왔다. 그 교과서를 사용할 학생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배우도록 할 것인가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물론 교과서의 판형이나 종이의 질, 삽화, 디자인 등은 이전에 비해 독자인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도 과학화가 필요하다. 즉 교과서도 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습자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서를 선정한 교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과 거기에 근거한 교과서 집필과 제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과서도 학습 내용은 물론, 학습자와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 정보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주장이 성취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학생이 될 것이다.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이나,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활동 방식, 흥미로운 교과서의 구조 등에 대한 정보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행과제의 성취 정도 등을 지역별, 학년별로 표집 조사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보지 않았고, 장기간 그런 자료들을 누적하여 변화 양상을 살피지 않았다.

교사와 교과서가 '학생'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미래를 내다보는 좋은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다.

첫째, 무엇보다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이것은 국가의 몫이다. 교과서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도 반드시 검토, 분석, 연구하도록 실용적 문서로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둘째,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교과서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대한 누적 정보를 토대로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 교육과정평가원, 여러 분야의 연구자, 현장 교사, 교과서 집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등의 협업이 필요한 일이다.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자습서 형태로 만들기보다는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하면 좋을지를 먼저 연구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셋째, 교사 연구자에 대한 투자와 훈련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교육과정 전문가 그룹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을 확대해 가면서 훈련시키고, 그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에 전문성을 가진, 훈련된 교사 연구자를 대거 포함시켜 주길 기대한다. 필요에 따라 이들은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 집필된 교과서 수준의 적합성 판단 등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이 교과 교육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교사들의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이 여기에 더해질 때 가르침과 배움이 조화와 균형

을 이루고, 즐거움과 보람이 함께 공존하는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철(2014).『생각을 생각하는 힘』. 양서원.
- 경기도교육청(2012). 2012년 경기도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총론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2011).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2011.12.13.)
- 김삼진 외(2012).『덕양중학교 혁신학교 도전기』. 맘에드림.
- 대구광역시교육청(2014). 행복역량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감 공약 이행 정책 과제.
- 박현숙(2012).『교사는 수업으로 성장한다』. 맘에드림.
- 정광순(2014). 교사가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시대가 되다. 대구광역시교육청 2014 중등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 교재(2014.5.19.).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2).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 2013 국제교과서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3). 수업 및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 2013 국제교과서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4). 2014 인정도서 개발 선도교원 연수 교재. (2014.8.11.-8.14).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2014).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 살림터.
- 함영기(2014).『교육 사유』. 바로세움.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토 론①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의미 : 교과서 활용 면에서』에 대한 토론

서 지 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1.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활용의 의미

교과서는 개념적으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한 교수·학습의 주된 도구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으로 교과용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으며, 교과서 정책에서 나타나는 목적이나 의도를 살펴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과서 정책이 학교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관련된 법령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정의와 각 학교에서의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오늘 Carol Mutch 박사님의 발표가 교과서를 통해 교사 혹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들여다보고 관련해 미래 교육에서의 교과서의 활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물론 이것이 오해였다면 발표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위의 교과서에 대한 법령이나 실제 학교에서 교과서의 위상,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실태들을 살펴보면서 교사 또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과 교과서의 관계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자료이며, 개발 및 승인된 국·검·인정도서를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교과서를 반드시 사용하라 또는 학교교육에서 교과서는 필수적이라는 진술은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학습이 교과서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필요에 의해 일부 수업 활동에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과서는 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8.] [대통령령 제25646호, 2014.10.8., 일부개정]

생략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중략 -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8.>

정, 구입되고 특히 평가에서 가장 상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비단 교육과정 내용을 교과서에 실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과서에서 구현하기도 하고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맞추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가 주도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교과서로 승인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 역시 교육과정에의 적합성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교과 학습에서의 교과서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따라서 교과서를 잘 개발하고 반드시 교수·학습 상황에서 잘 활용하여야 한다.

2. 교과서 활용의 강점과 약점

발표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과서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 발표자께서 뉴질랜드 상황을 고려하여 강점과 약점을 제시하셨는데 본 토론자는 한국 상황과 교과서 연구를 통해 얻은 식견으로 강점과 약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주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도구이며, 교사가 없을 때 자기 학습 즉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도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핵심적으로 학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에게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 강점을 가진다. 물론 교사는 재구성 등을 통해 자신만의 교육 방법으로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하겠지만 그래도 교과서라는 일정한 교육 자료 적용 효과는 유사하게 도모할 수 있다.

반면에 사용자 모두에게 통일된 학습 내용과 방법이 제기되기에 학습자 개별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자기 개발이나 창의성이나 독특한 재능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며,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기본 지식의 습득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교과서가 없다면 국가적으로 통일성 있는 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없고, 일정 수준의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교육 정책 운영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며, 교수·학습 상황에 활용할 교과서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교사의 업무는 매우 가중될 것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이를 준비할 교사의 자질 확보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 학생들의 수준, 특성 등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폭이나 질적 수준은 확대될 것이고, 학생 개개인을 볼 때 보다 흥미롭고 동기 유발되며, 발전가능성 높은 수업을 만날 확률이 높을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교과서가 없는 수업은?

Carol Mutch 박사님이 발표한 것처럼 교과서 없는 수업은 가능하다. 교과서는 교수(즉, 가르침)를 지원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서의 강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스스로 또는 교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효과를 더해 줄 수 있는 도구가 교과서이며, 교과서가 없어도 가르치는 자(교사)는 다양한 참고 자료나 따로 제작한 도구를 가지고 교과서를 대신하며 훌륭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없는 경우, 해당 수업은 교사의 전문성 수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교사가 곧 교과서 집필자가 되어 매 차시 내용 구성, 교수 · 학습 방법, 평가 도구 제작 등 수업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주어진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능과 노력을 요구한다.

덧붙여 발표자가 제기한 질문, 즉 교과서가 없는 수업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할 수 없다. 영향을 받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개정, 융합교육으로의 지향을 앞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를 주제로 한 책무성과 자율성의 균형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없는 수업을 상상해 보았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은 '어렵다'였다. 본 토론자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과서를 잘 활용하지 않는, 또한 교과서가 학습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교과 또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사 자율에 의하여 교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이유에 의해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은 교육 기회의 평등,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에게 유사한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형태 역시 교과서를 활용하는 동일한 방법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교육의 질이 영향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나 교과 학습은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 발전 및 개별 능력을 계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현장에서는 전자를 이루면 후자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였는가는 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을 모두 학습하였는가를 통해 판단되며, 그 학습 결과는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경로로 확인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고 승인된 교과서를 활용해 교수 · 학습하고, 평가

역시 교과서를 기본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교과서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교과서가 필요하고 교과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4. 교과서 활용에서의 진정한 자율성은 책무성을 바탕으로

발표자께서는 뉴질랜드는 세부적인 과목 학습보다 원칙과 비전에 중점을 두고 교과 학습을 하며, 제시되는 교육 내용도 세부적 컨텐츠가 아닌 개념적 일반화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뉴질랜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념적으로 제시된 교육과정 내용과 역량 교육의 환경에서는 배워야할 교과 지식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이해나 관점의 다양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몇몇 집필자가 해석하여 교과 지식을 구성해 놓은 전형의 교과서에 대한 필요성이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것 보다는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해한 교육과정 내용의 개념에 대한 학습과 학생들에게 제공할 역량 교육 방법을 위해 자율적으로 고안한 교수 활동,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수집, 구성해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따라야하는 책무성 보다는 교사의 자율성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토론자는 자율성 안에 책무성의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된다. 책무성이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소명의식이나 양심, 교육관 등과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에게(혹은 자신의 위치, 지위 등에) 부여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있고, 법이나 제도, 규정 등의 준수와 같이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 같다. 즉, 자율이란 것이 자신이 스스로 부여하는 규율이라고 본다면 이것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부여하는 책무성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마음껏 자신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 교육하는 것, 즉 교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교수에 대한 자신만의 규율을 먼저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교사는 진정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초임교사들은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연수하고 계발하도록 기회를 갖는다고 하였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자율성을 교육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잘은 모르지만 발표자가 제시한 교사의 예를 볼 때 교수 자료의 개발과 구성을 위하여 뉴질랜드의 교사들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 학습을 위해 교과서를 활용하고, 덧붙여 참고 자료들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려는 교사 교육과 연수 기회는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양성 과정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과목마다 교과서가 있지만 이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교과서와 더불어 어떤 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질 지에 대한 교육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도 그리고 임용 후 연수에도 충분히 제공되거나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고, 교사들은 준비를 갖추고 역량을 키울 기회를 만나기 어렵다.

교사가 교과서 활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기회가 학교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토론자는 수차례의 교과서 연구에서 출판사의 공익적 연구와

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 다. 교과서의 개발, 보급의 주체로서 출판사는 각자가 개발한 교과서로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당 교과서가 갖는 주요한 장점, 의도하는 학습 효과, 활용의 강점 등을 홍보하고 교사에게 활용에 대하여 교육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 효과를 창출해내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가 이제는 '상업'적 측면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교육'에 기여하는 동반 기관으로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사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는 학교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생 성취 평가 결과 등과 같은 책무성의 증거가 되는 다양한 지표를 계측한다고 한다. 현장의 교육권에 대해 충분하게 자율을 부여하지만 이것이 국가가 요구하는 범위와 수준의 학생 성취나 학습을 창출해 내어야 하며, 이는 국가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국가가 개발 혹은 승인한 교과서를 비롯하여 학교교육에 교육 책무성 차원에서 사용하고, 따르고, 지켜야 할 요소들이 있다. 학교에서, 또한 교사들은 허용된 범위의 자율성 즉, 학교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수·학습 방법 활용 등의 자율성 내에서 교육적 효과와 개인 역량 발휘를 추구한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선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 역시 교육 현장에는, 교사에게는 자율성과 책무성이 모두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 또는 어떤 것이 교사에게 더 선호되는가는 역시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렵다.

단지 본 토론자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율성 역시 자신에 부여하는 책무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교사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을 완수해 낼 수 있도록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만 이 때 교사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전문적인 교수 행위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5. 마치며

서두에 제시한 것처럼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도구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필요 여부는 교육 내용이나 교수·학습의 특징에 좌우될 것이다. 교과 특성상 학습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기본적 지식이 중요하며 많은 교과에서는 교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유사한 수준과 범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창의력과 같이 다양한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교과에서는 통일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학생 특성이나 상황, 환경에 적절한 서로 다른 여러 자료를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교과 내용을 이분하여 나눌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강력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과서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답한다면 이 정도의 응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상황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야기해 주신 Carol Mutch 박사님 덕분에 평소 생각하지 못한 주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펼쳐 볼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론자의 소견이 발표자의 의도에 누를 끼치지 않았기를 바란다.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ITS 2014 2014 International Textbook Symposium

토 론②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과서 활용 사례』에 대한 토론

김 대 현
부산대학교 교수

두 분 선생님의 글을 읽고 기뻤다. 논지가 분명하며 내용도 풍부하고 표현력이 뛰어나 발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수업의 혁신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가움이 컸다. 대부분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두 분의 글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을 간단히 적는다.

이계자 선생님은 학생과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을 실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당신의 학교에서 교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었다. 수업을 저, 중, 고학년으로 나누어 주제중심의 통합수업, STEAM을 활용한 수업,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 등 세 가지 형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교재가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재재구성으로 학교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과 평가에서 벗어나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과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일관성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가교육과정의 실효성있는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이계자 선생님의 학교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수업 혁신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혁신이 가능하고 성공한 것이 교사들의 자발성과 열의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계획-발표-토론)에 있었다는 점이다.

시도 교육청 정책에 따라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업무'가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소중한 권리'로 인식되자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열의를 보였

다. 동학년 학습공동체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재구성한 교육내용을 수업에 투입한 후, 실천한 사례와 결과를 전 직원이 모여 발표하며 토론도 해 보았다.

또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을 반영하고 학생 상호 간의 실질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온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학생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 가급적 교실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학생들의 삶을 수업에 반영하고 학생 상호간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주제가 있는 통합수업으로 교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계자 선생님의 학교에서 행한 교재재구성은 모두 교과의 통합적 운영을 지향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교과별로 분리된 내용을 하나의 주제나 연구 과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묶어 운영하는 방식을 '교과의 통합적 운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교과의 통합적 운영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만, 무리한 통합은 교과의 계통적 학습을 방해하고, 부산하지만 알맹이가 없거나, 내용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산만한 수업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나는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STEAM 방식의 교재재구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미술의 단원 통합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어와 수학을 연결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나는 '배추흰나비 한살이'라는 과학과 단원을 다른 교과와 통합하지 않고 그 자체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평가를 했더라면 어떤 학습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 내용과 내용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통합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STEAM 방식의 통합 단원을 억지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5학년에 적용한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나는 프로젝트라는 서양말 대신에 '연구과제학습'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연구과제학습은 학생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탐구(조사, 관찰, 실험, 사고 등)하여 해결하는' 학습을 가리킨다.

연구과제학습은 개인, 소집단, 학급 전체, 학년 전체, 학교 전체가 주체가 되어 할 수 있고, 한 과목 내, 여러 과목에 걸쳐, 전체 과목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한 차시,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일 년, 수년에 걸쳐서 할 수 있고, 교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할 수 있다.

'천년 고도의 탐방'이라는 프로젝트 학습은 잘 설계되고 학습 성과 또한 높게 나타났지만, STEAM과 마찬가지로 6개 교과서를 통합하여 운영한 것은 다소 인위적이며 무리한 통합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연구과제학습이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진아 선생님은 교과서 중심 수업과 교육과정 중심 수업을 전통(傳統)과 정통(正統)이라는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특징을 대비하고, 교육과정 중심 수업이 우리의 학교에서 해야 할 바람직한 수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중심 수업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전국적인 교사연구회 조직과 활동 및 교육 자료의 개발과 인터넷을 통한 공유), 성취기준 제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성취평가제의 도입, 역량 중심 교육의 강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통합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에 의하여 촉진되었으며, 대구시의 경우에 대구 교육청의 100인의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과 이들을 통한 학교컨설팅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중심 수업이 지속되려면 교사가 이러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며, 교사-연구자가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최 선생님의 주장에 깊이 공감을 하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대구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이에 동참한 100인의 교육과정 전문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다만 최 선생님이 지면 관계상 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싶다. 우선,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교과별 교육과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전 교육과정 개정 때처럼, 무턱대고 내용을 몇 % 줄이고 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만이 엄선(嚴選)되고 체계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에 해당 분야의 학자들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 수업 전문가, 발달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을 함께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 교사-연구자의 참여 기회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숙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원했던 성과를 얻으려면 어느 특정 집단이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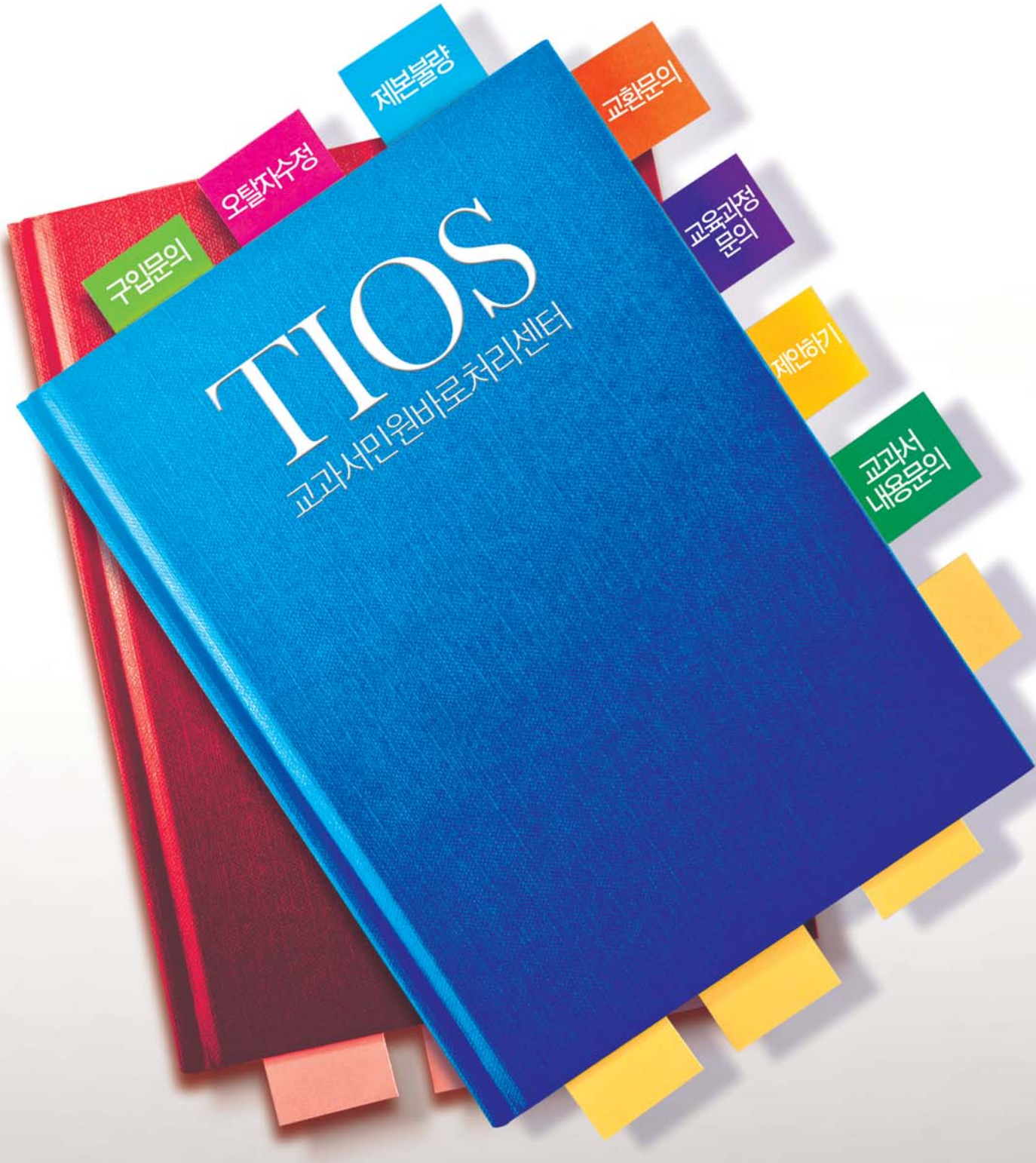
또한, 교육과정 가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권한이 합리적으로 분산되고, 학교 내의 민주적인 가버넌스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의 연구자이든 교사-연구자이든 학교 수업의 패러다임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警句)가 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모르는 정보와 기술을 좀 더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들을 설득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면 혁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컨설팅은 컨설팅을 받는 집단의 '절실한' 요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우며,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기 쉽지 않은 일을 강요하면 성공의 확률이 낮아진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堅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현 외(1997). 교과의 통합적 운영. 서울: 문음사.
- 김대현 외(1998). 프로젝트 학습의 운영.
- 김대현(2011).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양서원.


TIOS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구입문의
오탈자수정
제본불량
교환문의
교육과정 문의
제안하기
교과서 내용문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 가서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셨나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포털사이트, TIOS를 방문하세요.
교과서에 관한 문의부터 오탈자 수정, 제본불량 신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까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약속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 TIOS란?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 TIOS이용방법

TIOS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내가 본 한국 교육

김 정 욱
(전) 존스홉킨스대학 물리학 교수
고등과학원 초대 원장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닌 나는 공부를 한 기억은 전혀 없고 놀던 생각 밖에 없다. 산과 냇물이 너무 좋아 미친 듯이 놀러 다녔고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는 물론 휴식시간에도 운동장에서 많이도 뛰어놀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많이 놀았고 시간 나는 대로 책을 읽었다.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서 다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역시 그랬다. 오랜 세월이 흘러 미국에 있을 때였다. 어느 공항에서 한국인 친구와 조우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다가와 "운동장에서 함께 많이 뛰어놀던 그 친구 아니냐?"며 반가워했다. 자세히 보니 우리는 중학교 동기였다. 그 정도로 나는 뛰어노는 것과, 자연과 자유를 좋아했다. 6.25전쟁 때도 그렇다.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탓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인생 공부는 무척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자주 지금의 한국 학생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곤 한다.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는 길에서는 누리과정이나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들을 많이 본다. 옷차림이나 장비들이 정말 눈부실 정도다. 한국은 참 좋아졌다. 그렇지만 '이 어린이들이 가는 곳에 안심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제대로 있나?', '이 나이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배우나?', 그리고 '자격이 있는 선생들이 가르치나?' 등 걱정이 많다. 자연 속에서 한참 뛰어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면서 지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서너 살 때부터 누리과정과 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어쩐지 걱정이다. 이 과정을 위한 교육 예산 문제로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하는데, 정작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과연 그 연령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지 몹시 궁금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 그저 후에 좋은 학교, 즉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쟁에서 빠질 수 없고 뒤질 수 없다는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때부터 치열한 경쟁의식과 부모들의 소원이 너무 지나쳐 허영으로까지 변해가는 '한국 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이때부터 명문대 입학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젊은 교수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할 때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인 교수와 중학교 3학년인 교수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다른 교수들은 "저게 바로 학부형 토크"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일류대에 갈 수 있다느니, 우리 아이는 큰일이라느니, 그런 게 화제였다. 아니, 아직도 중학생들이면 좀 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몇 등 몇 등"만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그런 교수들의 부인들은 벌써부터 선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드나든다고 한다. 하기야 당대에 그렇게 유명했던 천재적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Richard Feynman)도 딸 때문에 수학 선생을 만나러 학교에 간 적이 몇 번 있었다. 딸이 수학 문제를 선생이 푸는 방법으로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고 오자 왜 야단을 쳤는지 따지러 간 것이었다. 정답은 하나지만 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수학이다. 선생의 자존심과 파인만의 고집 때문에 이 딸 아이는 수학교실을 두 번이나 옮겼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선생을 찾아가는 학부모가 한국에도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도 잘 봐달라고 만나는 것만은 아니길 바란다.

얼마 전 아미라 빌리하겐(Amira Willighagen)이라는 9살의 네덜란드 소녀가 그 나라의 전국 노래자랑에서 선풍적인 인기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지어 새로운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의 탄생이라는 찬사까지 받았다. 이 아이는 여기저기에서 받은 상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놀 곳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했다. 아미라는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중요했기에 불우한 아이들에게 뛰어노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중요하지 잔재주나 영어를 가르치고 너무 일찍부터 불필요한 경쟁심을 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개성 혹은 인격(personality)이라는 것은 수학, 국어, 영어 등 지식 획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단계적인 자연과의 교감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다. 세 살 아이에게는 세 살에 맞는 교육이 있고, 열 살 아이에게는 열 살에 맞는 교육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특수해서 영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한국 교육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가끔 천재라는 아이들을 본다. 간혹 천재적인 창의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식획득에 비상한 재주를 가진 것을 자랑하는 아이들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며 유명했던 김○○ 군도 이런 사례이며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이 유명했던 그 어린 시절보다 오히려 더 행복하리라. 어렸을 때의 일들은 부모의 허영심의 산물이었으니 말이다.

내가 교편을 잡고 있던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재교육과정(Talented Youth Program)을 시작한 줄리앙 스탠리(Julian Stanly)라는 교수가 있었다. 그의 부인도 나와 함께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어 서로 잘 알고 지냈다. 줄리앙은 심리학자로서 이른바 '영재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연구하기 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은 고인이 됐으나 그가 시작한 그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학 입학의 자료로 쓰기 위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지금은 한국에서도 칠 수 있는) SAT의 수학과 영어(verbal) 점수의 합계가 12세 이전에 1200점 이상인 학생들을 우선 '영재'로 정의해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전국에서 선발해 여름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을 병행하면서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했다. 이 과정을 이수한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박사 학위(Ph. D.)를 1~2년 빨리 취득했으나, 몇 명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후의 성과('성공'이라 할까?)에서는 특이한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론은 간단한 것이다. 빨리 배운다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생에서 1~2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기입학, 조기졸업, 모두 큰 의미가 없다. 영재는 일시적으로 일직 핀 꽃이라면, 일찍 피고 오래가는 꽃이 천재다. 꽃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모두가 장미꽃일 필요가 없다. 요즘은 호박꽃의 인기가 대단하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최고급 요리의 재료로 쓰인다.

나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어느 날,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려는 순간 내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내 어깨 너머로 손을 내밀어 나보다 먼저 카드를 찍었다. 뒤돌아보았더니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었다. 나보다 먼저 찍었다고 나보다 빨리 내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의아했지만, 곧 그 일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비슷한 나이의 학생이었다. 두 학생은 과연 왜 그랬을까? 나는 행동이 그렇게 느린 사람도 아니다. 설혹 늦다고 치자. 카드를 내 어깨 너머로 내밀어 먼저 찍는 심리는 어떤 것일까? 요즈음 학생들은 무엇인가에 쫓기며 산다는 증거가 아닐까? 마음은 바쁜데 일은 마음대로 안 된다. '우선 찍어나 보자'는 심사다. 그래야 내려갈 때 마음 놓고 빨리 내릴 수 있기 때문인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실례가 된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유가 없다. 무슨 일이든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빨리 해야만 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당연히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단 한두 문제가 입학하는 대학의 순위를 바꾼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학의 순위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해야 하는 습성을 평소에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카드도 먼저 찍는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빨리 빨리"의 원인이 아닐까?(80이 넘은 어른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렇다면 "세 살 적 버릇은 팔십까지만 간다"로 고쳐야 하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고등학생은 밤늦게 전철이나 버스에서 무거운 가방을 매고 몹시 지친 모습으로 꾸벅거리는 학생들이다. 학원에서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을 익히고 집으로 가는 길이겠지. 오늘하루 과연 운동은 했을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기나 했을까, 그리고 푸른 하늘을 한번 쳐다보기라도 했을까? 걱정이다.

과연 이렇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 요즘 언론은 매일같이 야단법석이다. 대학입시에 관한

별별 이야기가 톱기사가 된다. 다른 나라에서 살 때는 이런 이야기가 톱기사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다. 왜 모든 학생이 일류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서울대학이라는 간판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느 나라에나 명문대학들은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의 동경대, 프랑스의 그랑제콜(Grands Ecoles), 영국의 옥스퍼드대……. 소수의 학생들은 이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야단법석들을 하지만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려고 한다. 모두가 장미꽃이 되려고 한다. 사실 수능점수만 본다면, 열심히만 하면 이류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370점에서 소위 명문대 입학 점수인 390점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게 보이지만 현재의 제도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고도의 기술을 가진 '시험 치르는 기계'가 되는 훈련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두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마치 창의력이 방해가 되는 양 미친 듯이 달려간다. 왜 학생들에게 가끔은 낭만과 꿈도 꾸고, 지적 방황도 하고, 운동도 하는 자유를 누리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 남이 그럴 시간에 나는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하는 한국형 돌연변이의 DNA 때문인가?

한두 문제로써 일류대 입학의 당락을 좌우하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 같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 한국의 이런 점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하버드대는 SAT 만점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고 만점이 아닌데도 들어가는 학생도 많다. 인생은 1, 2점의 점수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SAT 점수는 중요한 참고자료의 한 가지로 삼을 뿐이다. 이렇게 하려면 정량적인 판단 이외의 판단, 즉 면접, 학교 성적(미국도 고등학교 서열은 금지) 등의 심사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EBS 방송강의에서 수능 문제의 70%를 출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암기력만 있으면 수능점수의 70%는 따놓은 게 아닌가? 나머지 30%로 서열을 가리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몇 점 차이로 명문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게 된다. 이 30%의 문제도 과연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학생들을 혼돈되게 하여 점수 차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사설학원에 다녔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은 아닌지, 우선 수능시험의 의도와 철학부터 궁금해진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된 사람들을 '고졸'이라고들 한다. 대학을 다닐 때는 고시 준비하느라 강의는 거의 빠지고 졸업하기 때문이다.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합격 이전의 '간판'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나도 서울대를 졸업했으나 이런 의미에서는 '고졸'이다. 6.25전쟁 직후에 입학해서 대학이 대학 역할을 할 때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강의는 별로 없었고, 영어나 일본어로 된 교과서들을 동급생들과 함께 공부했던 것이다. '간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위 간판일 수도 있는데 왜 명문 대학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큰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서울대 졸업이라는 '간판'의 덕을 본 사람일까? 그것도 전교 수석 졸업이라는 간판이다. 졸업 후 1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갔다. (당시에는 외국 유학하는 사람들은 1년의 군 복무 후 '귀휴'라는 명분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처음에 다닌 대학은 인디아나(Indiana) 주의 사우스벤드(South Bend) 시에 있는 노트르담(Notre Dame)대학이다. 그 연유는 이렇다. 군 복무하던 중 여러 동기생들이 함께 모교에 들러 당시 미국 미시간(Michigan)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신 선배 교수님의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특히 이 노트르담대학에 가

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셨다. 큰 명문 대학에 가면 교수와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좋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 그 교수님이 미시간대에 계실 때 가까웠든 동료가 노트르담대학 교수로 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그때까지 나는 '노트르담의 꼽추'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대학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 대학이야 서울대 전교 수석이라는 간판이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었다. 3명의 내 동기들은 모두 작은 대학에 가라는 우리 교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버드, 프린스턴, 일리노이 대학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을까? 나는 개인 사정으로 1년 후 같은 인디아나주에 있는 인디아나(Indiana)대학으로 옮겨 박사학위를 받은 후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대학의 연구원을 거쳐 메릴랜드(Maryland) 주에 있는 존스홉킨스(Johns Hopkins)대학 물리천문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여 30여년을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함께 유학을 떠나 명문대에 들어간 그 동기생들도 모두 처음에 들어간 각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학문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간판'이라는 것이, 그것도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의 간판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람이면 다 잘 아는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이휘소 박사는 한국이 낳은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인 소립자 물리학자였으나 불행히도 197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핵폭탄 개발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순수 이론물리학자다. 그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이휘소 박사를 모독하는 내용이 많아 안타까웠다. 이휘소 박사는 6.25전쟁 당시 서울대 공대에 입학한 후 미군 장교 클럽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대학은 오하이오(Ohio) 주에 있는 조그마한 마이애미(Miami)대학이었다. 이 대학을 잘 아는 한국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휘소 박사도 서울대학교 간판이 필요 없었던 경우다. 학부를 마친 후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피츠버그(Pittsburg)대학으로 옮겨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어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대학으로 옮겨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천재적인 재질이 인정되어 그 대학에서 바로 조교수로 채용됐다. 그때가 바로 내가 그 대학에 연구원으로 갔을 때였다. 3년 후 나는 존스홉킨스대학으로 떠나고 이휘소 박사는 스토니부룩(Stony Brook) 뉴욕 주립대학으로 갔다. 그는 몇 년 후 페르미연구소의 이론학부 부장이 됐으며 물리학에 큰 공헌을 했다. 아무튼 대학 간판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일류대학의 박사학위라 하더라도 그렇다. 이런 것들은 인생의 성공에 있어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재미있는 실화가 있다. 딸이 셋인 어느 명문대 교수의 이야기다. 몇 년 전, 그는 대전에 설립된 어느 연구소의 한 연구단 단장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인 딸 셋은, 역시 그가 연구단 단장으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다. "아빠! 우리들 모두 곧 결혼해야 하는데 지금 아빠가 나가시는 대학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어 좋은데, 그 연구소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교수는 연구소로 갔다. 그러고 보면 한국에서는 결혼 조건을 위해서 신부 아버지의 명문대 간판도 필요한 것 아닌지 다분히 의심이 간다.

우리나라의 명문대 중에 전국의 과학고 학생들이 가

장 많이 가는 대학이 있다. 이른바 '영재들'은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해 초·중학교에서 모두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다.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틀리지 않고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임은 분명하다. 그들 중에는 공부 이외에 다른 재주도 가지고 있고, 운동도 많이 해서 건강하고, 사회생활의 지혜도 많이 쌓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혹 오직 공부만 하고(즉 '시험을 잘 보는 기계'), 삶의 지혜는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그들은 과연 과학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내 사무실에 물리학부의 한 연구원이 찾아왔다. 명문대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우수한 연구원이었다. 그는 갑자기 우주의 근본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겠다고 했다. 우주의 근본원리, 즉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절에 들어가 스님이 돼서 연구하는 것보다 연구소에서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잘 타일러 보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나에게 말한 그 이유를 가족에게도 이야기했고, 당연히 심한 충돌이 있었으며, 불행히도 가족은 강제로 그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날 밤, 이 연구원은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후에 그의 옛 동료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얼마 전, 이 연구원은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난생 처음 겪는 패배감에 우선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었으나 가족의 극렬한 반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 사회와 가정의 잘못된 교육풍토가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학생들을 채찍질하는 사회도 그렇지만, 부모의 잘못도 큰 것은 물론이다.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성장 과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요한 개성이 형성되고 인간이 되기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이 과정이 마라톤 코스와 같다. 누구나 1등을 할 것 같이 시작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고등학교 때는 '달리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마라톤 코스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한 자연과 환경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달리기만 하는 것이다. 선생과 부모들은 이런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한다. 경주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우승 상패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전개되는 삶에서는 그 상패는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고집한다. 그렇게 지쳐서 도착한 대학과 사회에서 과연 제대로 또다시 경쟁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대학과 사회에서는 여유 있고 지혜롭게 지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마라톤 코스,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마라톤 코스에서 이미 너무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대학에 가서 드디어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더욱 그렇다. 제발 간판위주보다 실력위주로, 빨리 빨리보다 알차고 성실하게 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소개

미 펜실바니아 대학 연구원을 거쳐, 존스홉킨스대학교 물리천문학과 교수로 30여 년 근무.
고등과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존스홉킨스대학교와 고등과학원 명예교수이며 전공분야는 소립자 이론과 우주론.

교과서에 담긴 시, 교과서 밖의 시,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

김 인 호
중동중학교 교사

1. 서론

좋은 시를 읽으면 시가 담고 있는 풍경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고 시인의 마음에 감동하게 된다. 서툴러도 시를 써보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점차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된다. 우리가 교과서에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시를 싣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시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과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를 처음 접하는 공간이며 좋은 시를 접한 학생들은 실제로 시 애호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시를 접하는 최초이자 최후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작품의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다. 학기별로 서너 작품만을 담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평생 독자를 육성하기는 어려워진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이르러 이러한 사정은 다소 나아지는 듯하지만, 시를 감상의 대상이 아닌 문제 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한, 이들이 시 문학의 적극적인 독자층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해 필자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집을 활용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은 교과서를 통해 시의 정수를 느껴 본 학생들이 보다 폭 넓게 시를 접하고 직접 창작해 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시의 가치를 깨닫고 평생 동안 시를 즐겨 읽는 애호층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것을 수업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인이 하나의 시어를 정하기 위해 퇴고에 퇴고를 거듭하듯, 자신의 내면을 정밀한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경험은 점차 단순하고 거칠어지는 학생들의 심성에도 변화를 주리라 기대하였다.

2. 교과서에 담긴 시로 충분한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학생들에게 소개되는 시는 학기별로 서넛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작품들이 학생들에게 시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초석이 된다. 교과서에 실린 시가 대체로 일정 기간 문학성을 검증 받은 것임을 전제하더라도, 소수의 작품만으로 시를 즐겨 찾는 독자를 기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에게 시란 접근하기 어려운 고고한 벽이란 오해를 사기도 한다. 학생들이 시를 접하는 빈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 권의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대게 한두 단원에 집중적으로 수록된다. 대략 4개월에서 6개월에 두세 시간 정도 시를 접하는 수준이다. 물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등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 상황에 학생들에게 시가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책임을 교과서에 전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를 읽는 즐거움을 깨닫기 어렵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생들은 문학 교과서나 입시 대비 교재에서 많은 시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여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거나, 시가 보여주는 장면을 차분히 감상하기보다는 빠르게 시를 해체하여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 졸업 후 시를 읽지 않는 학생들을 책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 입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면 입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학교 과정부터 좋은 시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전에는 교과서에 소설이 실릴 때, 작품 전문이 실리기보다 작품 일부가 발췌되어 소개되곤 하였다. 그러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읽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최근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들은 대게 전문이 실려 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더 많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품 수록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하나의 학습 목표에 적합한 한두 작품만을 수록하는 현행 교과서의 관행을 벗어나 학습 목표에 따라 상호텍스트성이 있는 작품, 주제가 유사하거나 형식이 유사한 작품을 여럿 제시하여 감상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연간 한두 권의 시집을 찾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을 배출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시집을 활용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중동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집을 활용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은 교과서를 통해 좋은 시를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접하지 못하는 점, 대학 입시의 영향 아래 시를 감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계획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주당 4차시인 3학년 국어 수업 중 격주로 한 시간을 할애하여 지속적으로 시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매 수업은 시집을 읽고 시를 쓰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시를 분석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시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많이 읽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작품이 왜 좋은지에 대해 학생들 간에 토의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I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 안내	
II 시집 읽기	1	독서 중 활동 : 좋은 시 세 작품 선택, 스티커 붙이기
		독서 후 활동 : 세 작품 중 한 작품 옮겨 쓰고 소개하기
	2	'시집 읽기-1'에서 선택한 시와 같은 제목 짧은 글짓기
		'시집 읽기-1'에서 많은 선택 받은 시 소개, 좋은 작품인 이유 토의하기
	3	독서 중 활동 : 좋은 시 세 작품 선택하여 스티커 붙이기
		독서 후 활동 : 좋은 시 한 작품 중 시 구절 패러디하기
III 시 쓰기	1	그림 카드(솔라리움 카드)를 활용한 시 쓰기
	2	그림 카드(뮤즈 카드)를 활용한 시 쓰기
		'시집쓰기-1' 우수작 소개, 우수작 중 좋은 시 스티커 붙이기
	3	그림 카드(퓰리처상 수상작)를 활용한 시 쓰기
		'시집쓰기-2' 우수작 소개, 우수작 중 좋은 시 스티커 붙이기
	4	패러디 시 쓰기
		'시집쓰기-3' 우수작 소개, 우수작 중 좋은 시 스티커 붙이기
IV 시 그림책 만들기	1	'우리시 그림책'(윤석중 외, 창비) 소개 및 완성 작품 감상
	2	시 그림책 콘티 만들기, 스케치 및 채색 활동
	3	시 그림책 스케치 및 채색 활동
	4	시 그림책 발표

크게 4단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사 일정에 따라 수업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여 진행하였다. '시집 읽기' 수업을 3회 반복하거나, '시집 읽기' 중 첫 번째 과정만 2, 3회 반복하는 등 학생들의 호응이나 학사 일정에 따라 느슨하게 일정을 진행하였다. 다만 전체 일정을 연간 1회 이상 빠짐없이 진행하였고 매 시간 소량의 활동 결과물을 충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집 읽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집도 찾아 읽을 가치와 재미가 있는 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복잡한 독후 활동을 지양하여 편안하게 시집을 읽고 본인이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선정해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총 12종, 각 4권씩 총 48권의 시집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집을 읽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작품성은 떨어지지만 가볍게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SNS 연재 시집부터, 학생 창작 시선집, 등단 시인이 출간한 청소년 시집,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시집까지 다양하게 제공하여 각자 수준에 맞게 감상하도록 하였다. 독후 활동으로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간단히 시 구절을 패러디해서 써 보는 활동 등으로 가볍게 진행하여 시집 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 도서 목록			
1	서울 시 1(하상욱)	7	재미로 읽는 시(김주환 외)
2	서울 시 2(하상욱)	8	36.4도씨(배창환 외)
3	내일도 담임은 울 삘이다(학생 창작 시)	9	외계인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김미희)
4	버림 받은 성적표(학생 창작 시)	10	넌 아직 몰라도 돼(신지영)
5	우리들의 특별한 언어(학생 창작 시)	11	나는 지금 꽃이다(이장근)
6	난 빨강(박성우)	12	마징가 계보학(권혁웅)

'시 그림책 만들기' 수업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하며 시를 감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 그림책이란 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일반적인 시화 그리기와 달리 시의 내용을 6~8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장면을 그리고 연속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그림책으로 옮길 시를 선택하여 콘티를 작성한 후 교사와 함께 검토하며 시를 적절히 감상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때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에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은연중에 학생들의 경험이나 현재 심리가 그림 속에 반영되어 학생들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시 쓰기' 수업에는 다양한 그림 카드를 활용하였다. 본격적으로 시 쓰기에 앞서 그림 속 장면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다섯 가지 감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한 작품을 써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은 바로 칠판에 붙여 공유하는데, 같은 그림을 다르게 표현한 작품을 두고 학생들 간의 상호 평가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시 쓰기 수업에 활용한 카드는 모두 세 종류였다. '솔라리움(SOULARIUM) 카드'는 다양한 인물과 사물, 풍경이 담긴 50여장의 사진 카드로 학생들의 내면을 투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뮤즈 카드'와 '퓰리처상 수상작 카드'는 자체 제작하였다. '뮤즈 카드'는 세계 명화 속 인물로 구성된 20여장의 자체 제작 카드로, 학생들이 작품 속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거나 인물의 심리를 읽어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고, '퓰리처상 수상작 카드'는 세계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정서적으로 이해해보고 시로 표현해 보고자 제작하였다.

4. 시를 읽고 쓰는 일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교과서에 실린 시는 학생들에게 전범이 되기 때문에 시란 무엇인가를 알고 시에 관한 이론적 개념들을 숙지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그 양이 풍부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시를 읽어나갈 힘을 길러주기에 무리가 있다. 활용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과 다름이 없고, 금세 잊히기 마련이다. 중동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집을 활용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은 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시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쌓아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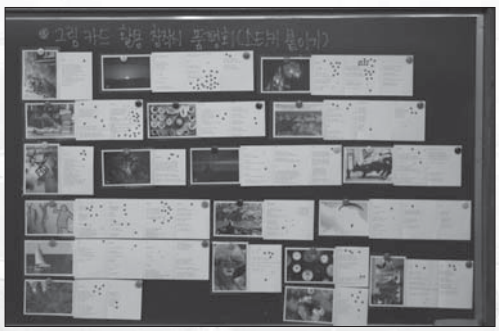
시를 가까이 하며 읽고 쓴 것이 실제 학생들의 인성에 변화를 주었는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웠다. 다만 시를 직접 창작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기미를 엿보았을 뿐이다. 학생들은 신선하고 섬세한 표현을 한 작

품에 깊이 공감하고 감탄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정제되지 않은 저급한 표현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무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창작 수업이 반복되면서 시어의 선택에 신중함을 기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교과서를 떠나 많은 작품을 읽고 교과서에서 다시 시를 만났을 때, 학생들이 교과서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 있었다. 교과서 속 작품들이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으로 대하였으며, 시적 상황과 특징적인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역설적으로 교과서 밖의 시를 통해 교과서 속의 작품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 교과서는 좋은 시의 전범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시란 간사한 마음이 담고 있지 않다고 한다. 교과서를 통해 읽는 좋은 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다만 교과서에 보다 풍부한 양의 시가 수록되어 국어시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를 가까이 하는 독자를 육성하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붙임 1: 시 그림책 만들기 우수작 <시: 김미희, '엄마 이름', 그림: 중동중학교 3학년 10반 이병찬, 우진식, 이광수>

※ 붙임 2: 그림 카드 활용 창작시 품평회 사진



필자소개

현재 서울 중동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시를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후, 학생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수업 계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09개정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분석과 글로벌 히스토리의 가능성 연구

이 진 규
강원초등통일교육연구회 회장

1. 통일교육의 위기와 대안

냉전의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세계는 자본을 중심으로 빠르게 통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가치는 점차 희석되어가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근거였던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민족주의는 보다 진보된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북한과의 정책적인 대립과 글로벌화, 다문화로 인한 무관심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왜 두 체제를 가진 국가로 나눠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맥락적인 역사적 성찰이 필요하다. 냉전으로 인해 왜곡되고 편협했던 역사적 시각을 전지구적 시각으로 전환하여 균형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남북 분단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 전에 주변 열강들의 손익이 걸려 있었던 다중적이고 다원적 성격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와 해방, 6 · 25 전쟁을 전지구적 관점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존의 세계사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구사의 도입이 요구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더불어 등장한 글로벌 히스토리는 탈서구적이며 맥락적인 새로운 역사적 서사기법이자 사고방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우리 분단과 통일 문제를 전지구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지구사적 관점으로서의 기능과 입지를 갖는다. 글로벌 히스토리의 도입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분단 과정의 역사적 사건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게 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에서는 전통적인 통일교육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전통적인 통일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교육 내용이 아닌 반공 · 승공 교육 이념을 담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균형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고의 범주를 민족이나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글로벌 히스토리의 도입은 지구수준의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히스토리의 도입은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의 해결을 해소하고, 북한과의 문제도 대승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좋은 방향일 것이다.

2. 2009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통일내용 분석

1) 도덕 교과서 분석

전통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중점 교과는 도덕이다. 도덕과의 경우 과목의 특성상 공교육의 목표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만큼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을 가장 잘 드러낸다. 2007개정에서는 3학년부터 통일교육 내용이 등장 하였으나 2009개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은 4학년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교육과정 분석에서 살펴봤듯 다문화교육의 적극적인 도입과 정부의 통일 정책에 따른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통일을 다루는 비중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1)]

2009개정 4학년 도덕교과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안보교육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 개발이 진행되던 시기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부분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안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중략) 첫째, 서로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략) 둘째, 주인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중략) 셋째,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안보가 잘 갖추어질 때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자세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자의 2014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초등학교 통일교육에서 글로벌 히스토리의 가능성 연구」참고.

'안보'란 국가 안보를 줄인 말로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안보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힘을 갖추는 것,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2009개정 4학년 도덕교과서 98-99쪽)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여 우리 국군 46명이 전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략)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또다시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많은 건물과 가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원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포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였습니다. 어떤 장병은 자신의 철모가 불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반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공격이 있었지만, 우리 국군과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의연하고 꿋꿋하게 북한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중략)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되며, 나라를 굳건히 지키면서 통일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2009개정 4학년 도덕교과서 106쪽)

교과서 98-99쪽에서는 통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뒤이어 106쪽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소개하며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단정 지었다. 서술 상에 있어서도 '자신의 철모가 불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반격을 가하였습니다.'와 같이 과거 반공을 외치던 시절에 사용하던 표현을 쓰고 있다. 안보교육은 통일교육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보교육 내용은 다음 개정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2007개정 5학년 도덕 교과서와 2009개정 4학년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우월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주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석철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신기했는지 반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석철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중 장훈이는 석철이에게 장난스럽게 "북한에서 왜 내려왔냐? 배가 고파서 내려왔냐?"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북한 사람은 다르잖아. 솔직히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어." (이하 생략)

(2009개정 4학년 도덕교과서 95쪽)

지난 3월 남북 통일 학교를 열고 학교생활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가량 지났습니다. (중략) 종학이는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한 아이들은 체격도 좋은 편이고 옷, 학용품, 책가방 등이 고급스러운 데 반해, 준이를 포함한 북한 아이들은 남한 아이들보다 몸집도 작고, 옷차림이나 쓰는 물건들이 검소하고 낡아 보였습니다. 종학이는 준이의 낡고 보잘것없는 필통을 보고 북한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이에게 필통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연히 준이도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하 생략)

(2007개정 5학년 도덕교과서 95쪽)

'북한에서 왜 내려왔냐? 배가 고파서 내려왔냐?'라든지 '솔직히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어.' 등의 문장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 민주주의 통일교육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또 남북통일학교의 모습을 가정하여 교실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 '남한 아이들은 체격도 좋은 편이고 옷, 학용품, 책가방 등이 고급스러운 데 반해, 준이를 포함한 북한 아이들은 남한 아이들보다 몸집도 작고, 옷차림이나 쓰는 물건들이 검소하고 낡아 보였습니다.'에서도 남한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북한은 가난하다는 입장으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2007개정 6학년 교과서에서는 평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6학년 4단원 1차시에서 통일의 근거로 둘로 나뉘어 평화롭지 못한 한반도 정서와 통일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3차시에서도 평화로운 통일 한국의 모습을 상상하고 통일 노래를 부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통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이보다는 통일은 곧 사회혼란을 일으킨다는 연결공식을 만들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

2) 사회 교과서 분석

2007개정 역사 영역에서 분단과 통일에 대한 내용은 5학년 2학기 3-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3-3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분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였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여 우리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101쪽),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 의해 헌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어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104쪽), '오랜 협상 끝에 남과 북은 1953년 7월 휴전을 하였고, 맞서 싸우던 전선은 휴전선이 되어 남북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106쪽).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 학생들이 분단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설명은 왜 다양한 사람들이 생겼는지, 다양한 생각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와 같은 질문을 갖게 하는 서술이다. 또 왜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으로 주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이승만과 김일성이라는 분단의 핵심 인물이 이전에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 설명도 없다. 중국

과 북방 민족, 일본과의 관계만으로 어느 정도의 설명이 되었던 조선 전기까지의 역사와는 달리 급격하게 세계화가 진행된 조선 후기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선 지구 규모의 역사 서술이 요구된다. 분단을 설명함에 있어서 교과서에 드러난 한계가 바로 글로벌 히스토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2007개정 교과서 역사 영역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상, 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추진되었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양한 민간 차원의 교류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두 페이지의 분량밖에 되지 않으며 내용의 서술에서도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그나마 2007개정 교과서에서 일부 다뤘던 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2009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개발 중인 2009개정 교과서에는 북한 사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7개정 교과서 역사 영역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에는 남한과는 달리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일성 독제 체제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고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사정의 악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 사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이에 북한은 부분적인 개방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기도 하였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뒤를 이어 김정일이 북한 사회를 통치하고 있다.

(2007개정 5학년 사회교과서 127쪽)

통일을 위한 만남과 평화 통일의 길

남북이 분단된 후 우리 민족은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은 1990년 이후에 열매를 맺었다. 남북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과 2007년에는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밖에 민간차원에서 체육과 문화교류, 경제 협력, 식량 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개정 5학년 사회교과서 128쪽)

2007개정 일반사회 영역 통일 내용은 6학년 2학기 3-4단원 '통일과 인류 공동 번영의 길'에서 다루고 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우월론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통일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노력한 것은 서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독일 내부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독일의 통일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북한은 6 · 25 전쟁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잇따른 군사 도발을 저질렀다. 또한 핵 실험을 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언어도 우리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독일이 통일될 당시 동독과 다르다.' 이상에서 북한에 대한 묘사는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임을 알 수 있으며, 언어도 우리와 많이 달라져 있다고 설명한 부분에서는 북한을 우리와 동질집단이 아닌 이질집단으로 규정하고, 내부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남북 교류 협력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핵 실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에서는 통일을 저해시키는 원인을 일방적으로 북한의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2007개정 6학년 일반사회 영역의 통일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2)]

독일 통일의 교훈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 주변국에 의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되었다. 힘에 의한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하던 서독은 화해 정책을 통해 동독과 합의하여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독은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략) 그 후 동독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구소련의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중략) 그러나 북한은 6 · 25 전쟁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잇따른 군사 도발을 저질렀다. 또한 핵 실험을 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어도 우리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독일이 통일될 당시 동독과 다르다. (중략) 남북 교류 협력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핵 실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이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이하 생략)

(2007개정 6학년 사회교과서 115-116쪽)

2007개정과 2009개정 도덕과, 사회과 교과서 통일교육 내용은 교육과정 자체에 있는 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집필자가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교과서를 서술할 때 전통적인 통일교육의 입장으로 해석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 집필할 당시의 강경적인 대북노선은 견지한 정치적인 상황과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악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3.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글로벌 히스토리

2009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통일을 여전히 전통적인 입장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우월론에 입각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학습한 학생들의 통일의식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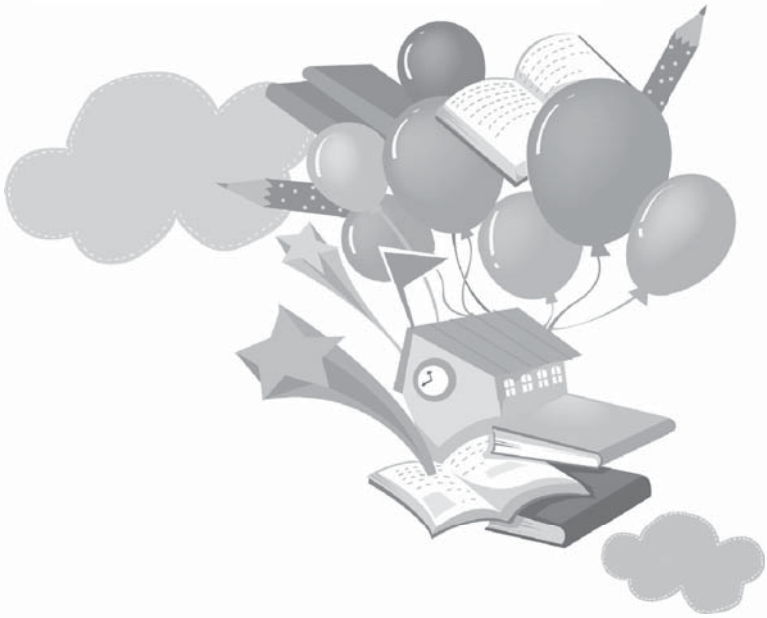
2) 통일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09개정 사회과 5-6학년 교과서는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연구학교에서 시험 중이다. 통일교육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을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회과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해봤을 때 분량의 축소와 통일교육 내용의 후퇴가 있음이 예상된다.

통일교육을 바라보는 큰 시각 자체를 전환할 시점에 놓여있다. 통일을 민족적 차원의 숙제가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원인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념간의 대립에 의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통일문제를 단순히 민족 간의 통합이라는 한계 속에서 생각한다면 역사의 발달단계에 따라 앞으로 분명히 찾아오게 될 지구 차원의 공동체 단계에서 분명 그 당위성을 잃게 될 것이다.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의 해체에 따른 자본주의의 대두로 자본의 논리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등과 같은 자본이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풍토에 대한 반성 운동의 영향으로 정의로운 지구 공동체 구성을 말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편적 역사의 진행단계로 볼 때 인류는 분명 지구 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남북은 이념간의 대립을 넘어 보편적인 가치 추구라는 큰 명제 하에서 대승적으로 통섭(consilience)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게 통일교육 내용도 변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전통적인 통일교육 이념인 민족주의, 민주주의, 평화주의에 입각한 내용이 아닌 글로벌 히스토리적 시각의 통일교육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인제남초등학교 교사, 춘천교대교육대학원 석사, 2009개정 5-6학년군 사회교과서 집필자, 강원초등통일교육연구회 회장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시작

김 신 명
디딤돌 교육 팀장

대학 졸업 무렵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고 나와 친구들은 취업 전쟁을 벌여야 했었다. 다행히 나는 졸업 직전에 학습물 출판사에 입사하여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월급은 적지만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사에 입사를 하니 뿌듯하기도 했다. 선생님을 만나 원고를 청탁하고, 들어온 원고를 검토하여 편집하고, 하판일에 맞추기 위해 막판에는 밤샘 작업도 해야 했다. 그래도 일을 하면서 편집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1학기 참고서를 만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2학기 참고서를 만들었다. 1학기 참고서 다음에 2학기 참고서. 그 다음에 다시 1학기 참고서... 6개월의 일정이 반복되기를 몇 년. 어느덧 나는 과장의 자리까지 올라오고, 더불어 월급도 오르고 후배 사원들도 여러 명 생겼다. 하지만 6개월의 일정이 반복되면서 나의 인생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뭔가 변화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새로운 업무를 찾아

2007년 말 ○○회사는 초등 국정교과서 발행권을 획득하여 들떠 있는 분위기였다. 교과서 발행권을 획득하면 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얻을 수 있고, 전국의 360만 명 초등학생들에게 배포할 교과서를 인쇄하게 되므로 엄청난 인쇄 물량을 수주한 것이고, 자사 발행 참고서에는 '교과서 발행 회사에서 만드는 참고서'라고 크게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지금도 큰 출판사들

은 교과서 발행권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발빠르게 교과서 개발팀을 꾸렸다. 국정 교과서 개발은 처음이지만 검정교과서를 다년간 개발했던 팀장을 주축으로 초등수학 개발자를 팀원으로 인사이동 시켰다. 입사 이후로 계속 나와 같이 일하던 후배들도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팀을 옮겼다. 교과서 개발팀은 ㅁㅁ동에 사무실이 있었고, 내가 속한 참고서 개발팀은 △△△에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메일이나 전화로만 소식을 듣곤 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팀장님께서 나와 또 다른 한 과장님을 회의실로 부르셨다. 교과서 팀에서 초등수학 교과서를 책임지고 끌고 갈 과장급의 사람을 요청하였기에 누군가가 교과서 개발팀으로 갔으면 한다는 것이다. 초등수학 교과서 담당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에 그 중에 한 명을 참고서 개발팀의 과장과 교체를 원했던 것이다. 같은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교과서 개발과 참고서 개발 프로세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교과서 개발팀이 근무하는 ㅁㅁ동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팀장님 마음대로 발령을 내지 못하시고 희망하는 자를 교과서 개발팀으로 보내시려고 며칠 간 고민할 시간을 주신 것이다. 여기서 잠깐 참고서 개발과 교과서 개발의 프로세스 차이를 설명하자면 참고서는 집필자들로부터 원고를 매절로 계약하여 받으면 그 다음부터 책으로 나올 때까지는 내부 편집 직원이 참고서 기획 의도에 맞게 문장과 문제를 모두 바꿀 수 있으며 집필자의 검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맞게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집필을 한 것이고 출판사는 원고를 그대로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디자인하고 편집을 하는 것이므로 출판사의 편집자가 맘대로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것이기에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집필 책임 교수님의 꼼꼼한 원고 검토,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심의회를 3~4번, 국립국어원의 어문 감수, 교육부 담당자의 최종 검토도 필요하다. 또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의 교과서인지 검토하기 위해 전국의 실험학교에서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국정 교과서 개발의 프로세스로 교육부, 집필자, 외주 업체를 관리하며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 개발자는 참고서 개발자보다 외부 네트워크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긴 시간동안 지루한 업무의 연속에서 변화를 찾던 나는 팀장님을 찾아가 교과서 개발팀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팀장님께서는 내가 교과서 개발팀으로 가려는 뜻을 흔쾌히 받아 주셨으며 10일 정도 참고서 개발팀에서 업무를 마무리 하고 2008년 5월 초에 교과서 개발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 교과서 개발팀에 첫 출근

5월 6일. 드디어 ㅁㅁ동 교과서 개발팀으로 첫 번째 출근을 했다. 집이 먼 관계로 출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기대감과 오랜만에 같이 일했던 후배들을 본다는 기쁨으로 출근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후배인 교과서 담당자를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그 동안 살았던 얘기도 하고 업무를 넘겨받기 위해 회의실로 갔다. 출판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면 주로 교정지, 일정표, 외주처 연락처 등을 주며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늘 해 왔던 일이니까 복잡한 설명이 없어도 다 알아듣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서가 아닌 국정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인수인계인데 30분 만에 끝

이 났다. 이게 전부일까? 처음 하는 일이라 업무 프로세스도 적응이 안 됐는데 끝이란다. 그렇게 교과서 담당자는 인수인계를 끝내고 내가 일했던 참고서 개발팀으로 떠났다. 물론 궁금한 것은 전화로 물어보면 되겠지만... 아무리 아끼던 후배였지만 일을 이렇게 주고 떠나버리니 서운한 감정만 남게 되었다. 그래도 교과서 개발팀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하는 생각을 하니 이해가 되기도 했다. 이제 내가 초등수학 국정 교과서 개발을 끌고 가야 한다. 또 다른 담당자도 같이 일했던 후배이니 이 후배한테도 이것저것 물어보면 될 것이다. 초등수학 교과서 담당자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었다. 출판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사원이 2명이었기에 가르치면서 일을 해야 했다. 초등수학 교과서 개발의 최고 선임자가 된 나는 먼저 그 동안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담당자들이 힘들어 했는지 파악해야 했다. 팀장님은 중·고등 교과서 개발에 힘을 쏟느라 초등 교과서 개발에는 관심이 덜 했고, 같은 나이, 같은 직급의 담당자 2명이 초등 교과서 개발을 이끄니 상하 관계가 없어 업무 지시가 서로 힘들었고, 의견이 안 맞아 서로 고집을 부리면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담당자들의 경력과 나이가 많지 않아 교육부 담당자, 집필 교수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도 힘들어했다. 이제는 내가 담당을 하였기에 상하 관계가 명확해졌고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의논하여 해결 방안을 지시하고 나머지 담당자들은 그대로 따르면서 내부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교육부 담당자와 집필 교수님들께 연락하는 것도 나의 몫이었다. 첫 번째 개발 업무는 '실험용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1, 2학년 1학기 실험용 교과서는 이미 실험학교에 배포가 되어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이제는 1, 2학년 2학기 실험용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1차 심의회는 이미 끝났기에 교과서의 기본적인 조판은 끝난 상태지만 삽화를 발주해서 넣어야 하고 심의회에서 나온 수정사항을 수정해서 2차 심의회를 위한 심의본을 준비해야 했다. 심의회 2주일 전에는 하판을 해서 10일 전에는 심의진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배송해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용을 검토하시고 심의회에서 다시 수정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한 나는 책꽂이 한쪽에 지도서 교정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입력한 상태로 있어서 오탈자는 물론이고, 원고가 넘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원고가 없는 코너도 있었다. 하판 일주일 전에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인가? 지도서는 글씨도 작고 300여 쪽이라 일주일 동안 이것을 완벽하게 교정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판 일주일을 앞두고 지도서 교정을 보기 시작했다. 절대적으로 분량이 많아 꼼꼼한 교정은 불가능했고 심의회를 위한 하판이므로 디자인의 틀을 잡는 데 주력했다. 원고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집필하신 부분이므로 일단은 편집자가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심의회를 거쳐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수정 제안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원고가 없는 코너였다. 담당자들에게 왜 원고가 없냐고 물었더니 집필자에게 써 달라고 해도 빨리 안 온다는 것이었다. 집필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연락도 힘들고 원고도 잘 안 오고, 담당자들의 나이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들이라 강력한 재촉도 어렵다고 했다. 일단하판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없는 부분의 원고를 써 달라고 부탁드려도 입력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중간중간이 비어 있는 상태로 하판을 하였다. 심의본이 나오자마자 심

의진 선생님들께 보내드렸으며 한 권을 단원별로 모두 쪼갰다. 지도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넘치는 부분과 원고가 없는 부분마다 포스트 잇을 붙여 넘치는 부분에는 줄여달라고, 원고가 없는 부분은 채워 달라고 메모를 했다. 교수님들께 정성스럽게 편지도 썼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과서 개발을 담당하는 김신명입니다. ~~~ ○월 ○일까지 원고를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신명 올림."

편지와 지도서를 동봉하여 교수님들께 부치며 전화로 다시 꼭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보내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부탁드린 후 며칠 후에 원고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성스런 편지와 전화가 통한 것일까? 보내드린 지도서에 원고를 붙여서 보내신 교수님도 계시고 메일로 보내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원고를 집필하시느라 고생하신 교수님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후에는 교과서 원고를 책임 교수님께 제출하고 교수님께서 검토하신 후 출판사에 넘기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원활하게 교과서 개발이 진행되었다.

▶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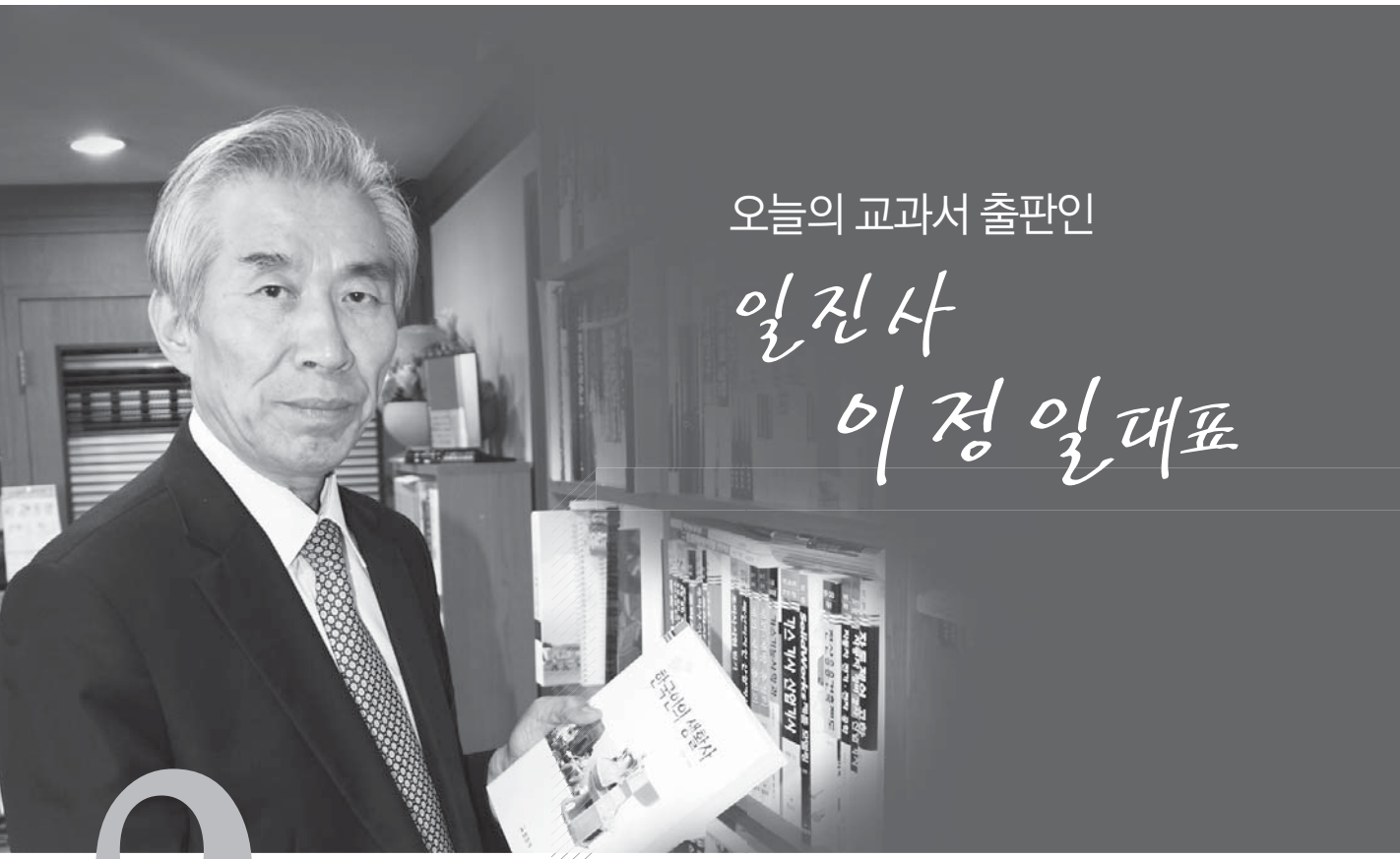
내가 교과서 개발을 마친 지 2년이 넘었다. 뒤돌아보면 출판사에 들어와서 내세울 수 있는 경력 중에서 최고는 초등수학 국정교과서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서는 구매하는 일부 학생들만 사용하지만 국정교과서는 나의 두 자녀, 조카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사용한 것이라 뿌듯하게 느껴진다. 국정교과서 맨 뒤 판권에는 교과서 개발에 관여한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 편집진 등의 이름이 실려 있다. 우리 애들도 학교에 가면 아빠가 만든 책이라고 자랑을 하는 것 같다.

모든 제품이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교과서는 여러 기관의 사람이 만드는 책인만큼 만드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편찬기관, 출판사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잘 한다고 좋은 책이 나올 리 없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편찬기관은 교육과정에 맞게 집필하고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출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과서의 품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좋은 교과서가 나오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과서 개발에 힘쏟고 계신 교육부 담당자, 집필 교수님, 편집 담당자 모두 한국의 미래를 위해 힘내세요!.

필자소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초등수학 교과서 개발의 편집 부문을 진행하였으며 교학사, 두산동아를 거쳐 현재는 디딤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일진사 이정일대표

Q&A

▶ **'일진사'하면 과학기술분야 전문 출판사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업 초창기부터 기계·전기·전자·정보공학 등 과학 기술 분야 이론서를 집중적으로 출판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6년간 일진사는 공업·건축·토목·환경·설비 등 1,400여 종에 이르는 전문도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각종 기능사, 기사·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자격에 관련한 검정 수험서를 다수 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역군을 양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야생식물>을 비롯해 자연생태 시리즈 등 여러 권의 환경 관련 도감과 단행본은 환경부 우수 환경도서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도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근래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순수과학 콘텐츠를 소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렇다고 과학기술 분야 책만 출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예신북스'를 설립해 요리 및 생활실용 분야 도서를 꾸준히 선보이는 중입니다. 2012년부터는 '유아이북스'를 통해 자기계발 및 경제경영, 심리 분야의 일반 단행본도 내놓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출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판 경영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교과서 전문 편집인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판사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뚝심과 신뢰인 것 같습니다.

출판은 경영학적 수치로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신에 대한 믿음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뚝심입니다. 조금은 어눌하고 미련한 느낌의 단어이지만 무엇이라고 부르던 굳세게 버티거나 감내하는 태도는 출판업자라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신뢰입니다.

소비자는 물론 저자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라는 게 없다면 오랜 기간 사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와 사원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좋은 책을 꾸준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교과서 편집에만 특화된 사람을 뽑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기획 시기에 맞춰 이벤트 식으로 인력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인력들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진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책을 만들면서 자연스레 각자 분야에 대한 편집 노하우가 쌓입니다. 다른 어떤 출판 분야보다 복잡한 형태의 편집을 접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과서 기획 단계가 되면 교과서를 편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들로만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우리 회사의 특성을 살린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부서가 합심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 교과서 발행사 대표로서 힘든 점, 보람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교과서 없는 나라가 없고, 교과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어떤 민족이나 사회 집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교육의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교과서 부문의 수익성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그대로입니다. 아마도 이런 자부심은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서일 겁니다.

교과서 발행사 대표로서 힘든 점은 이 자부심에 결부되는 부담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투자금이 들지만 교과서 인가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 채택을 받아야 조금이나마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교과서 채택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사마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은 그래도 보람을 갖고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진사는 <출판기획원론>, <출판문화산업의 이해>, <출판 커뮤니케이션론> 등 출판 문화산업 전반을 다룬 책이나 교과서 전반을 조망한 책들을 여러 권 출판했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허강 교수의 <한국의 교육과정 교과서사 연표>를 비롯해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교과서 출판의 진실>, <한국의 교과서 평설> 등은 특히 교과서 출판 분야를 집중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런 책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학생 스스로에게 필요한 학습 분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좋은 교과서의 가장 기본요소라고 봅니다. 이 밖에 교사 입장에선 가르치기 편리하면서 교과 교육 목표의 특성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교과서 출판을 분석한 저희 책 중에 '(교과서는) 산 지식을 감동적인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말에 모든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라면 습득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게 무척 중요하지요. 이러한 교과서가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교육의 질은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미래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향후 교과서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학습을 유도하는 교과서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한국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가 세계 19개국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2009 디지털읽기 소양평가(DRA)' 결과에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한국은 공동 2위인 뉴질랜드와 호주보다 큰 간격을 벌이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문제를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일진사는 디지털 매체와 친숙한 현대의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학습 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수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콘텐츠의 질만 제대로 갖춘다면 변화의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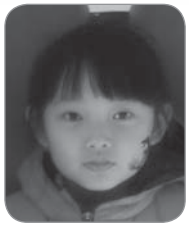
▶ 일진사가 교육 출판계에서 나아갈 비전(또는 향후 계획)을 말씀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를 등한시하며 융합이나 인문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교육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기술력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 발전의 척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진사는 교육 출판계에서도 전문 출판의 특성을 살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부 금상

질했어. 교과서



이 연 우
부천 부곡초등학교

여러분은 혹시 '웰던 수학책'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아침 먹을 때 지식채널을 자주 보는데 거기서 '디디에와 축구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축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웰던 수학책은 우리나라 디자이너, 선생님 14명이 만든 아프리카 수학 교과서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 하고 계속 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나 있는 수학을 재미있는 이 교과서를 통해 아프리카 친구들이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이 보시던 아빠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웰던 수학책에 대해 더 알려 주셨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로 처음 계획하신 조동희 아저씨는

"기니 아이들이 벨기에로 밀항하다 얼어 죽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쓴 편지에서 학교가 있어도 선생님이랑 책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디자이너들이니까 책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데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수학책을 만들어 드디어 올해 탄자니아에 400권을 들고 아이들을 찾아 갔답니다. 저는 아빠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친구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반 아이들과 내가 교과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실은 화나면 막 교과서를 던지는 아이도 있고 방학만 되면 새 책 같은 교과서를 쓰레기통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처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과서가 없으면 1년 동안 공부를 못해서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친구들은 이런 교과서가 없어서 학교를 가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니….

아빠는 저에게 용돈으로 이 웰던 수학책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싫었지만 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면 아프리카 친구들이 웰던 수학책으로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빠도 한 권 사셔서 우리 가족은 웰던 수학책을 두 권 샀습니다. 책이 도착한 날 아빠는

"웰던은 '잘했어'라는 뜻이니까 두 권이나 산 우리 가족은 '잘했어 가족'인가?"

라며 웃으셨습니다. 웰던 수학책을 보니 첫 장부터 웃음이 '풋' 하고 터졌습니다. 난 4학년이라 혼합계산, 나눗셈 등 어려운 걸 배우는 데 이 책은 1~9까지 배우고 똥의 무게를 비교하는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말대로 이 책을 두 권 산 우리 가족은 '잘했어 가족'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나눔교실'이 열려 참가했는데 한국국제협력단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전 웰던 수학책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국제협력단은 라오스에 있는 4만 명의 학생에게 교과서를 보급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대요. 저는 꿈이 의사, 과학자, 디자이너 등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웰던 수학책처럼 재미있는 과학책, 미술책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과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나라도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를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웰던 수학책으로 공부하는 탄자니아 친구들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교과서로 공부하는 라오스 친구들도 이제 저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저는 새 교과서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웰던 수학책과 라오스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실의 모든 교과서가 웰던 교과서 '잘했어. 우리 교과서'가 될 거예요.

초등학교부 은상

내가 느낀 경복궁

신 재 하
서울 용마초등학교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은 서울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나도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과 다른 기회를 통해 몇 차례 갔었다.

경복궁은 갈 때마다 내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큰 궁궐이었고 큰 광장 같은 것이 있어서 뛰어다니며 좋아했던 기억이다. 부모님이 근정전이 무엇이고 강녕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었다.

두 번째 경복궁에 갔던 것은 야간이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없이 있었다. 빛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경복궁을 사진으로 담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그 이후 두세 차례 더 갔을 때는 고학년이 된 후였다. 해설사 선생님들을 따라 다니며 설명을 듣거나 경복궁 앱을 통해서 각 장소의 설명을 들으며 다녔다. 처음에 갈 때보다 더 많은 경복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다.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려웠고, 알게 된 것이 나중에 잘 기억나지 않았고, 어느 장소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고 경복궁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지도 몰랐다. 경복궁을 여러 번 갔었지만 경복궁은 평면적이고 부분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졌다.

그런 중에 경복궁을 입체적이고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 사회, 한국사를 배우는 5학년 사회 교과서! 1학기에는 우리 나라의 선사시대와 조선시대까지 내용을 배웠다. 경복궁은 3단원 '조선의 건국과 한양'에서 다루고 있었다.

교과서 학습을 통해 그 동안 직접 다니며 보고 밟았던 경복궁의 여러 건물의 뜻과 쓰임새를 알게 되었다. 경복궁은 '왕과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릴 큰 복을 빈다'는 뜻이고,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바른 정치를 하자'는 뜻의 '정문'이었으나 세종 때부터 광화문으로 부르게 되었다. 근정전은 임금의 즉위식, 탄신 기념 행사 등 큰 의식이 치러졌던 곳으로 '정치를 부지런히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정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의논하여 하루 일과를 보내

던 곳이다. 왕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여 좋은 정치를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강녕전은 임금이 쉬고 잠을 자는 곳이다. 교태전은 왕비가 머무는 곳이다. 경회루는 연못 속에 세운 2층 누각으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향원정은 연못과 정자가 있는 임금의 휴식처이다. 이렇게 경복궁은 조선의 근본 사상인 유교에서 왕이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교과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경복궁을 배우지 않았다면 경복궁은 내 머리 속에서 여러 조각으로 떠돌아 다녔을 것이다.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회 교과서는 전국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에게 역사를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게 하는 친구이자 선생님이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경복궁을 볼 기회가 많지 않고, 나는 경주나 부여 등에 있는 유적지를 갈 상황이 많지 않기에 우리 역사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교과서를 통해서 선사시대를 배우고, 삼국시대를 여행하고, 고려와 조선을 탐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현장감 있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바로 사회 교과서를 통해서다.

초등학교부 동상

국어는 내 친구

이 시 현
인천 동명초등학교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과서'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시험기간이면 지겹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만 하는 대상으로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국어 교과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곳곳에 감동도 숨어 있고, 지니지 못한 능력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것 같다.

국어 교과서는 특별하게도 발표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도 한다.

단원 처음에는 발표자료를 작성하는 방법과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 나오고, 단원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직접 발표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그렇게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나서 반 친구들의 앞에서 발표하면 그 단원의 내용이 머리에 쏙속 들어온다.

뉴스에 대하여 배우는 단원에서는 모둠별로 뉴스를 만들어 발표했었는데, 그 때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간혹 국어교과서를 보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태까지 몰랐던 고유어, 한자어, 외국어의 뜻을 알게 되었고, 아름다운 우리말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다.

작년에 우리 반에서는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외워서 친구들의 앞에서 발표해 보는 수업이 있었다.

우리들이 외었던 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였는데 처음 그 시를 읽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난다.

온통 아름다운 말들이었지만 왠지 슬프게도 느껴지는 이 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가 되어버렸다.

또 한가지, 6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린 소설 '소나기'는 산골 소년의 순수하고 슬펐던 소녀에 대한 사랑이 생각나서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었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들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생각이 풍요로워 지며,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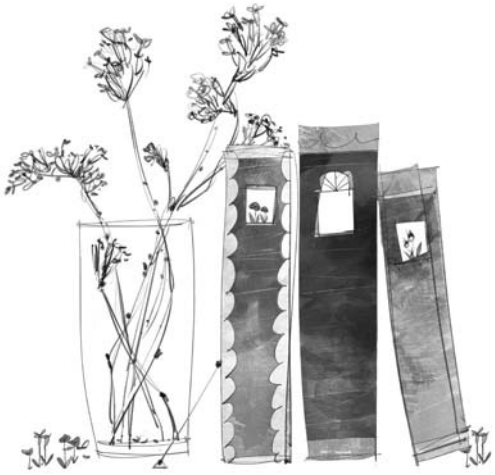
새로운 학년과 학기가 되면 언제나 받게 되는 새 교과서들이 나는 정말 좋다.

책을 펼치면 솔솔 풍겨오는 새 책의 냄새와 빳빳한 새 종이의 느낌이 앞으로의 학교생활의 기대와 함께 설레임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며,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바른 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좋은 교과서는 내 삶의 바른 방향을 알려 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도 해 주지 않을까?

내가 특히 좋아하는 국어 교과서……. 아름답고 희망찬 글로 넘실대는 소중한 책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작품 <심사평>

심사위원장 **박 정 규**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전이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나무도 십년을 자라면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당당한 모습을 갖추기 마련이다. 그 세월 동안 적지 않았을 어려움에도 본 공모전을 돌보며 키워 온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그 십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십년을 향해 발걸음을 내 디딘 본 공모전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번 11회에서는 중학교부의 경우는 응모작품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상작품의 질이 알찼던 것은 본 공모전이 확고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위상에 도달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초등학교부나 고등학교부, 일반부의 수준도 예년에 비해 상향되어지는 경향이었다.

심사 기준은 지난해와 같이 본 공모전에서 제시한 주제의 활용성과 내용의 창의성, 그리고 문장의 표현력 등을 중심으로 삼았다. 또한 1차 심사에서 수상작의 3배수에 해당하는 작품을 선정하고 2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작품의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또한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는 응모작 수가 중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고등학교부의 수상자 수를 두 명 더 늘리는 대신 중학교부는 두 명을 줄이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글쓰기란 무엇인가?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좋은 글쓰기를 위한 출발점인 동시에 좋은 글을 가려내는 눈금자이기도하다.

글쓰기란 글 쓰는 이의 속에 있는 생각을 글자를 통해 표현해 내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글 쓰는 이의 속에 있는 생각은 글의 내용을 이루게 되고 글 쓰는 이가 표현하는 방법은 글의 형식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깊이 있고 잘 다듬어진 생각은 글의 내용을 이룰 좋은 재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깊이 있고 잘 다듬어진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평소 사물이나 어떤 사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관찰하고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고, 독서를 통하여 보다 높은 정신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의 형식을 이룬다는, 그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서법을 알아야 함은 기본이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글의 형식(시, 소

설, 희곡, 수필 등의 장르)을 선택하는 일,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어휘의 선택, 수사법을 이용한 문장 구성 등을 성공적으로 해 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표현의 방법들 또한 짧은 시간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꾸준히 글쓰기를 해야만 습득이 가능한 것이다. 좋은 글이란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룬 글을 말한다. 단시간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 표현기교에 치우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내용이 빈약하고 표현기교만 화려한 글은 천박해지기 쉽고, 표현이 서툰 글은 좋은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오랜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부에서 금상을 받은 이연우의 작품 '잘했어. 교과서'는 형편이 어려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의 독지가들이 만든 교과서 이야기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처지에 관심을 갖고 글감을 잡았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표현에 기교가 없고 소박했던 것이 글쓴이의 진정성을 담아내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철자법이 틀린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글을 쓰고 나서 다시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기 바란다. 신재하의 '내가 느낀 경복궁'이나 이시현의 '국어는 내 친구'는 내용이나 표현이 모두 뛰어난 작품이었다.

장누리, 김여빈 어린이도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소질을 보여주었다. 다만 글감의 선택에서 예년에 많이 다루어졌던 흔한 것을 변화를 주지 않고 가져다 썼다는 흠이 있었다.

중학교부에서 금상을 받은 최현지의 작품 '나의 미래! 교과서에 길을 묻다'는 교과서만을 가지고 학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어찌 보면 평범하고 흔한 글감을 가지고 쓴 글이다. 그러나 부자간의 따뜻한 사랑을 녹여 넣고 교과서의 시를 적절히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글감의 진부함을 벗어나 좋은 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 작품의 또 다른 장점이었다. 고윤혜의 작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는 제목을 보는 순간 '중학생으로서 과연 저 제목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었다. 그런데 고윤혜 학생은 교과서 속의 시작품들을 통해 위로 받고 격려 받는 과정을 무리 없이 잘 그려냈다. 그러나 좀 더 간결한 내용과 절제된 표현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김원섭의 작품 '공부 잘하는 법-교과서? 교과서!'는 역시 '교과서로만 공부하여 좋은 성과 내기'라는 흔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나름의 문장력이 이 흔한 글감의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꾸준한 정진을 바란다.

고등학교부에서 금상을 받은 장지호의 작품 '기억의 저편'은 교과서에 실린 시작품을 통해 평소 필자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돌아가신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꾸밈없는 소박한 문장으로 할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찬찬히 풀어나가는 점이 좋았다. 또 외할머니에 대한 화자의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것도 이 글의 장점 중 하나이다. 정은서의 작품 '눈사람 만들기'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교과서를 통한 학습활동이 눈사람 만들기에 비유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야기가 다소 도식적이었던 점이 조금 아쉽다. 문송현의 작품 '교과서에서 꿈을 찾자'는 교과서의 문학작품을 공부하면서 문학에 대해 관심과 진로의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간결한 문체로 차근차근 그려내고 있다.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문장은 장점이었으나 이야기의 전개가 다소 평이했던 점이 조금은 아쉬웠다. 전영민, 이도이, 송하나, 이상원의 작품들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꾸준한 정진을 바란다.

일반부의 윤성훈 씨의 작품 '몰랐던 나를 발견해준 교과서'는 적절한 어휘의 선택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풀어가는 능숙함에서 많은 글을 써본 사람의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글은 교과서, 특히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문학작품들을 통해 필자가 받았던 영향들을 구체적이면서도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필수적 요소 중의 하나를 갖춘 글이다. 김경인 씨의 작품 '두 번째 선생님, 교과서'는 야학에 나오시던 어떤 할머니가 교과서를 통해 한글을 해독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내용을 그려내고 있다. 할머니의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정을 잘 담아내고 있는 수작이었다. 이만희 씨의 작품 '점자는 희망이다'는 안맹이라는 남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특수교과서를 통해 모교의 교사가 되는 꿈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문장이 내용의 감동을 온전히 실을 만큼 좀 더 세련되어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백송자, 이승연 씨의 작품도 많은 장점을 가진 글이었다.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해 냄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으므로 자기 성찰과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나'를 성숙시키는 지름길이다. 수필 공모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계속 글쓰기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소개]

심사위원장 **박 정 규**
- 소설가
- 문학박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역임
- 한국작가교수회의 회장 역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정년 퇴임
-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심사위원 **박 두 순**
- 시인, 동시작가
- 〈아동문학평론〉 〈자유문학〉에 시와 동시 신인상 당선
- 동시집 〈나도 별이다〉 〈들꽃〉 등 11권과 시집 〈행복강의〉 등 2권
- 대한민국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월간문학 동리상 등 수상
- 초 · 중등 국어교과서에 시, 동시 등 6편 실림
- 현재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및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심사위원 **홍 영 숙**
- 동화작가, 시인, 수필가
- 문학 석사
- 동화집 〈난다꼬꼬 아저씨〉, 수필집 〈생의 간이역에서〉, 시집 〈그리운 날들의 노래〉
- 세계 동화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사계수필 회원, (사)아동문예작가회 회원
- 현재 서울용마초등학교 교사

심사위원 **김 정 화**
- 1986~2003 대진고등학교 국어교사
- 2004~2010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 2011~2013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교감
- 현재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교육연구관

http://library.textbook.ac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협약 체결 기관은
교과서 원문 DB 이용가능!"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정보관

교과서 원문 이용안내

메인페이지 원문검색 안내

Screen description

① **페이지 주소창** - http://library.textbook.ac/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② **도서관 협약유무 확인** - 협약도서관이 아니면 이용하실 수 없으며, 홈페이지 우측 협약도서관 안내를 통해 원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③ **원문검색** - 원문만 검색결과에서 보고 싶은 경우 메인페이지에서 원문검색탭을 클릭하여 활성화 진행 후 검색(또는 소장자료 검색란의 원문 검색 클릭 후 검색).

④ **검색어 입력** - 원하는 교과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한다. (ex. 국어, 검정, 6차교육과정 등)

검색결과 간략화면 안내

Screen description

① **간략검색 결과** - 검색조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보여지는 간략검색 결과 화면. 원문이나 목차 등의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음.

② **원문 아이콘** - 원문이 존재하는 서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도서의 원문을 볼 수 있음.

③ **검색결과 제한(Facet)** - 키워드 등을 통한 검색결과에서 출판사, 발행년도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하여 볼 수 있음.

검색결과 상세화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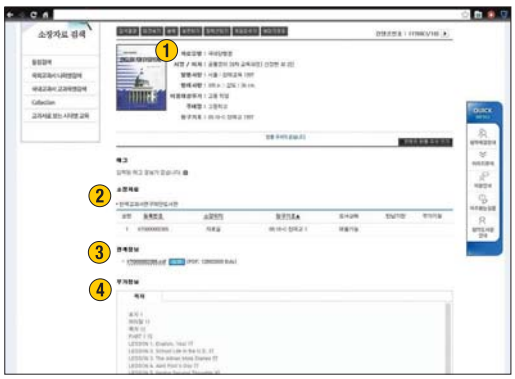
Screen description

① **상세검색 결과** - 간략검색에서 선택한 서지의 상세내용이 보여지는 화면. 해당 서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② **소장 정보** - 해당 서지의 소장자료 정보 확인. 등록번호, 소장위치와 인쇄도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③ **관계정보** - 해당 서지에 연결된 관리정보를 보는 화면. 원문을 볼 수 있다. 파일명을 클릭하면 원문이 열림.

④ **부가정보** - 목차, 초록 등의 부가정보를 보여준다.



원문이용시 이용요금 확인

Screen description

① **열람이용요금 확인** - 원문 클릭시 저작권법 안내를 포함한 열람시 발생하는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 및 확인.

② **열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의 안내를 받고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 클릭하여 원문을 열람.

③ **닫기**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의 안내를 받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클릭하여 닫음.

원문뷰어 이용

Screen description

① **인쇄** - 원문을 프린터로 출력. 출력시에 발생하는 과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음.

② **창크기에 맞추기** - 원문뷰어의 창크기에 맞춰서 원문 크기를 조정.

③ **창너비에 맞추기** - 원문뷰어의 창너비에 맞춰서 원문 크기를 조정.

④ **100% 크기로** - 원문이 구축된 100% 사이즈로 원문 크기를 조정.

⑤ **원문크기 콤보박스** - 창크기, 창넓이, 15%, 25%, 33%에서 300% 까지 대표적인 원문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

⑥ **크기조절 버튼** - +/- 로 원문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

⑦ **페이지 미리보기** - 페이지 별로 미리보기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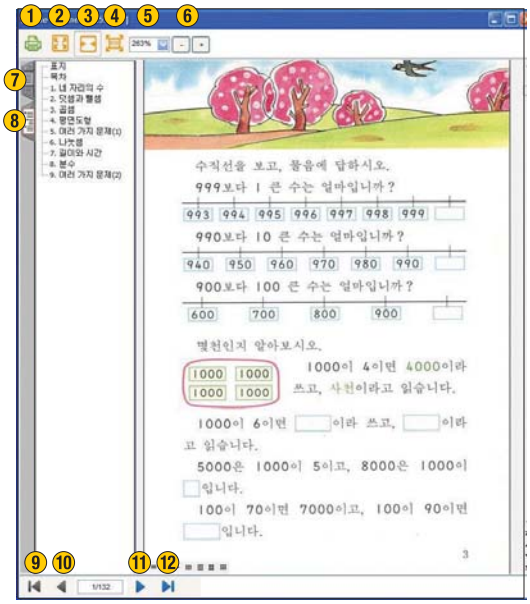
⑧ **목차보기(기본값)** - 원문뷰어 오픈시 기본화면으로 목차를 보여줌.

⑨ **처음으로** - 원문의 첫 페이지로 이동

⑩ **이전페이지** - 현재페이지의 이전페이지로 이동

⑪ **다음페이지** - 현재페이지의 다음페이지로 이동

⑫ **마지막으로** - 원문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원문 협약 체결 안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구축한 원문DB를 이용하기 위한 협약 절차 안내입니다.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2013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의 원문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6차,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3,350권) 원문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대 상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자료실), 학교도서관 등

협약 절차 안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 체결
○ 협약 완료 후 재단으로 이메일 통보 또는 협약관련 담당자에게 전화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유순기, 02-6206-6357, editor@textbook.ac)
○ 공문서에 의한 협정방식 담당자에게 협약서 전송 요청
○ 우리 재단과 협약 완료 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회원으로 가입
○ 이메일을 통해 재단 담당자로부터 관리자 프로그램 권한 부여 받음
○ 도서관 정보, IP정보 등을 확인 후 이용 허락

참 고

○ 고정 IP 또는 유동IP 등 기관의 네트워크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
○ 도서관 보상금 과금을 위한 뷰어 및 프로그램 설치(내려 받기)
  - 저작권 있는 원문DB 이용 및 정산
  - 개인납을 사용하는 기관은 자체 프린터 기기 및 과금장치업체와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함
○ 협약체결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수원박물관, 신라대학교, 목원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한국스포츠개발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 ·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여름 · 겨울방학 중에 교과서 개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년도 특수 분야 연수 기관 지정(서울교육 2014-482)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 ·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안함)
○ 교과과정 : 교과서 정책 · 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비 고
제 1 기	2014. 7. 28 ~ 8. 1	10:00~17:00	40	
제 2 기	2014. 8. 4 ~ 8. 8	10:00~17:00	40	
제 3 기	2015. 1. 5 ~ 1. 9	10:00~17:00	40	현재 모집중
제 4 기	2015. 1. 12 ~ 1. 16	10:00~17:00	40	현재 모집중

□ 신청 방법

○ 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2651-1982)로 접수

○ 연수비 납부
- 연수비 : 7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선종근)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10일 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과서 개별구입안내

2014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입처	전화번호
국정	초등	• 국어(국어활동, 듣기 · 말하기 · 읽기, 쓰기 포함) • 과학(실험관찰 포함)	㈜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 수학(수학익힘책 포함) •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포함) • 도덕(생활의길잡이 포함)	㈜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통합과목(학교, 봄, 가족, 여름, 나, 이웃, 가을, 겨울, 우리나라)	㈜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고등	• 체육계, 수산 · 해운계	㈜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외국어계	㈜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가사 · 실업계	㈜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검 · 인정	초등 중등 고등	• 위 교과서 이외의 검 · 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일부 제외)	(사)한국검인정교과서 www.ktbook.com	02-3663-5409~12

□ 서울지역 직매장

(사)한국검인정교과서 직매장 – 검 · 인정교과서 전문매장(일부 인정도서 제외)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7길 3 (당산동6가) 다옥빌딩 별관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사이 골목 30m지점 (동양생명 2층)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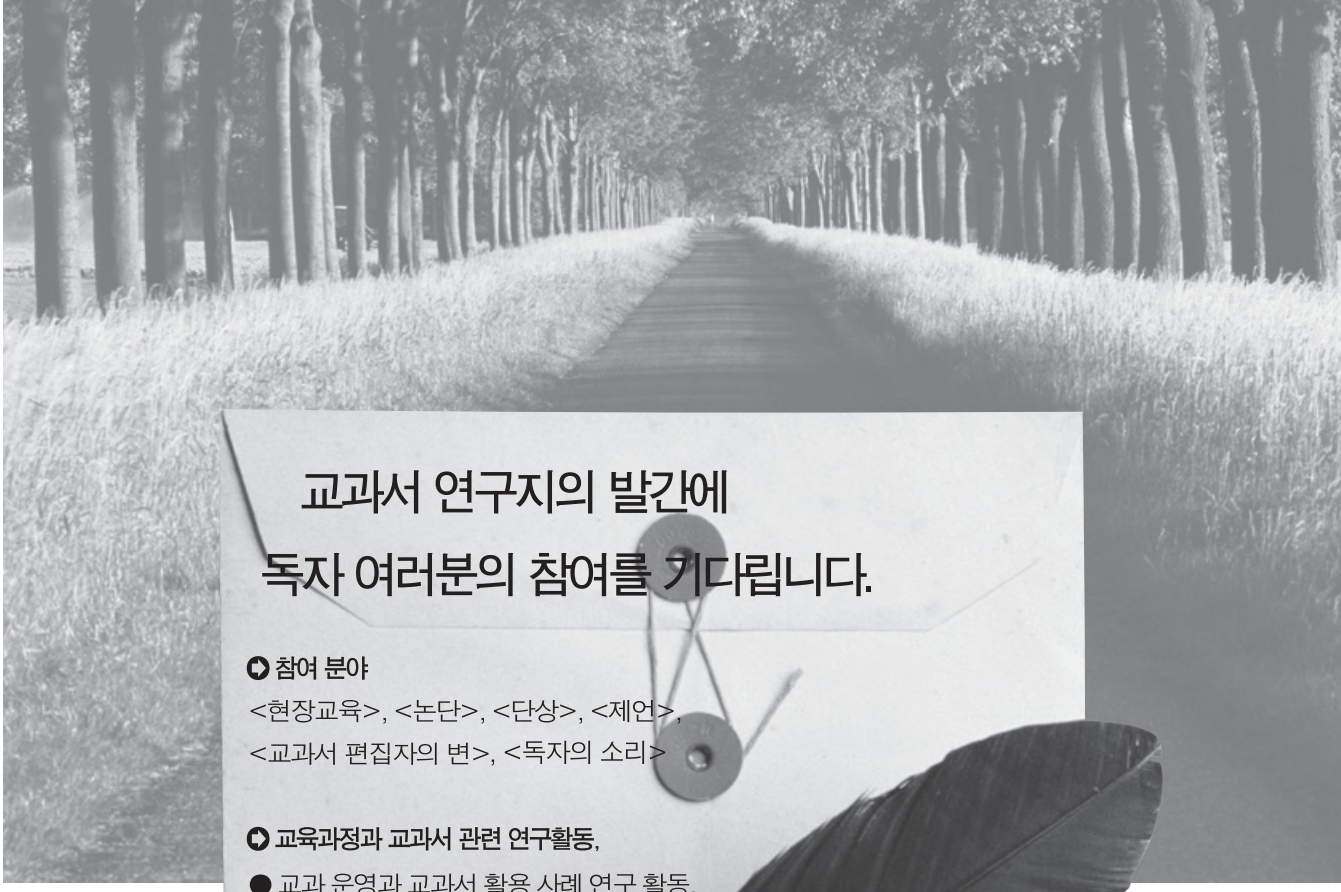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역별		상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광화문)	02-397-3551~2	국·검·인정
	서초구	교보문고(강남)	02-503-0313	국정
	송파구	교보문고(잠실)	02-2140-8821	국정
	양천구	교보문고(목동)	02-2062-8801	국정
	영등포구	교보문고(영등포)	02-2678-3501	국정
	종로구	영풍문고(종로)	02- 399-5625	국·검·인정
	성북구	영풍문고(미아)	02-2117-2880	국정
	영등포구	영풍문고(영등포)	02-6137-5254	국정
	동대문구	영풍문고(청량리)	02-3707-1860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938-1065	국정
	서초구	서울문고(센트럴점)	02-530-0718	국·검·인정
	강남구	서울문고(코엑스점)	02-556-6002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477-8600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2-995-5206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인정
	구로구	㈜리브로(구로점)	070-4726-2841	국·검·인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 967-3838	검·인정
	용산구	㈜대교문고	070-4619-5225	국·검·인정
	노원구	㈜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국·검·인정
	강동구	동북문고	02-477-8200	국·검·인정
	관악구	㈜북션커뮤니케이션	070-4700-1975	국정
	중랑구	관악도서	02-2207-7802	국정
부산	금정구	영풍문고	051-590-8300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	051-806-3501	국정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 816-9500	국·검·인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 204-0465	국·검·인정
	사하구	예림서적	051- 203-3383	검·인정
	중구	남포문고	051- 245-8911	검·인정
	중구	문우당서점	051-241-5555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313-1718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703-0708	국정
대구	중구	영풍문고	053-428-6700	국정
	수성구	㈜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423-0517~19	국·검·인정
인천	중구	(주)대한서림	032-764-7337	국·검·인정
	부평구	부평문고	032-529-0077	국정
광주	서구	영풍문고	062-364-0210	국정
	동구	종합도서	062-222-4354	국·검·인정
대전	중구	㈜계룡문고	042- 222-4600	국·검·인정
	서구	세이북스	042-611-8061	국정

지역별		상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경기	수원	㈜경기서적	031-248-6300	국·검·인정
	의정부	숭문당	031-846-2666	국·검·인정
	안산	대동서적(주)	031-406-6666	국·검·인정
	부천	㈜경인문고	032-613-2197	국·검·인정
	구리	동원서적	031-563-4621	국·검·인정
	일산	정글북	031-922-5000	국·검·인정
	평택	평택문고	031-651-9204	국정
	분당	리브로	070-4726-2857	국정
	광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안양	교보문고	031-466-3501	국정
	용인	수지문고	031-265-4031	국정
	성남	중원문고	031-736-2600	국정
	수원	영풍문고	031-267-5555	국정
	시흥	한가람문고	031-404-0161	국정
	화성	더북스삼성	031-8015-4451	국정
	성남	공손서점	031-703-7279	국정
	김포	열린문고	031-982-2007	국정
강원	춘천	교학사	033-244-0044	국·검·인정
	동해	제일서점	033-521-3131	국정
충북	청주	유신상사	043-252-5945	국·검·인정
	충주	이학사	043-847-3493	국정
충남	천안	열린문고	041-573-0827	검·인정
	천안	천안서적	041-576-1545	검·인정
	천안	국민도서	041-558-0004	국정
전북	전주	홍지서림	063- 288-5311	국·검·인정
전남	순천	중앙서림	061-723-9902	국·검·인정
	목포	책사랑문고	061-279-2504	국정
경북	포항	학원사	054-249-3396	국·검·인정
	경산	성암교재사	053-811-8222	국정
	경주	현대서점	054-742-4885	국정
경남	창원	그랜드문고	055-283-2848	검·인정
	창원	창원서적	055-282-1544	국정
	김해	근비도서	055-343-7894	국정
	마산	영풍문고	055-240-5690	국정
	진주	대양서적	055-741-2835	국정
제주	제주	탐라도서(주)	064-755-3335	검·인정
	제주	현대서점	064-748-1177	국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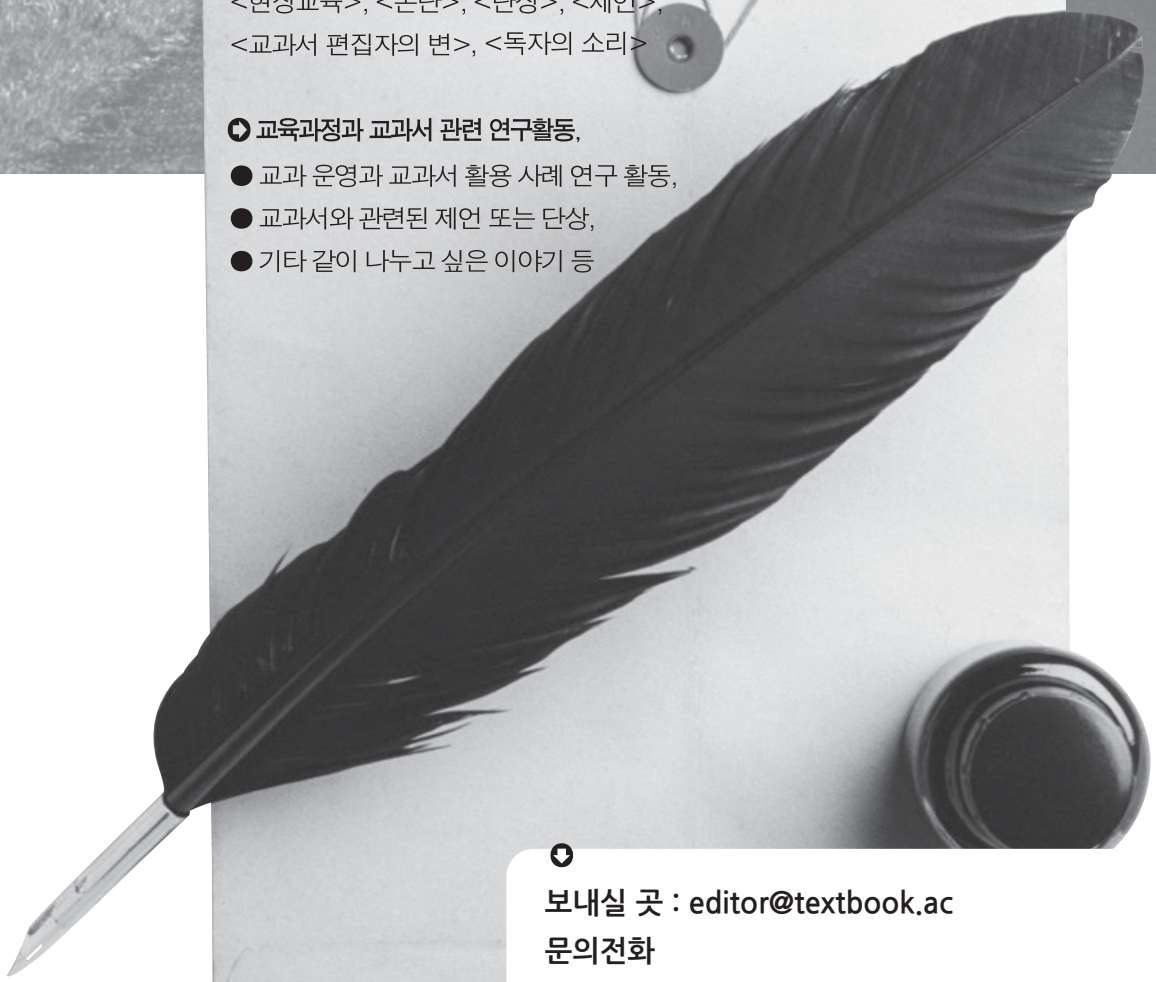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textbook.ac

문의전화

02-6206-6357 「교과서연구」 담당자 유순기

모두가 1등이 되는 세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독도에 코끼리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괭이갈매기를 매일 업어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1948년
교과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2014년
교육, 출판 및 국내외 인쇄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출판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본부
검정교과서, 참고서, 파사쥬논술

교과서사업본부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출판사업본부
아이세움, 아이즐, 휴이넘, 북폴리오, 와이즈베리

인쇄사업본부
국내·해외인쇄, 디지털인쇄

계열사
전북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현대문학, 미래엔 에듀케어, 미래엔 인천에너지, 부흥개발
목정문화재단, 목정장학회

www.mirae-n.com

사람을 키웁니다, 미래를 키웁니다

Mirae N 미래엔
대한교과서의 새 이름